

第1回 東北亞未來國際FORUM

東北亞の未來構築 – 地政學と國際協力

日時: 2023年 8月 21日(月) 10:00-18:00

場所: TV朝鮮 1層 RAON

**主催 :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東北亞未來構想研究所**

後援: CHAMPODONAMU病院, WORLD KOREAN

[프로그램]

사회: 양재영 유한대학 명예교수

<개회식> 10:00-11:50

- 10:00-10:30 등록 및 접수
- 10:30-10:40 참석자 소개
- 10:40-10:50 개회인사
 - ▶ 한국측: 이승율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 ▶ 일본측: 이강철 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 10:50-11:40 기조강연
 - ▶ 한국측: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한중일 3국 협력 메카니즘을 활성화해야한다』
 - ▶ 일본측: 하바 쿠미코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부이사장
『한중일 오키나와 제주도 평화와 발전의 지역협력』
- 11:40-11:50 기념촬영

<오찬 및 휴식> 11:50-13:00

<제1세션> 13:00-15:10

-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 좌장: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 ▶ 발표1: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동북아의 지정학』
 - ▶ 지정토론: 유민호 나고야상과대학 국제학부 교수
 - ▶ 발표2: 미무라 미즈히로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
『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
 - ▶ 지정토론: 홍정표 서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 발표3: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新냉전시대 동북아의 미래경제협력방안』
 - ▶ 지정토론: 한승헌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 ▶ 발표4: 이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 ▶ 지정토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
-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휴식> 15:10-15:20

<제2세션> 15:20-17:30

- 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
- 좌장: 사도토모 테츠 일본대학 대학원 교수
 - ▶ 발표1: 가와구치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 ▶ 지정토론: 구필현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
 - ▶ 발표2: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초국경 협력모델: 하산국제신도시 개발방안』
 - ▶ 지정토론: 가와구치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 ▶ 발표3: 첸 보우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
『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
 - ▶ 지정토론: 한상돈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 ▶ 발표4: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 전략』
 - ▶ 지정토론: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대학원 특임교수
 -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17:30-17:40 폐회인사: 일본측, 한국측
- 17:40-18:00 휴식
- 17:40-18:00 휴식 및 만찬장 이동
- 18:00-19:30 만찬회

[Program]

総合司会：梁在英・柳韓大學名誉教授

受付：10:00~10:30

開会式：10:30~12:00

参席者紹介：10:30~10:40

開会の辞：10:40~10:50

李 承律・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NACCF)理事長

李 鋼哲・東北亞未來構想研究所(INAF)所長

基調講演：10:50~11:40

申 鳳吉・韓国外交協会会長

「韓中日3國協力メカニズム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羽場 久美子・INAF副理事長

「日中韓・沖縄、ジェジュ、平和と発展の地域協力」

記念撮影：11:40~11:50

昼食と休息：11:50~13:00

第1セッション：13:00~15:10

主題：国際戦略環境の変化と東北アジアの地政学

司会者：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副理事長

報告1：李 良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常任代表

「ウクライナ戦争と変化する東北アジアの地政学」

指定討論：兪 敏浩・INAF理事・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教授

報告2：三村 光弘・INAF理事/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教授

「ポスト・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時代における北東アジアの経済交流の姿」

指定討論：洪 正杓・ソウル大學亞細亞研究所客員研究員

報告3：鄭 京永・漢陽大學教授

「新冷戦時代の東北アジア未来の経済協力方案」

指定討論：韓 承軒・INAF研究員・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

報告4：李 鋼哲・INAF所長・北陸大学経済経営学部教授

「米中覇権競争時代の地政学と地域協力の新しい課題」

指定討論：金 元鎬 韓国外国語大学名誉教授

自由討論及び質疑応答

コーヒー・ブレイク：15:10~15:20

第Ⅱセッション：15:20~17:30

主題：東北アジア国際協力の推進方案

司会：佐渡友 哲・INAF理事・日本大学大学院教授

報告1：川口 智彦・INAF理事・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 - 理解と対話の重要性 - 」

指定討論：丘 必鉉・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理事

報告2：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副理事長

「越境協力モデル - ハサン国際新都市開発方案 - 」

指定討論：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報告3：陳 柏宇・INAF理事・新潟県立大学教授

「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対日本と韓国の外交政策」

指定討論：韓 相敦 亜州大学名誉教授

報告4：李 昌雨・World FTA Forum 会長

「複合通常時代FTAによる北東アジア経済協力戦略」

指定討論：黄 明浩・INAF理事・韓国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特任教授,
自由討論及び質疑応答

閉会の辞：日本側, 韓国側 17:30 ~ 17:40

休息：17:40~18:00

懇親会：18:00-19:30

[목 차]

개회사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리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기조강연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하바 쿠미코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부이사장

<제1세션>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좌장: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발표1: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지정토론: 유민호 나고야상과대학 교수

발표2: 미무라 미즈히로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

지정토론: 홍정표 서울대학 아세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3: 정경영 한양대 교수

지정토론: 한승헌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발표4: 리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

<제2세션>

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

좌장: 사도토모 테츠 일본대학 대학원 교수

발표1: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지정토론: 구필현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

발표2: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지정토론: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발표3: 첸 보우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

지정토론: 한상돈 아주대학 명예교수

발표4: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

지정토론: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특임교수

[目 次]

開會辭

李 承律・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理事長

李 鋼哲・東北亞未來構想研究所所長

基調講演

申 鳳吉・韓国外交協会会長

羽場 久美子・東北亞未來構想研究所副理事長

第1セッション

主題：国際戦略環境の変化と東北アジアの地政学

司会者：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副理事長

報告1：李 良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常任代表

指定討論：兪 敏浩・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教授

報告2：三村 光弘・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教授

指定討論：洪 正杓・ソウル大學亞細亞研究所客員研究員

報告3：鄭 京永・漢陽大學教授

指定討論：韓 承軒・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

報告4：李 鋼哲・INAF 所長

指定討論：金 元鎬・韓国外国語大学名誉教授

第IIセッション

主題：東北アジア国際協力の推進方案

司会：佐渡友 哲・日本大学大学院教授

報告1：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指定討論：丘 必鉉・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理事

報告 2：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副理事長
指定討論：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報告 3：陳 柏宇・新潟県立大學教授
指定討論：韓 相敦 亜州大学名誉教授

報告 4：李 昌雨・World FTA Forum 会長
指定討論：黄 明浩・韓国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特任教授

[개회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율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측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과 일본 측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동북아미래국제포럼에 참석하신 한국과 일본 관계자 들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단과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는 지난 2월 7일 체결한 상호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첫 사업으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본 포럼은 한일 양 기관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 간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진단하고,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증폭되어 가고 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서방진영과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어 신 냉전구도가 고착화되어 가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변화가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갈등구조로 얽혀 있는 동북아 질서를 상호이익구조의 평화협력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활용하는 미래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재단과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에서는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공동번영을 열어가기 위해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자 ‘동북아의 미래구축-지정학과 국제협력’ 제하의 동북아미래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신봉길 한국외

교협회 회장님과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양구 상임대표님, 정경영 한양대 교수님,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님,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님, 홍정표 미야자키대 교수님, 한상돈 아주대 명예교수님, 구필현 이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오셔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하바 쿠미코 부이사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사도토모 테츠 이사님, 발제를 맡아주신 리강철 소장님, 미무라 미즈히로 이사님,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이사님, 첸 보우 이사님과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유민호 이사님, 한승현 이사님, 황명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1회 동북아미래국제포럼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신 냉전적 현상과 지정학적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율

[開会辞]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理事長，李承律

まず，開会に当たりまして， 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理事長，李承律よりごあいさつを申し上げます。本日は大勢の方に御参加いただき，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日、韓国側の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と日本側の一般社団法人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と共同で開催する第1回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韓国と日本の関係者の方々に、まず感謝と歓迎と共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本財団と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は去る2月7日に締結した相互交流協力協約式を締結し、その初の事業として、今日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皆様方に対しまして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非常に感慨深いです。

本フォーラムは、韓日両機関が急変している東北アジア諸国間の政治、外交、安保、経済、文化など各分野別の懸案を診断し、同時に東北アジア地域の国家間の緊密な交流協力を通じて地域の平和安定と共同繁栄を模索するための国際共助の共感帯の形成が非常に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最近、国際情勢は米・中間覇権競争が増幅されており、さらにウクライナ戦争の長期化により国際秩序は急変しています。特に米・西方陣営と中・ロ陣営に二分され、新冷戦構図が固着化していきながら、東北アジア地域で地政学的な変化が非常に嚴重な状況を迎えています。

葛藤構造に絡み合っている東北アジア秩序を相互利益構造の平和協力共同体に転換させるためには、自国中心の狭い視点から抜け出し、新しい時代の流れを活用する未来意識を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背景のもと、本財団と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では、東北アジア地域情勢の変化を鋭意注視して共同繁栄を開くための共同戦略を樹立しようと、「東北アジアの未来構築 - 地政学と国際協力」題下の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今回のフォーラムのために公私ともにご多忙のところ、基調講演を引き受けてくれたシン・ボンギル韓国外交協会会長と座長と発題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キム・ジェヒョ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副理事長、発題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イ・ヤング常任代表、ジョン・ギョンヨン漢陽大学教授、イ・チャンウワールドFTAフォーラム会長、指定討論を受けてくださったキム・ウォンホ韓国外語大学名誉教授、ホン・ジョンピョ宮崎大学教授、ハン・サンドン巫州大学名誉教授、ク・ピルヒョン理事に感謝申し上げます。

特に日本から来られた、基調講演を務める羽場久美子副理事長、座長を務めてくださる佐渡友哲理事、発題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李鋼哲所長、三村光弘理事、川口智彦理事、チェンボウ理事と指定討論を担当してくれたユ・ミンホ理事、ハン・スンホン理事、ファン・ミョンホ理事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日本から参加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日開催される第1回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を通じて、東北アジア地域の新冷戦的現象と地政学的危機に瀕している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東北アジア国家の未来志向的な新たな戦略を設定する重要な位置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また皆様方の今後のますますの御活躍を祈念いたしまして、開会のご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23年8月21日

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 理事長 李承律

[개회사]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

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망한중에서도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창설자이신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시는 이승을 이사장님과는 약15년 전 부터 귀중한 인연으로 되어 동북아미래의 꿈을 같이 꾸는 선배이자 파트너로서 서울에서, 도쿄에서, 베이징에서 여러 활동무대에서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키워드는 ‘동북아공동체구상’과 ‘조선족’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귀재단의 훌륭한 이사님들과 고문님들 외 여러 선생님들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00년 전, 동양의 지성인들은 동양의 평화를 주창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1902년, 일본의 미술운동의 지도자인 오카쿠라 텐신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이라는 책을 영어로 출판하였으며 미술사의 관점에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명언을 남겨 아시아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였습니다.

1910년2월, 안중근 의사는 여순의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습니다. “합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지금 서양세력은 동양에 침략의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런 재난에 대하여 동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그것을 말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어린이들도 도무 아는 일이다.” 안중근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독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동양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1924년11월, 중국혁명의 선구자이며 중화민국의 국부인 손문은 일본의 고베에서 ‘대아시아주의’연설을 하였습니다. 연설에서 손문은 일본의 일로전쟁에서의 승리를 찬미하고 그 위에서 아시아가 갈 길은 서구열강들처럼 군사력

에 의한 ‘패도’가 아니라 고결한 문화와 이념으로 다스리는 동양의 ‘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패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왕도’를 실행해야한다고 열변하여 많은 일본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의 선달들이 제시한 ‘아시아는 하나다,’ ‘동양평화론’, ‘왕도’의 사상과 이념과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3개국의 지성인과 리더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동양의 평화’를 의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지성인들이 국가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의 평화를 의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 갈등과 모순은 존재하고 있으나 역사가 전례 없이 진보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왔다는 현실을 우리는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연구단체의 교류협정을 계기로 한일양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동북아각국의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래에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나라의 지성인들도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간의 의견교환은 물론 귀중한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을 결부시켜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지적 아이디어와 지적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젊은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의 자리를 물심양면으로 주도하게 준비해주신 이동탁 사무총장님과 실무진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1일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

[開会の辞]

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の李鋼哲です。

本日、皆様が多忙の中、貴重な場所を提供し、参加して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の創設者あり、私が心から尊敬している李承律理事長とは15年前から貴重な縁を結びました。理事長は東北アジア未来の夢を共に見る先輩であり、パートナーでもあります。ソウル、東京、北京など国際舞台で共に活動してきましたが、そのキーワードは「東北アジア共同体構想」と「朝鮮族」であったと記憶しております。

本日、この会場には貴財団の優れた理事の諸先生、顧問の諸先生たちをご参加ください、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歴史を遡って100年前、東洋の知性人たちは、東洋の平和を提唱し、実践してきました。

1902年、日本美術運動の指導者である岡倉天心は『東洋の理想』(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という英文の本を世に出し、美術史の観点から「アジアは一つ」という明言を残し、アジア主義の思想と理念を世界に伝えました。

1910年、安重根義士は旅順の監獄で『東洋平和論』を著述しました。彼は、「合せれば勝ち、散らばれば敗れるというのは永遠に変わることはない理だ。……いま西洋勢力が東洋へ侵略の手を伸ばして来ているのに、これ災いと東洋人が一致団結して、くい止めるのが最良の方法であることは、子供でもみんな分かる事だ」、「東洋平和」と「韓国独立」に対する問題は、もう世界のあらゆる国の人々がみな分かる事実と指摘しました。

1924年、中国革命の先駆者であり、中華民国の国父である孫文は、日本の神戸にて「大アジア主義」演説を行いました。演説で孫文は、日本の日露戦争における勝利を賛美し、その上でアジアが行く道は西欧列強たちのように軍事力による「霸道」ではなく、高潔な文化と理念で国を治める東洋の「王道」になるべきであると強調し、日本は「霸道」を追求すべきではなく「王道」を実行すべきだと訴え、大勢の日本人に感銘を与えました。

100年前に、先駆者たちが提示した「アジアは一つ」、「東洋平和論」、「大アジア主義」の中に秘められた思想と理念と精神を我々は継承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歴史の中で、3カ国の先駆者たちは一堂に集まり、「東洋の平和」を議論す

る機会は残念ながら与えられていなかったのです。

ところが、今の時代で、本日は3カ国の知性人とリーダーたちが一堂に集まり、「東洋の平和」を議論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国家間の葛藤と矛盾は存在しますが、歴史は前例のない進歩を遂げており、新しい段階にグレードアップされたことを我々は大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十分活用しなければ先駆者たちに申し訳ないことになります。

本日は、二つの研究交流団体が相互交流協定を結んだのをきっかけに、日韓両国のみではなく、中国、台湾などの東北アジア各国の知性人たちが一堂に集まりました。将来は北朝鮮、モンゴル、ロシアなどの知性人も一緒になる場所にしてきたいと思います。

この場所で、お互いに意見交換することはさることながら、知的交流を通じて知的財産を創造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さらに、それを通じて未来を創造する若手リーダー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固く信じたいです。

このような夢と理想を実現するために、皆様の健勝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最後に、この場を物心両面で周到に準備してくれた李東卓事務総長はじめ事務局の皆様には敬意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 所長 李 鋼哲

2023年8月21日

[기조강연]

『한중일 3국 협력 메카니즘을
활성화해야한다』

申鳳吉

韓國外交協會 會長
初代韓中日協力事務局
事務總長

한중일 3국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첨예화와 동북아의 대응

동북아미래국제포럼 기조연설

2023. 8. 21.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 전 주인도대사



문제의식과 접근 방향

- 미중간 갈등 첨예화와 북한핵 위협 등
 -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 한중일 3국은 기존의 한중일협력 메커니즘(3국정상회의, 20여개의 장관급회의)을 적극 활성화하여
 - 이지역에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접근책 필요

동북아의 상황

- 미중 갈등의 첨예화
 -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
 - 미중간 사활을 건 무역, 기술전쟁(반도체, 배터리, AI, 5G 등)
 - * 자유무역(open market, free trade)의 챔피언이었던 미국의 입장 변화
 - 미국, 공급망 다변화, De-coupling, de-risking...
 - 중국은 de-Americanize supply chains...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반발
- 북한핵의 현실적 위협
-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대두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극히 유동적...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상황타개

- 동북아는 지역협력(Regionalism) 부진 현상 지속
 - 뿌리깊은 역사적 갈등이 지역협력과 지역기구 탄생 저해
 -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이 원심력으로 작용,
 - 지역협력 국가들간의 힘의 균형에 한계
 - 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위계적 질서 개념도 공동체 의식 저해
- 동북아에서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 기존의 한중일 지역협력의 완충적 역할 필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

한중일 지역협력의 태동과 발전

- 1999년 한중일 3국간 첫 정상 모임 개최 (조찬)
 - ASEAN+3 정상회의 참석기회활용
 - 오부치 총리,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이니셔티브설 ,
- 2002년 공식회의로 격상
 - 2003년 10월 발리정상회의, 역사상 최초의 공동선언 채택
 - ASEAN 발족을 선언한 1967년 방콕선언과 유사
- 2008년부터는 한중일 3국간의 독립적인 별도 정상회의로 발전
 -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외교장관회의, 재무장관 회의 등 20여개의 장관급 회의 가동중
 - 한때 러시아, 몽골도 3국협력체제 동참 가능성 타진

3국협력사무국(TCS) 출범

- 2010년 5월 제주도 개최 3국정상회의, 상설사무국 설립 합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적극 호응
 - 2011년 9월 한국 서울에 상설사무국(TCS)개설
 - 초대사무총장 신봉길(현 한국외교협회 회장, 전 주인도대사)
 - 일본측 사무차장 마쯔가와 루이 (현 참의원의원)
 - 중국측 사무차장 마오닝 (현 중국외교부 대변인)
- * 당시 한중일상설 사무국 출범에 자극을 받은
커트 캠벨 당시 미국 동아태차관보는
한미일간에도 사이버사무국이라도 설치하자고 제안





한중일 3국정상회의의 메커니즘의 가동

- 지금까지 8차례의 3국간 별도 정상회의 개최
 - 2008년 제1차 후쿠오카 정상회의 이래
 - 2009(베이징), 2010(제주도), 2011(도쿄), 2012(베이징 개최)
 - 2013년, 2014년은 3국간 갈등으로 개최치 못함.
 - 2015년 (서울)개최
 - 2016년, 2017년은 3국간 갈등으로 불개최
 - 2018(도쿄), 2019년(청두) 개최
- 2019년 이래 3국간 갈등, 미일 갈등 첨예화, 코로나 상황 등으로 3국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한중일 3국간 갈등 상황

-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현재 동북아는 국내정치가 외교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상황
 - 일본은 아베총리이래 우익 보수화 흐름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power, prosperity, pride)을 기치로 공세적 민족주의, 애국주의 주창,
 - 중국의 전랑외교(Wolf Diplomacy)도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에 기여
 - * 최근 싱하이밍 주한대사의 발언, "미중경쟁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은 오판"
 -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위안부 문제, 전시 강제징용 보상문제 등으로 갈등
- 윤석열 대통령, 2023. 3월 방일 정상회담이래 한일 관계복원 적극 노력중이나 한계

미중간 갈등 심화와 동북아

- 미중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 * Graham Allison(83, 하버드대 석좌교수)
 -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 2017년 출간), 투키디데스의 함정 ('Tuchididdes Trap')
 - *Kevin Rudd(65, 전 호주총리)
 - '피할수있는 전쟁'('The Avoidable War', 2022년 출간)
 - * 헨리 키신저, Economist 최근 인터뷰
 - " 5-10년안에 전쟁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 미중전쟁(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이슈)은 전세계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에 엄청난 참화가 될 것... 핵전쟁 비화 가능성

동북아와 인도 factor

-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 Supply Chain으로서 중국 대체 잠재력 보유 (반도체 분야 등)
 - 미중 갈등의 지정학 경쟁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swing state'
 - 인도의 multi-alignment policy
 -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압력을 완화할수있는 요소로 작용 가능
 - 'Global South'의 맹주
 - 한국, 일본에게 공히 중요한 경제, 안보, 투자 파트너
- * 202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 재집권 확실시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 필요성과 효과

- 미중간 극심한 경쟁 완화 역할
 - 한중일 갈등 고착시 동북아에 한미일, 중북리의 신냉전 고착화 가능성
- 동북아에 긴장완화와 새로운 활력 기회
 - 한일, 한중, 일중 등 양자관계 개선 기회도 제공
- 3국간 안보 이슈를 포함해 경제, 통상등 모든 관심사 논의 기회
 - 관례적으로 '3국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가 의제
-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 입장 조율 기회

금후의 동북아 협력 방향

- 한중일 정상회의 조속 개최 필요
 - 조기 개최 필요성에는 3국이 모두 동의하나 미묘한 차이 존재
 - 왕이 부장(정치국원), 2023년 7월 3일 칭따오 개최 3국협력국제포럼(IFTC)에서 3국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개최 분위기 조성 강조
 - 차기 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중국측 입장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는 상황, 중국측에서 누가 참석하는냐 하는 문제도
- 한중일 3국협력의 제반 메커니즘 최대한 활성화
 - 20여개의 장관급 회의, 기타 실무급 회의 등
 - 이지역 유일한 다자협력 상설사무국인 TCS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 필요
- 3국정상회의는 3국관계 여하에 관계없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韓・中・日3か国の協力メカニズム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米・中葛藤の尖鋭化と東北アジアの対応

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基調演説

2023. 8. 21.

申鳳吉（シン・ボンギル）韓国外交協会会長、元駐インド大使



問題意識と接近方向

- 米中間葛藤の尖鋭化と北朝鮮核の脅威など
- 東北アジアで高まっている危機的状況の中で
- 韓中日3国は、従来の韓中日3国協力メカニズム（3カ国首脳会議、20以上の閣僚級会議など）を積極的に活性化し
- 北東アジアで緊張を緩和するアプローチが必要。

東北アジアの状況

- 米中葛藤の尖鋭化
 - トランプ氏、バイデン政権の「America First」政策
 - 米中間の死活をかけた貿易、技術戦争(半導体、バッテリー、AI、5Gなど)
 - * 自由貿易(open market, free trade)のチャンピオンだった米国の立場の変化
 - 米国、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角化、De-coupling、de-risking…
 - 中国は、de-Americanize supply chains…
 - 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と中国の反発
- 北朝鮮核の現実的脅威
- 韓・米・日と北・中・ロの新冷戦構図が台頭
- 韓半島をめぐる東北アジアの安保環境が極めて流動的…

地域協力強化による東北アジアの状況打開

- 東北アジアは地域協力（Regionalism）の不振現象が続く
 - 根強い歴史的葛藤が地域協力と地域機構誕生を阻害
 - 米国の圧倒的影響力が遠心力として作用し、
 - 地域協力の国家間の力の均衡に限界
 - アジアにおける伝統的な位階秩序の概念も共同体意識を阻害
- 東北アジアで韓・米・日・北・中・ロの新冷戦体制が台頭している状況から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
 - 既存の韓・中・日地域協力の緩衝的役割が必要…今のところ唯一の代案

日・中・韓の地域協力の胎動と発展

- 1999年韓・中・日3国間初の首脳会合開催(朝食)
 - ASEAN+3 首脳会議への出席機会を活用
 - 小渕首相、金大中大統領、朱鎔基首相イニシアチブ説、
- 2002年公式会議に格上げ
 - 2003年10月 パリサミット、史上初の共同宣言を採択
 - ASEAN発足を宣言した1967年バンコク宣言と類似
- 2008年からは韓・中・日3国間の独立した別途首脳会議に発展
 - 現在、韓・中・日3国間では外交長官会議、財務長官会議など20余りの閣僚級会議が稼働中
 - 一時、ロシア、モンゴルも3国協力体制に参加する可能性を打診

3国協力事務局(TCS)発足

- 2010年5月、濟州島開催の3カ国首脳会議、常設事務局設立に合意
 - 李明博 大統領の提案に鳩山由紀夫首相が積極的に呼応
 - 2011年9月 韓国ソウルに常設事務局(TCS)開設
 - 初代事務総長シン・ボンギル（現韓国外交協会会長、元駐インド大使）
 - 日本側事務次長松川瑠衣（現参議院議員）
 - 中国側事務次長の毛寧(現中国外交部報道官)
- * 当時、韓中日常設事務局の発足に刺激を受けた当時のカート・ケンベ
官補は、韓・米・日間にもサイバー事務局でも設置しようと提案



3か国 協力事務局



韓・中・日の3か国首脳会議メカニズムの稼動

- これまで8回の3国間首脳会議開催
 - 2008年の第1回福岡首脳会議以来
 - 2009(北京)、2010(濟州島)、2011(東京)、2012(北京開催)
 - 2013年、2014年は3か国間の葛藤により開催できず。
 - 2015年(ソウル)開催
 - 2016年、2017年は3か国間の葛藤により開催されません
 - 2018(東京)、2019年(青島)開催
- 2019年以来、3国間の葛藤、日米葛藤の尖鋭化、コロナ状況などで3か国首脳会議が開催されていない。

現在の韓・中・日3か国間の葛藤状況

- 「外交は国内政治の延長」と言うが、現在東北アジアは国内政治が外交を過度に圧迫している状況
 - 日本は安倍首相以来右翼保守化の流れ
 - 中国は習近平主席の「中国夢」(power, prosperity, pride)を旗印に攻勢的ナショナリズム、愛国主義の唱歌、
 - 中国の戦狼外交(Wolf Diplomacy)も周辺国との関係悪化に寄与
 - * 最近、辛海明駐韓大使の発言、「米中競争で中国の敗北に賭けるのは誤判」
 - 韓国はこれまで日本と慰安婦問題、戦時強制徴用補償問題などで葛藤
- 尹錫悦 大統領、2023年3月の訪日首脳会談以来、韓・日関係修復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が限界

米・中間の葛藤の深化と東北アジア

- 米中戦争は避けられないのか？
 - * Graham Allison (83、ハーバード大学碩座教授)
 - 「予定された戦争」(「Destined for War」、2017年出版)、トウキョディデスの罠(Tuchidides Trap)
 - * Kevin Rudd (65、元オーストラリア首相)
 - 「避けられる戦争」(「The Avoidable War」、2022年出版)
 - * ヘンリー・キッシンジャー、Economist最近のインタビュー
 - "5-10年以内に戦争を避ける方法を見つけなければ……"
- 米中戦争(台湾、南シナ海、韓半島問題)は全世界、特に韓半島及び東北アジアにとって途方もない惨禍となること…… 核戦争の飛び火の可能性

東北アジアとインド factor

-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 Supply Chainとして中国代替潜在力を保有(半導体分野など)
- 米中葛藤の地政学競争の中で決定的に重要な「swingstate」
 - 印度のmulti-alignment policy
 - 東北アジアにおける中国の圧力を緩和できる要素として作用可能
- 「Global South」の盟主
- 韓国、日本にとって共に重要な経済・安全保障・投資パートナー
 - * 2024年の総選挙でモディ首相が政権獲得を確実視

韓・中・日の首脳会議再開の必要性と効果

- 米中間の激しい競争緩和の役割
 - 韓中日の葛藤固着時
 - 北東アジアに韓米日、中北露の新冷戦固着化の可能性
- 東北アジアに緊張緩和と新たな活力の機会
 - 韓日、韓中、日中など二国間関係改善の機会も提供
- 3か国間の安全保障問題を含め、経済・通商などあらゆる関心事について話し合う機会
 - 慣例的に「3か国協力の現状及び今後の発展方向」と「主要地域及び国際問題」が議題となっている
- 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など立場調整の機会

今後の東北アジア協力方向

- 韓中日首脳会議の早期開催が必要
 - 早期開催の必要性には3カ国とも同意するが微妙な違いが存在
 - 王毅部長(政治局員)、2023年7月3日に青島開催の3か国協力国際フォーラム(IFTC)で3か国首脳会議と外相会議開催の雰囲気づくりを強調
 - 次期会議議長国である韓国は、中国側の立場を慎重に見守っている状況、中国側で誰が出席するかという問題も
- 韓中日の3か国協力の諸メカニズムを最大限に活性化
 - 約20回の長官級会議、その他の実務級会議など
 - この地域の唯一の多国間協力常設事務局であるTCSの役割と機能も強化が必要
- 3か国首脳会議は、3か国関係の如何にかかわらず、毎年定例的に開催しなければならない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전 주인도대사

신봉길 대사는 외무고시를 거쳐 1978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40년에 걸친 외교부 생활중 공보관 겸 대변인(2003-04), 주중공사(2004-07), 주요르단대사(2007-10),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초대사무총장(2011-1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소장과 주인도대사(2018-21) 등 다양하고 중요한 경력을 쌓았다. 퇴직 후 23대 한국외교협회장(2023.1-2025.12)으로 선출되어 재직중이다.

신봉길 대사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첫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나 그 후 일본, 중국, 미얀마, 인도 등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일하면서 아시아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특히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특보(2002-03)로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함경도 신포 원전 건설 업무에 관여 북한을 여섯차례나 방문했으며 이후 북한 문제를 평생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다.

신봉길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서울대 '대학신문' 학생편집장을 지냈다. 북경대학에서 중국어를 연수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한림대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학자형 외교관(scholar diplomat)을 지향하고 있다. 신대사는 '시간이 멈춘 땅, 미얀마'(1992, 한나래), '한중일협력의 진화'(2015, 아연출판부) 등의 저서를 출판했다.

[기조강연]

『일·한 협력, 오키나와 제주도를
평화의 기석으로』

-일·한은 아시아시대를 평화와 경제력으로 리드하자-

羽場 久美子

青山学院大学 名譽教授

INAF副理事長

第1回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

基調講演

제1회 동북아시아미래국제포럼 기조연설

2023,8,21

日韓協力、沖縄・済州島を、平和の砦に！

—日韓は、アジアの時代を平和と経済力でリードしよう！—

일한협력, 오키나와 제주도를 평화의 기적으로

-일한은 아시아시대를 평화와 경제력으로 리더하자-

◎羽場 久美子

하바쿠미코

青山学院大学 名誉教授 아오야마학원대학명예교수

早稲田大学 招聘연구원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世界国際関係学会 アジア・太平洋 会長

세계국제관계학회 아시아 태평양 회장

I. 現在の世界の大きな流れ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データから見る21世紀

I. 현재의 세계의 큰 흐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데이터로 보는 21세기

- ▶ 1. 아시아 (中国,인도,ASEAN)의 급속한 경제성장
 - ▶ 2. 세계인구 :
 - ▶ 2100년에는 아시아와 프리카가 80%
 - ▶ 구미는 10%
 - ▶ 3. 코로나 팬데믹 :
 - ▶ 사망자가 당초에는 90%,현재에도 50%는 구미
 - ▶ 4. 일본의 소자고령화 :
 - ▶ 40년후의 노동력인구가 현재의 절반 (40%가 65세 이상) 이민과 근린국가들과의 협조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 ▶ 1. 아시아 (中国,인도,ASEAN)의 급속한 경제성장
 - ▶ 2. 세계인구 :
 - ▶ 2100년에는 아시아와 프리카가 80%
 - ▶ 구미는 10%
 - ▶ 3. 코로나 팬데믹 :
 - ▶ 사망자가 당초에는 90%,현재에도 50%는 구미
 - ▶ 4. 일본의 소자고령화 :
 - ▶ 40년후의 노동력인구가 현재의 절반 (40%가 65세 이상) 이민과 근린국가들과의 협조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 ▶ 1. 아시아 (中国,인도,ASEAN)의 급속한 경제성장
 - ▶ 2. 세계인구 :
 - ▶ 2100년에는 아시아와 프리카가 80%
 - ▶ 구미는 10%
 - ▶ 3. 코로나 팬데믹 :
 - ▶ 사망자가 당초에는 90%,현재에도 50%는 구미
 - ▶ 4. 일본의 소자고령화 :
 - ▶ 40년후의 노동력인구가 현재의 절반 (40%가 65세 이상) 이민과 근린국가들과의 협조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 ▶ 1. 아시아 (中国,인도,ASEAN)의 급속한 경제성장
 - ▶ 2. 세계인구 :
 - ▶ 2100년에는 아시아와 프리카가 80%
 - ▶ 구미는 10%
 - ▶ 3. 코로나 팬데믹 :
 - ▶ 사망자가 당초에는 90%,현재에도 50%는 구미
 - ▶ 4. 일본의 소자고령화 :
 - ▶ 40년후의 노동력인구가 현재의 절반 (40%가 65세 이상) 이민과 근린국가들과의 협조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 ▶ 5.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軍備拡大ではなく早期停戦を
- ▶ 世界の流れは、アジア・アメリカとの共存と発展
- ▶ 米欧の軍備拡大は、焦り→軍縮と平和こそ重要
- ▶ 日本はアジアの一国。G7とG20を繋ぎ、アジアの平和的繁栄を支え協力することこそ、大切。
- ▶ 戦争ではなく、平和と軍縮、発展こそ重要、とデータが教えている。

- ▶ 5.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군비확장이 아니라 조기 정전을
- ▶ 세계의 흐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의 공존과 발전
- ▶ 구미의 군비확대는 초조한 대책→군축과 평화야말로 중요함
- ▶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며 G7과 G20을 연결시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군축 그리고 발전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알려주고 있다.

表1. 地域別世界人口の推移(지역별 세계인구 추이) <豊かさ・経済力・IT/AI> 2100年、Asia Africaの国々が世界人口の8割を超え,米欧は1割を切る。(1割はLA) (明石康国連研究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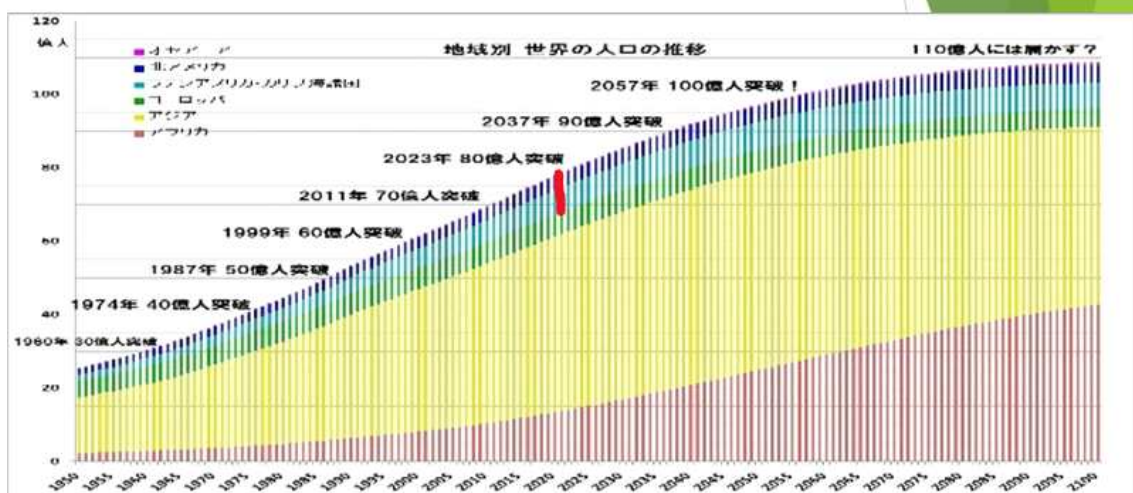


表2-1) アンガス・マディソンの経済統計西暦1-203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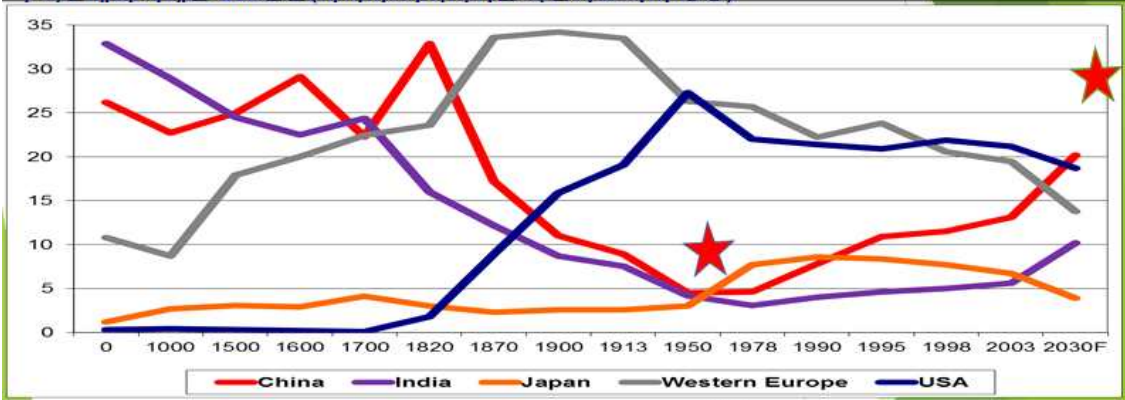
안가스 매디슨의 경제통계 서력1-2030년 (河合正弘氏グラフ)

インド・中国は1800年間の繁栄：인도와 중국은 1800년간 번영

古代・中世・近世、未来世界経済の中心。고대/중세/근세/미래 세계의 중심

欧米近代の時代はたった200年！（アジア/アフリカの植民地により成長）

구미근대의 시대는 200년뿐(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하여 성장)



Source: Angus Maddison,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1-2030 AD* (2007),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2001); and "The West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1500-2030" (2005), Masahiro Kawai, *Asian Economy*

表2-2) <アジアの経済成長> 世界名目GDP (2022) IMF/Elemint

아시아의 경제성장: 명목GDP (2022)

2028年(6年後) 中国はアメリカを超える。(アジアBRICS成長赤)

2028년(6년후) 중국은 미국을 능가(아시아 BRICS성장 붉은색)

順位	国名	単位 (百万US\$)
1位	アメリカ合衆国★ 미국	25,346,805
2位	中国★ C 중국	19,911,593 ↑ 日本の4倍
3位	日本 일본	4,912,147
4位	ドイツ 독일	4,256,540
5位	インド I인도	3,534,743
6位	イギリス 영국	3,376,003
7位	フランス 프랑스	2,936,702
8位	カナダ 캐나다	2,221,218
9位	イタリア 이태리	2,058,330
10位	ブラジル B 브라질	1,833,274
11位	ロシア連邦 R 러시아연방	1,829,050
12位	大韓民国 대한민국	1,804,680

表2-3) PPP(購買力平価)ベースのGDP(2021) 구매력평가 GDP
 既に中国はアメリカを、インドは日本を超えている。
 중국은 이미 미국을 초월하고 인도는 일본을 초월

▶ 2021年 購買力平価GDP (IMF統計) (アジア-아시아・BRICS 赤:)

▶ 順位	▶ 国名	▶ 単位: 百万US\$
▶ 1	▶ 中国 C	▶ 27,206,091
▶ 2	▶ 米国 미국	▶ 22,996,075
▶ 3	▶ 인도 인도	▶ 10,193,541
▶ 4	▶ 日本	▶ 5,606,553
▶ 5	▶ 독일 독일	▶ 4,888,363
▶ 6	▶ 러시아 R 러시아	▶ 4,494,223
▶ 7	▶ 인도네시아	▶ 3,566,259
▶ 8	▶ 브라질 B	▶ 3,435,874
▶ 9	▶ 이ギリス	▶ 3,402,740
▶ 10	▶ 프랑스	▶ 3,358,913
▶ 11	▶ 튀르키예	▶ 2,953,937
▶ 12	▶ 이탈리아	▶ 2,734,614
▶ 13	▶ 멕시코	▶ 2,669,061
▶ 14	▶ 한국	▶ 2,517,129
▶ 15	▶ 캐나다	▶ 2,024,955

Global Note:2022. IMF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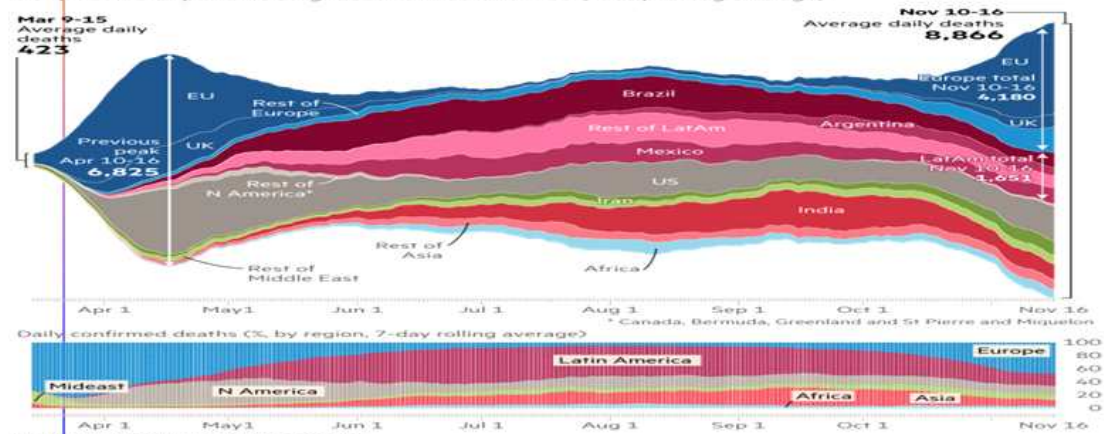
表3 . 2020年のコロナ・パンデミック感染死亡者数(코로나 팬데믹 사망자수)

(2023年現在、67,800万人が感染、679万人が死亡)

死者は第1波で米欧が9割、2020年末で米欧が6割、現在も死者の半分以上が米欧 사망자 제일파에 구미가 90%, 2020년말 구미가60%, 현재에도 사망자의 반수가 구미

(靑が欧州、灰色がアメリカ、中はラテンアメリカとインド、푸른색 유럽, 회색이 미국, 중간은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Europe's Covid-19 resurgence pushes daily death toll higher than April peak
 Daily deaths of patients diagnosed with coronavirus (7-day rolling average)



FT graphic, Steven Bernard / @stbernard
 Sources: FT analysis of data from the ECDC, the Covid Tracking Project, UK government Covid-19 dashboard and the Spanish Ministry of Health
 © FT

表4. 現在のコロナ感染・死者、トップ10か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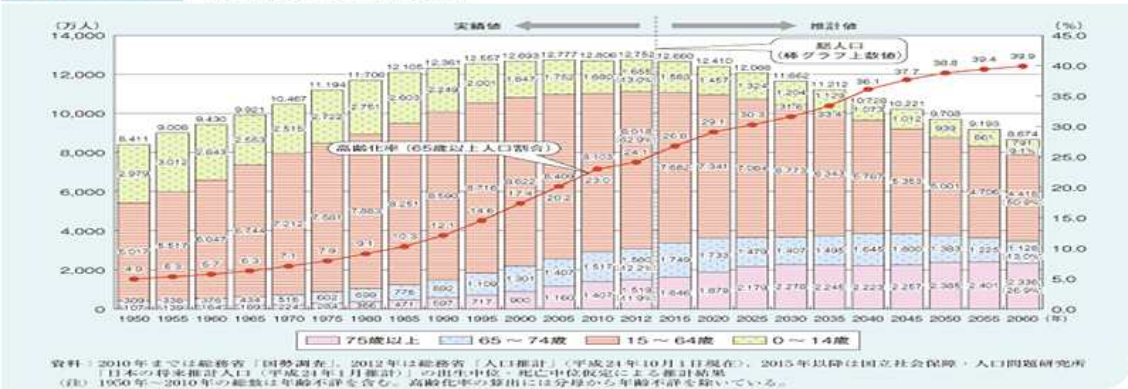
현재의 코로나감염 사망자 톱10개 국가
 worldometers (東アジア感染拡大、But死者比率が違う)
 동아시아 감염확대 그러나 사망자 비율이 다르다.

	World	671,032,177	+215,123	6,729,117	+831
1	<u>USA</u>	103,482,187		1,125,020	1%
2	<u>India</u>	44,681,884		530,726	
3	<u>France</u>	39,442,176		163,347	0.5%
4	<u>Germany</u>	37,605,135		163,775	
5	<u>Brazil</u>	36,623,217		695,334	
6	<u>Japan 日本 ★</u>	31,308,352	+132,071	62,264	0.2% +503
7	<u>S. Korea</u>	29,774,321	+36,552	32,912	0.1% +45
8	<u>Italy</u>	25,363,742		185,993	
9	<u>UK</u>	24,243,393		202,157	
10	<u>Russia</u>	21,851,824	+5,102	394,355	+46
11	<u>Turkey</u>	17,042,722		101,492	

表5. 日本の人口変化：少子高齢化と労働者不足：日本の人口変化:少子高齢화와 노동자부족
 日本の人口、2060年（40年後）には、労働力人口半減。65歳以上40%。

일본의 인구는 2060년(40년후)에는 노동력 인구 반감, 65세 이상이 40%, 개혁하지 않으면
 2110년에는人口3分の1, 2200年には人口1千万人!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1, 2200년에는 1천만.入管
 法改正2019.4. 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5年で34万人：(1年目1621人) 出入国管理庁
 1019년4월에 입관법 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받아드림. 5년간에 34만명(1년차에는1621명)
 (内閣府総務省Data) 移民の低賃金、人権無視を早急に解決する必要。日本の緊急の課題!
 이민의 저임금, 인권무시를 조급히 해결할 필요. 일본의 긴급과제!

図1-1-4 高齢化の推移と将来推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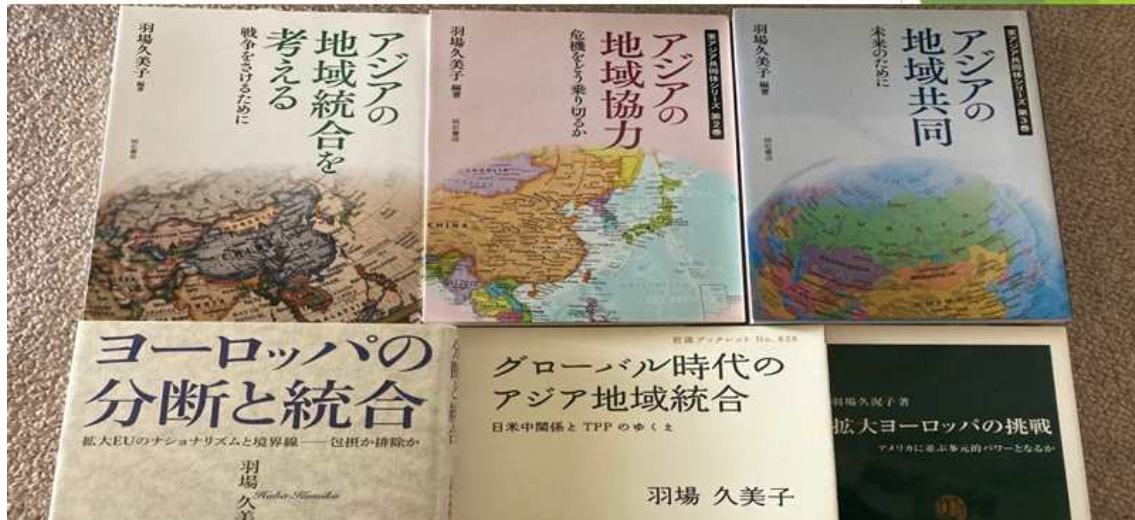


羽場久美子編著書:アジアの地域協力、共同

아시아 지역협력, 공동체

戦争をさけるために、危機をどう乗り切るか、未来のために！今始めなければ手遅れ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미래를 위하여 지금하지 않으면 두떨어진다



羽場久美子編著書:新世界秩序をどう作るか？

米欧とアジアは、敵対ではなく協力を！

새로운 세계질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구미와 아시아는 적이아니라 협력을



データが教えること。アジア近隣国との友好が不可欠！にもかかわらず、軍事化進行
 데이터로 알수 있는일. 아시아 린국과의 우호가 불가결, 하지만 군사화가 진행
 現状① 沖縄諸島に(対中)ミサイル配備開始
 현황① 오키나와 섬에 대중미사일 배비시작

- ▶ 沖縄に無人ミサイル配備へ：日米2+2、南西諸島の防衛強化
- ▶ 2022/1/13 (琉球新報) ★盾(専守防衛)から矛(攻撃)へ!
- ▶ 「戦闘になれば沖縄が標的に」ミサイル配備に反対うるま市
2022/12/26 (沖縄タイムズ)
歴史的に考えて中国が沖縄にミサイルを撃ち込むはずがない! (誰の利益?!)

- ▶ 오키나와에 무인 미사일 배치 :
- ▶ 일미 2 + 2, 서남저도의 방위력 강화
- ▶ 2022/1/13 (류큐신보)
- ▶ ★방패 (전수방위) 로부터 창 (공격) 에로!
- ▶ 「전쟁이 일어나면 오키나와가 표적이 된다」 미사일 배비에 반대 우르마시
- ▶ 2022/12/26 (오키나와타임즈)
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이 오키나와에 미사일을 쏠수 없을것! (누구의 이익되나?!)

- ▶ 防衛予算、与那国島の新地对空ミサイル配備のため土地取得 (島民が喜んで
いる図?) 2022/12/24 NHK
- ▶ 過去最大6兆8000億円余りとなった防衛費 :
- ▶ 南西諸島の防衛強化のためとして、沖縄に予算配分 (NHK)
- ▶ 誰のための防衛か? どうすれば止められるのか?
- ▶ こちらがミサイル配備すれば、当然相手もこちらに向けてミサイル配備
- ▶ 2000年の歴史で、中国が日本に侵略したか? 日本が大陸に侵攻。
- ▶ 中国に、朝貢、冊封(さくほう)体制を続けてきた沖縄。歴史に逆らう方向

- ▶ 방위예산, 요나쿠니도의 신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위해서 토지를 취득 (도민들이 기뻐한다?) 2022/12/24NHK
- ▶ 과거 최고인 6조8000억엔으로 늘어난 방위예산 :
- ▶ 서남저도의 방위강화를 위함이라 하여 오키나와에 여산배분 (NHK)
- ▶ 누구를 위한 방위인가?
- ▶ 어떻게 하면 저지할수있겠는가?
- ▶ 이쪽에서 미사일 배치하면 저쪽 대방에서도 당연히 여기를 향하여 미사일 배치
- ▶ 2000년의 역사에서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적 있었는가? 일본이 대륙을 침략했을 뿐.
- ▶ 중국에 조공, 책봉체제를 해온 오키나와
- ▶ 역사에 역전하는 방향

現状② 日本列島南部、南西諸島と沖縄石垣島に、地下司令塔

(2023.1.22) 大分、青森にも。日本全土に地下司令塔？

일본열도 남부, 서남저도와 오키나와 이시카키섬에 지하 사령탑 (2023.1.22)
오오이타, 아오모리에도. 일본전도에 지하 사령탑?

<戦闘が始まって地上が荒廃しても>、地下から敵
基地攻撃を司令 (24年までに10も！)

- ▶ 国民の犠牲を、考えていない。
- ▶ 憲法9条の違反、人権侵害ではないか？ 地元の議会・住民に了承を得ていない
- ▶ 国会で審議もしていない (閣議決定) -民主主義が踏みにじられている。
- ▶ どうすればいいのか？
- ▶ まず、市民の意見を聞く。議会で話してから決める。「民主主義」
- ▶ 羽場、この冬、アメリカ国連本部、タイ、インドを歴訪。
- ▶ どの国も平和と安定を望む。多様な意見を聞く。

<전투가 시작되어 지상이 황폐해져도>、지하에서 적들의 기지공격을 명령할수있다 (24년까지10곳！)

- ▶ 国民의 희생은 생각 아니 한다.
- ▶ 헌법9조의 위반, 인권침해가 아닌가?
- ▶ 지역의 의회와 주민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있다.
- ▶ 국회에서도 심의하지 않고 있다
- ▶ (내각회의 에서 결정) -민주주의가 짓밟혀지고 있다.
- ▶ 어떻게 할것인가?
- ▶ 먼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회에서 의논한후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 ▶ 하바는 이번 겨울 미국의 연합국본부, 타이, 인도 등을 방문. 어느나라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다양한의견을 들어야 한다.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を停戦に！アジアの
経済力と平和により、平和と繁栄をリード

- ▶ **ウクライナ戦争**：現在トルコ、フランス、ドイツ、中国、インドが停戦要求。
- ▶ 日本と韓国の知識人100名で停戦要求を国連に提出。アメリカ、欧州は反対。
- ▶ どうしたらよいか？ **ダボス会議2023年** 「分断から共同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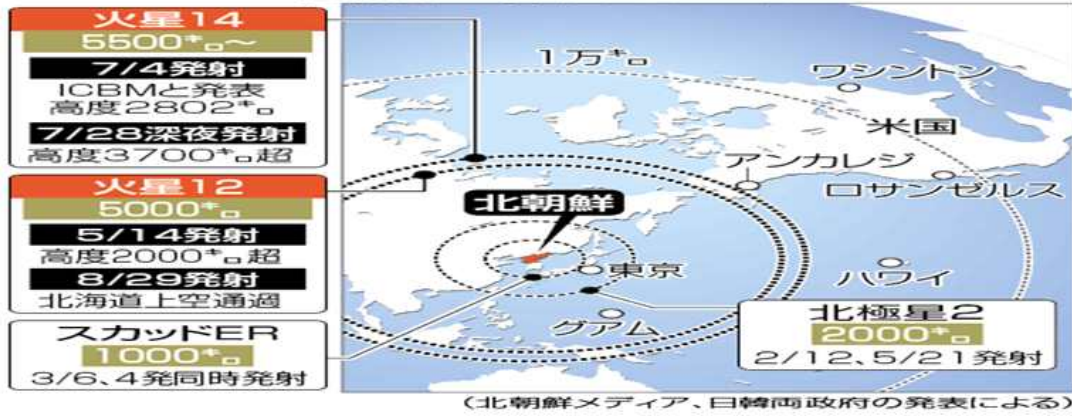
ロシア・ウクライナ 전쟁을 정전으로 !

아시아의 경제력과 평화에 의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리드해야 한다.

- ▶ **우크라이나 전쟁** : 현재 터키, 프랑스, 독일, 중국, 인도등이 정전을 요구.
- ▶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 100명이 정전 요망서를 연합국에 제출.
- ▶ 미국과 유럽은 반대.
- ▶ 어떻게 할것인가?
- ▶ **다보스회의 2023년**
[분단으로부터 공동으로] !

1. 安全保障の現状：北朝鮮、および中国：안전보장의 현황:북한 및 중국
 北朝鮮の核兵器：弾道ミサイル開発2017.11. 북한의 핵무기, 단도미사일 개발
 弾道ミサイル1万キロ、アメリカに到達（時事ドットコム） 단도미사일은 1만킬러, 미국에 도착
 ★2022年11月の、火星17は、ICBM 15000㎞。米国全土と欧州が射程！（韓国・日本は標的ではない）
 2022년11월의 화성17은 ICBM 15000, 미국 전 영토와 유럽이 사정내(한국/일본은 표적이 아니다)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



- 1) QUAD (日米豪印4か国戦略対話) 東アジア版NATO 安倍首相が提唱
 (일미호인 4개국 전략대화) 동아시아판 NATO, 아베전수상이 제안
 2) QUADプラス:韓国、ベトナム(베트남)、ニュージーランド(뉴질랜드) (朝日新聞) (2006-7)

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

QUAD関連協議はいかに進められてきたか

2015年 4月	米日同盟、中国の浮上に対応する「グローバル同盟」に拡大	2018年 1月	インドのニューデリーで「クワッド」軍当局者会議
2016年 8月	安倍首相、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初めて宣及	2019年 6月	米国防総省、インド太平洋戦略を公式化
2017年 11月	米日首脳会議で「インド太平洋を自由で開かれた空間に、同盟する諸国と協力し、互恵的な関係を構築」	9月	米国のニューヨークで初の「クワッド」外相会議
12月	米露、中国を「戦略的競争相手」と捉える国家安保戦略(NSS)を発表	2020年 8月	ビーガン副長官、「クワッド」を東アジア版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する構想について宣及

※クワッド(FIQUAD): 米日が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作るため構想している「4か国安全保障対話」(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正式の協議体が構成されたわけではないが、太平洋-インドで多様な合同演習を行った。

※クワッドプラス: クワッドに 韓国、ニュージーランド、ベトナム、などを加えた概念(2021年、米韓首脳会談で正式に宣及)

東アジアの安全保障： 1) QUAD, 2) QUADプラス, 3) AUKUS, 4) Five eyes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 ▶ 1). QUAD (日米豪印4개국戰略對話) - ひし形で中国を取り巻く、
- ▶ ★しかしインドは消極的。安倍首相が2013年提唱(インド?)、トランプ政権が実質化
- ▶ 2). QUADプラス: 韓国、ベトナム、ニュージーランド、(台湾)
- ▶ <東アジア版NATOを構想> (中国・ロシア・北朝鮮を封じ込め)
- ▶ <台湾と沖縄をその最前線に置こうとする>
- ▶ ★欧州、日本、ASEANは、中国との対立に必ずしも同調しない

- ▶ 1). QUAD (일미호인 4개국 전략대화) -
- ▶ 다이아몬드형으로 중국을 포위,
- ▶ ★그러나 인도는 소극적. 아베수상이 2013년에 제안(인도?)、트럼프정권이 실질화
- ▶ 2). QUAD플러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대만)
- ▶ <동아시아판NATO를 구상>
- ▶ (중국·러시아·북한을 봉쇄)
- ▶ <대만과 오키나와를 제일 전선에 놓으려고 함>
- ▶ ★유럽, 일본, ASEAN은 중국과의 대립에 꼭 동조한다고 말할수 없다.

- ▶ <★經濟先進地域の東アジアを、紛争地にしたい★>
- ▶ 背景: 코로나禍で經濟が悪化、安全保障と經濟を分けたい
- ▶ ★重要! 経回連、中小企業: 日本商工会議所、2021年12월 중국經濟との連携を希望
- ▶ 러시아とのサハリン2も継続: 三井物産、三菱商事。
- ▶ しかしアメリカから圧力、2023年7月には半導体材料を輸出停止。
- ▶ 国民の利益、企業利益、継続性を考える。イデオロギーではない。
- ▶ 我々は何をすべきか? メディアは極めて重要: 情報が十分伝えられていない。
- ▶ メディア・リテラシー、公平、多面的な報道が重要

- ▶ <★ 경제 선진지역의 동아시아를 분쟁지로 하고 싶지는 않다★>
- ▶ 背景: 코로나화로 경제가 악화, 안전보장과 경제를 분리하려고 한다.
- ▶ ★중요! 経단련、중소기업, 일본상공회의소、2021년 12월 중국경제와의 연대를 희망
- ▶ 러시아와 사할린2도 계속하고 있다: 미쯔이 물산, 미쯔비시 상사.
- ▶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2023년 7월에는 반도체재료의 수출정지.
- ▶ 국민의 이익, 기업의 이익, 계속성을 생각해야 하며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 ▶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 ▶ 미디어가 극히 중요: 정보가 충분이 전달되지 않음.
- ▶ 미디어의 자유, 공평, 다면적인 보도가 중요하다

3) AUKUS: 米英豪의 軍事情報 3국同盟 4億人超

미영호의 군사정보 3국동맹 4억인구 초과

軍事・IT・核 (背景に中国のIT人口10億!) **バイデン・ジョンソン・モリソン**

군사/IT/핵 *배경에는 중국의 IT인구 10억. **바이덴/ 존슨/ 모리슨**

4) ファイブアイズ (米英カナダ・豪・ニュージーランド) 諜報網

5개의눈(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망 유럽/일본/한국동맹국은 제외.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에도 도청기 (Wikileaks) (Wow! Korea)



3. 2極化は何をもたらすか? このまま進めば、日本列島が最前線に。

3000キロにわたるアジア大陸封じ込めの自然要塞 (赤ライン)

日本列島・沖縄・台湾・韓国の連携により、ロシア・北朝鮮・中国に対抗する、「最前線基地」は、日本の利益か?

この細腕で、弁慶のように、3核大国から飛んでくるミサイルに対して

1億2500万の国民を守るのか? アジア大陸との共同こそ、軍縮・平和の道

3. 양극화는 무엇을 초래하나?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열도가 최전선이 된다.

3000킬로의 아시아대륙 봉쇄의 자연요새 (붉은 색 라인)

일본열도・오кина와・대만과 한국이 연결하여 러시아・북한・중국에 대항. 「최전선 기지는 일본의 이익인가?

이처럼 약한 손목으로 벤케이 처럼 3핵대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1억 2,500만명의 국민을 지킬수 있는가? 아시아 대륙과의 공동, 군축이 평화의길



もし東アジアで戦争が起こったら？

北朝鮮の核施設寧辺(ヨンピョン核施設)が爆破されるだけで、東アジア経済圏ストップ

★チェルノブイリ30年後の、ノルウェー、スウェーデンの調査によれば、

原発事故後30年たって、北緯1200km圏のトナカイの肉、キノコなどに高い放射線！

これが東アジアだったら？北朝鮮1200km圏：日本列島、朝鮮半島、中国沿海州、ロシア極東全部入る。

東台湾・沖縄で有事が起こったら？ 中国・韓国・日本の経済圏破壊！絶対に戦争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

北朝鮮からの射程距離

2023-04-04 08:07:25, (GMT+09:00) 2023-08-30

北朝鮮の核戦争時、海洋圏外反がエスカタートして寧辺(ヨンピョン Yongpyon)の原子炉再稼働へ建設作業を開始した(30radh.org)とか。

くわえて日本海側にミサイル発射の動きがあるとか。

咸興北道・賢永砲臺(ムスダンリ)からの射程はとめ

黄色のマーカークリック、内の距離=1208.89 km



만약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한다고 한다면？

북한의 냉병핵시설이 폭발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권이 스톱될것.

★체르노빌리 30년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조사에 의하면 원발사고후 30년이 지나도

북유럽 1200km권의 토나카이의 고기, 버섯등에는 높은 방사선이 잔존함！

이것이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북한의 1200km권: 일본열도, 조선반도, 중국연해지역, 러시아극동지역 전부가 포함

대만이나 오키나와에서 전쟁이 일어한다면？

중국·한국·일본의 경제권은 괴멸된다！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않된다！

北朝鮮からの射程距離

2023-04-04 08:07:25, (GMT+09:00) 2023-08-30

北朝鮮の核戦争時、海洋圏外反がエスカタートして寧辺(ヨンピョン Yongpyon)の原子炉再稼働へ建設作業を開始した(30radh.org)とか。

くわえて日本海側にミサイル発射の動きがあるとか。

咸興北道・賢永砲臺(ムスダンリ)からの射程はとめ

黄色のマーカークリック、内の距離=1208.89 km



II. どうしたらよいか. どうなっているのか?

1. <アジア周辺大国の地域協力 興味深い事実:>

1) 中国 地域の協力関係を重視.
 米英: QUAD, AUKUSへの対抗を避け、西へ:
 経済投資とインフラの安全保障.
 米英軍事共同 v s 中国の経済拡大・地域協力:

中国百年インフラ投資計画: 一帯一路

(陸、海、北極圏→3連の首飾)ク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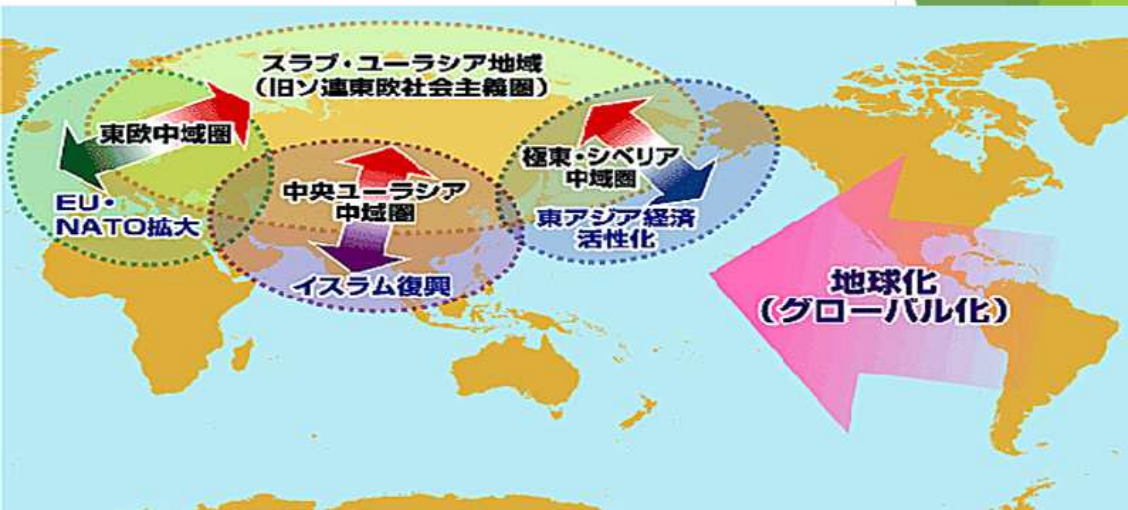


II. 어떻게 할 것인가?

1. <아시아 대국의 지역협력 흥미가 깊은 사실:>

1) 중국: 지역협력관계를 중시.
 미영의QUAD, AUKUS에 대항을 피하여 서쪽으로:
 경제투자과 이프라의 안전보장.
 미영군사공동 v s 중국-군사공동이 아니라 경제협력
 중국의 백년 이프라투나계획:
 일대일로: (육, 해, 공, 북극권→3연의 목걸이)

2) 러시아도 지역협력: 슬라브·유라시아 연합 (북극권을 포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석유, 천연가스, 곡물 공급



3) 14億インドも、周辺諸国と地域協力: 14억인구의 인도도 주변국과 지역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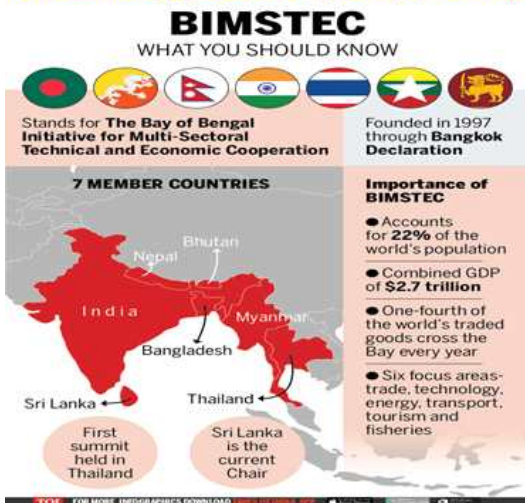
① SAARC(南アジア地域協力連合)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ARC大学で講演。貧しい国の学生を集め育てる。SAARC대학에서 강연, 빈곤한나라의 학생들을 모여서 교육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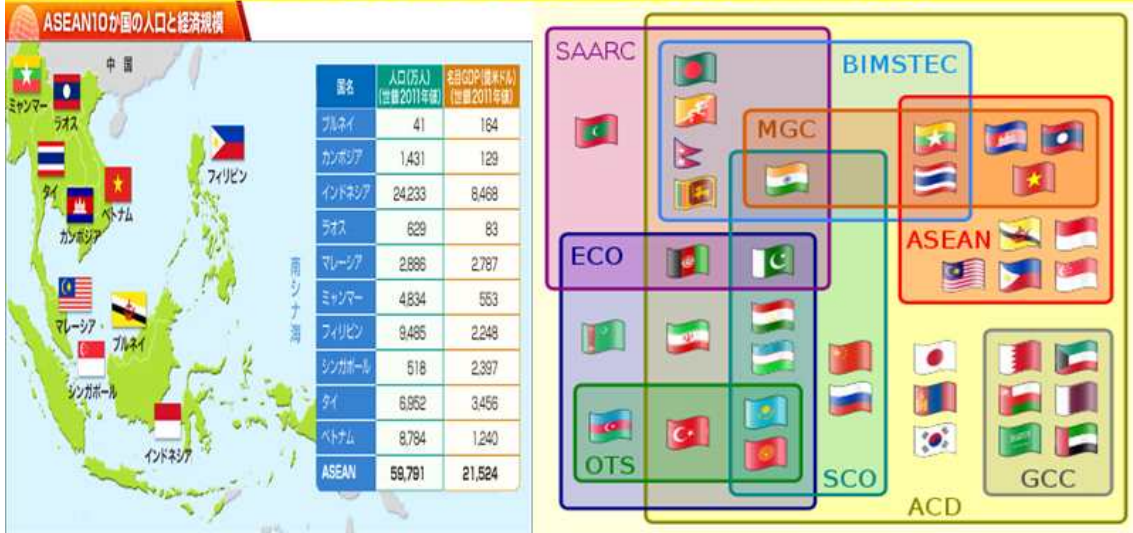


3) インドの地域協力 ; 인도의 지역협력

② BIMSTEC (ベンガル湾多分野技術経済協力イニシアチブ) より経済重視。ASEAN連携。벵갈만 다분야기술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경제협력을 중시



4) ASEAN地域協力、アジアの重層的な地域協力: ASEAN지역협력: 아시아의 중층적 지역협력
 沖縄、日本もこれらと連携して世界経済をリード k (日本はアジアの一員)
 오키나와 일본도 이런지역과 손잡고 세계경제를 리드함(일본은 아시아의 일원)



III. 日本は、どうしたらよいのか。防衛準備でなく、
 <沖縄+台湾を平和のハブに> 東アジアでは戦争しない
 일본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방위준비 우선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을 평화의 허브로> 동아시아에서는 절대 전쟁을 하지말아야 한다

3/7 in 沖縄

沖縄をハブとする
 東アジアの平和
 ネットワークをめざす
 国際シンポジウム

沖縄県市町村自治会館ホール

<沖縄は、歴史的に、平和と交流のセンター> 中国・韓国とは強い歴史関係

オキナ와는 역사적으로 평화와 교류의 중심, 중국/한국과 강한 역사관계
 沖縄を基地・ミサイル配備ではなく、アジアの平和と市場のセンターに!

오키나와를 기지로 미사일 배치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시장의 센터로

<地域、若者、経済界、市民がリード!> 政府は国民と自治体を守る義務。自治体の声を聴いて

지역, 젊은이, 경제계, 시민이 리드해야; 정부는 국민과 지자체를 보호할 의무.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을것



<沖縄+台湾を平和のハブに!>

中国とも日本とも歴史的な関係を持ってきた

日中韓ASEANと連携 (等距離)

- ▶ 沖縄は長年、長期に互り
- ▶ 中国に対して朝貢・冊封体制を取ってきた。
- ▶ 2000年以上にわたる友好関係の中で、
- ▶ 今、アメリカを経済で抜こうとする中国が、
- ▶ なぜ台湾や沖縄に戦闘を仕掛けるか? 理由がない。
- ▶ アメリカ、「6年以内に中国が戦争を起こす」
- ▶ あり得ない!
- ▶ 世界の統計「6年以内に中国はアメリカを抜く!」
- ▶ (イギリスのシンクタンク)
- ▶ 沖縄市民、中国市民、の声こそ、日本メディアは
- ▶ 報道すべき。お隣国との友好は必須。
- ▶ 沖縄にとって東京はフィリピンより遠い



<오키나와+한국·제주도+대만을 평화의 허브로!
 아시아의 연합국을 오키나와에 한국에!>
 오키나와 : 중국·일본과 역사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중한ASEAN과 협력

- ▶ 오키나와는 오랜세월 중국에 조공 책봉하는 체제
- ▶ 2000년 이상의 우호관계중에
- ▶ 지금 미국의 경제력을 초월하는 중국이
- ▶ 왜서 대만이나 오키나와에 전투를 한다고 하는가?
- ▶ 이유가 없다.
- ▶ 미국은 「6년내에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 ▶ 있을수 없는 일이다!
- ▶ 세계의 통계 「6년내에 중국이 미국을 초월!」
 (영국의 싱크탱크)
- ▶ 오키나와시민, 중국시민의 소리를 일본의 미디어
 에서는 보도해야한다. 린국과의 우호는 필수.
- ▶ 오키나와에는 동경이 필리핀보다 많다.



濟州島も同様。美しい島、「東アジアのハワ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섬이며 [동아시아의 하와이]
 他方で、1948年4.3事件。虐殺 다른 면으로 1948년에 4.3사건, 학살이 있었다.
 島は本来、近隣を「結ぶもの」。和解と共同を、境界から作る。
 섬은 원래 인근국가르 [이어가는곳]. 화해와 공동을 경계로 부터 만들어 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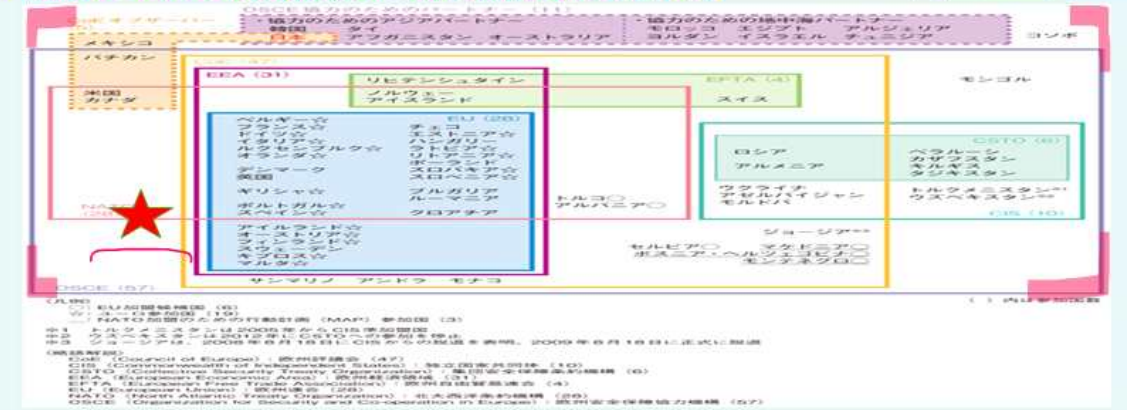
モデルは、ある！冷戦2極化を克服したCSCE（欧州安保協力会議）

**모델은 있다! 냉전양극화를 극복한 CSCE(유럽안전보장회의),
現OSCE.1975年、東西の中立国フィンランド・ヘルシンキで宣言**

**현재에는 OSCE, 1975년에 동서의 중립국 핀란드 헬싱키에서 선언 국경을 동결, 전유럽에서 대화를!
평화의 초석을 만들었다.**

**国境凍結、全欧州を含み対話！平和の基礎をつくる。국경동결, 전유럽을 포함한 대화! 평화의 기초를
만들어야! 미중의 브릿지로서의 일한을! 일본과 한국은 그것이 합당하다.**

<米中のブリッジとしての日韓を！>日本韓国はそれにふさわしい



世界最強の6人の指導者：だれが戦争を止められるか？

세계최강의 6명의 지도자: 누가 전쟁을 막을수 있는가?

大國の指導者の善政を待つのでなく、市民・自治体から。

대국의 지도자의 선정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시민/지자체로 부터

自治体、国民、メディア、自らが平和を構築。政党の連携も必要!

★沖縄玉城知事・既に「地域外交室」作成、独自に米中韓台湾と対話

지자체, 국민, 미디어, 자기들로부터 평화를 구축, 정당과의 연대도 필요

오키나와의 타마기 지사는 이미 [지역외교실]작성, 독자적으로 미중韓대만과 대화



まとめ： 총괄:

21世紀はアジアの時代。平和と軍縮をアジアから。
沖縄・濟州島を、平和のハブに！「東アジアの国連」を！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평화와군축을 아시아로부터
오키나와 제주를 평화의 허부로! [동아시아의 연합국을!]

- ▶ 1. **アジアは繁栄の地。戦争をさせない！
非核地帯宣言を！**
- ▶ 2. **中国朝鮮から侵略された歴史はない。
(日本が大陸侵攻) まずそれを認識。**
- ▶ **国連と結び中国・韓国・インド、アジア・アフリカの平和と繁栄を！**
- ▶ **政府は、ミサイル配備には、自治体の合意を取るべき。民主主義の基本**
- ▶ 3. **市民、自治体から「平和」を作る：
経済界・メディア・若者・女性が連携し、平和と対話と繁栄を**
- ▶ 1. **아시아는 번영의 지역. 전쟁을 시켜서는 안된다. 비핵지대선언을!**
- ▶ 2. **중국이나 조선으로 부터 침략받은 역사는 없다. (일본의 대륙침략) 우선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 ▶ **연합국과 손잡고 중국, 한국,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 ▶ **정부는 미사일 배치는 지자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 ▶ 3. **시민, 지자체로부터 [평화]를 만들기：
경제계, 미디어, 젊은이들, 여성들이 손잡고 평화와 대화와 번영을**

まとめ：21世紀はアジアの時代。平和と軍縮をアジアから。
沖縄・濟州島を、平和のハブに！「東アジアの国連」を！

- ▶ 4. **中国・韓国・台湾など近隣国と連携。**
- ▶ **問題があっても「対立で解決。」**
- ▶ 5. **日・中・韓は、勤勉さ、技術的先進性、和の力で、世界を平和的にリードする。**
- ▶ 6. **アジア人同士の戦争はしない**
- ▶ **沖縄・濟州島に、「東アジアの国連」を！ 日中韓で平和のセンターを！**
- ▶ 4. **중국, 한국, 대만등 인근국가들과 손잡고,**
- ▶ **문제가 있어도 「대화로 해결」**
- ▶ 5. **일, 중, 한은 근면성, 선진적기술, 화합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야한다.**
- ▶ 6. **아시아인은 서로 싸워서는 안된다.**
- ▶ **오키나와, 제주에 [동아시아 연합국을! 일중한이 평화센터를!]**
- ▶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参考文献 (羽場久美子基本文献) 참고문헌 (하바쿠미코의 기본문헌)

- ▶ Angus Maddison,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1-2030 AD*, 2007.
- ▶ 『世界戦争100年と地域協力、いかなる世界秩序を作るか?』 (英語) K.Haba, Canavero, *100 years of World Wars* Springer, 2022.
- ▶ *Brexit and After*, (K.Haba Martin Holland) Springer, 2021.
- ▶ グレアム・アリソン『米中戦争前夜』ダイヤモンド社、2017.
- ▶ 羽場久美子「ロシア・ウクライナ危機とフランス大統領選挙—マクロンは、フランス、EU、グローバル世界のリーダーとなるか?」『海外事情』2022. 5-6.
- ▶ 羽場久美子「沖縄を平和のハブに!」『週刊金曜日』2022.5.
- ▶ 羽場久美子「中国がアメリカを抜いて「経済で世界一」になる前に日本がとるべき路線—経済はアジア、政治はアメリカ—」講談社現代イスマメディア、2022.1.24.
- ▶ 『移民・難民・マイノリティ—欧州ポピュリズムの起源』(羽場編著)彩流社、2021.
- ▶ 羽場久美子「コロナ後の国際政治と日本—経済競争から「価値の同盟」へ—」『神奈川大学評論』2021.7.
- ▶ 羽場久美子「最終講義：21世紀、米欧中どこが世界をリードするか?—EUのレジリエンスと規範力」青山学院大学、2021.1.
- ▶ 羽場久美子ほか 特集1、「アジア近隣諸国との対立を超えて」『学術の動向』2020.9月号.
- ▶ 『21世紀 大転換期の国際社会—いま何が起きているのか?』法律文化社、2019.
- ▶ 『アジアの地域統合を考える—戦争をさけるために—』明石書店、2017.
- ▶ 『アジアの地域協力—危機をどう乗り切るか—』明石書店、2018.
- ▶ 『アジアの地域共同—未来のために—』明石書店、2018.
- ▶ 羽場久美子『ヨーロッパの分断と統合—拡大EUのナショナリズムと境界線』中央公論新社、2016. (ウクライナ2014)
- ▶ 羽場久美子『拡大ヨーロッパの挑戦』中公新書、2014. (NATOの拡大)
- ▶ 羽場久美子「パワーシフト—国家不安、領土紛争とゼノフォビア」『学術の動向』2014年1月号.
- ▶ 羽場久美子『グローバル時代のアジア地域統合』岩波書店、2012.2.

[제 1 세션]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座長: 金在孝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副理事長

[발표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정세』

-지정학적 상상력과 한·일 협력-

李良九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常任代表

前 注Ukraine大使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정세 (부제: 지정학적 상상력과 한.일협력)

-동북아미래포럼(23.8.21)- 이양구
전우크라이나대사

I. 우크라이나 사태(배경과 본질)

◆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대응 전략



1. 우크라이나 차원
 - 외교안보 주권 확보
 - 자유민주주의 수호
2. 러시아 차원
 - 패권 경쟁
 - 소련 제국 부활 영향권 확보
3. 미국, 서방 차원
 - 자유민주주의체제 가치
 - WW II 국제 질서 수호
4. 글로벌 차원
 - WW II 국제질서 수호
 - 유엔 평화, 독립, 주권, 영토, 인도주의 존중
 - 각자도생, 약육강식, 혼란 무질서 방지

2

◆ 동북아미래포럼(23.8.21)

1. 유라시아 세기사건(6+1)

- 이란혁명
- 중동산유국오일오너쉽확보
- 중국경제현대화
- 인도경제현대화
- 구소련붕괴
- 푸틴정권등장
-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대응 전략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3

◆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대응 전략

2.3대 시나리오

가. Worst 시나리오

- 원전위기, 확산
- 러시아 내부위기
- 러시아의 대중국의존도심화
- 에너지, 식량위기
- 글로벌경기침체

나. 현상유지

다. Best 시나리오

- Balance of Power(유라시아 전후질서 구축)
-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성공(뉴마셜 플랜)
-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자유민주주의 확산
- 러시아의 건설 역할강화(세력균형, 극동시베리아, 북극해)

◆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대응 전략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4

◆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대응 전략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3. 역사적 빅딜 사례

-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소련 협력
- WWII후 미국, 독일, 일본협력
- 1972 미중 협력
- 러시아의 정치, 경제발전지원
- 러시아 건설적 역할 제고
- 극동 시베리아, 북극해 발전 등 기회
- 중국 도전 공동대응



5

4.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가. 글로벌 차원

-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 간 양극화
- WW II UN 중심 국제질서 약화
- 각자도생, 약육강식, 무질서, 혼란 초래
- 지정학 위기 상시화
- 글로벌공급망 붕괴
- 에너지, 곡물 가격 폭등

나. 대 유라시아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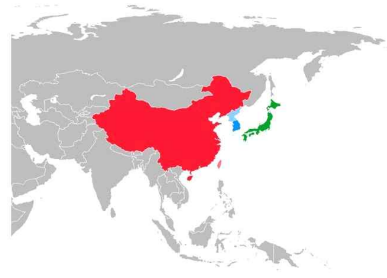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 등 CIS 러시아 영향력문제
- 중앙아시아 등 CIS 지역분쟁 발발우려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6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4.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다.대 동북아 차원

- 미, 일, AKCUS, QUAD vs 중, 러, 북한
- 일본/대만 등 핵무장 / 군비경쟁 강화
- 한반도/대만 지정학 위기 제고
- 중,러시아 협력강화(극동러시아,북극해진출)

라.한반도 차원

- 북중러 삼각협력 제고
- 북한 비핵화 문제
- 남북 협력 제한
- 북한 모험주의 시도

II. 글로벌 영향과 정세 전망



4.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마.대 한국 차원

- 친서방 대 권위주의 진영간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체성외교
- 대 중국, 러시아 실질협력 제한
- 핵 안전 보장 문제 대두
- 글로벌 공급망, 무역, 원자재, 곡물 가격 영향

III.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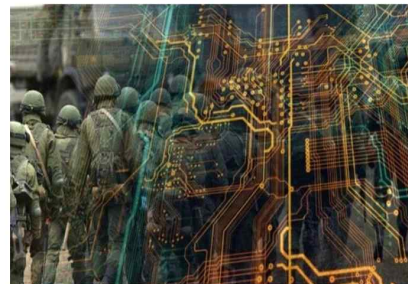
1. 국제정치의 본질 강대국의 민낯이해 필수
2. 우크라이나, 한반도는 지정학적 공감대
 - Pivot State
 - WW III / SDGs 5P Anchor
 - Balloon Effect / Mirror Image
3. 동맹과 가치 공유 우방 중요
4.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기반 원칙 외교
 - 자유민주주의 힘 저력 확인

Freedom is Priceless



III. 교훈

5. 예방/위기관리 중요
 - 하인리히 법칙 1:29:300
6. 위기의 상시화 시대 도래
 - Crisis Management Unit
7. 하이브리드 전쟁 대비
8. 핵무기/원자력 발전 등 WMD 대비 강화



III. 교훈

9. 코로나 바이러스 등 향후 불확실 요인 대비 필수

10. 세기적 역사적 사건 모니터링 강화 및 파급 효과 대비 철저

-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 피터 자이한 3대 전쟁 시나리오
- 불편한 진실 직시
 - 미국 고립주의 회귀
 - 미중려의 패권경쟁
 - 중국의 극동러시아, 동해, 북극해 진출



III. 교훈

11. UN SDGs ESG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글로벌 아젠다 주도

- SDGs 5P: 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

12. 대국민 외교 안보 공공외교 강화

- 전 국민 외교관 화
-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역량
- 세계 시민 교육 강화



13. '설마?' 경계

- 푸틴의 전면전
- 핵무기 언급
- 원격 폭격 점령 핵 인질/테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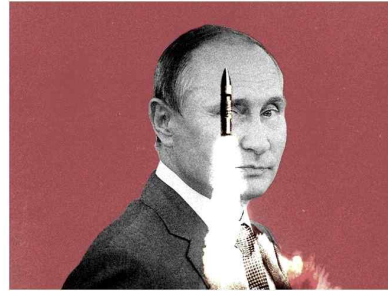
14. 소탐대실 경계

- NATO 가입 문제
- 돈바스 분쟁 문제
- 한일 역사 문제
- 국내 이념갈등 문제
- 외교안보 정치화

15. Moment of Truth 직시

- 북핵 문제
- 미중 패권과 우리의 선택
- 미국 고립주의 회귀
- 의사결정메카니즘

III. 교훈



01 불편한 진실 직시 / 지정학적상상력(현상유지)

미-중 불안한 Balance of Power	북핵문제 남북관계 현상 유지
러시아.서방간경쟁과 협력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러관계

01 불편한진실/지정학적상상력
Worst시나리오(1)

제 2 베네주엘라 (Populism)

제 2 IMF(세계경기침체,코로나)

중국의 패권차지(2030)

북핵문제기정사실화/동북아 핵도미노

미국고립주의회귀

한미동맹와해

01 불편한진실/지정학적상상력
Worst 시나리오(2)

미군철수

한미일협력와해

중국.일본갈등(피터 자이한 3대전쟁론)

세계경제대공황

국제질서혼돈과 무질서

재3차 세계대전

01 불편한 진실/지정학적상상력Best
시나리오(1)

- 북한비핵화해결
- 미중간협력
- 한미일협력
- 미들파워네트워크구축(P4G,MIKTA)
- 동북아일일생활권,단일경제권구축

01 불편한 진실/지정학적상상력Best
(2)

- 중국의 보통국가화
- 유라시아 신실크로드 구축(UN SDGs기반)
- 4대해협구축
- 북극해시대도래
- SDGs글로벌차원구현(5P)
- 평화통일,선진화,글로벌파워

01

국가 발전 모델

4대 해협론

한/일, 러/미, 러/일, 한/중

제국의 이해와 한반도 지정학
20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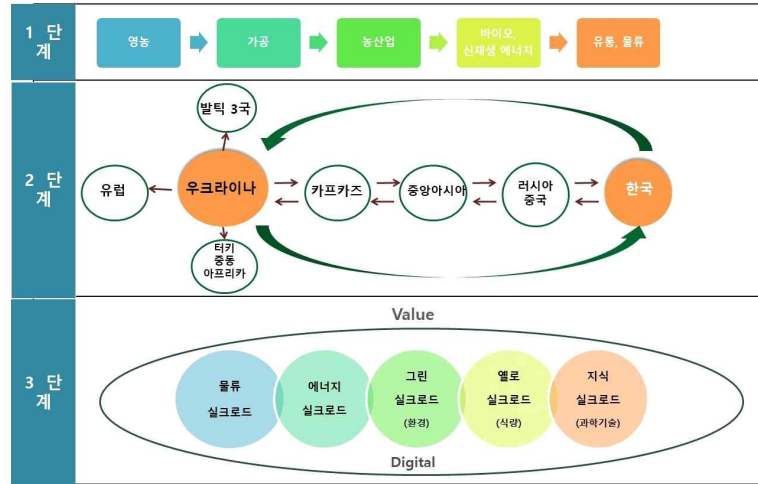
위기.예방관리 trigger방지



02

국제 정치 인사이트

SDGs실�크로드 비전



02

국제 정치 인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05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협력

메가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클러스터

- 백만 헥타르 농업 밸류체인 기반 메가 프로젝트
- 국제경제특구, 국제스마트시티클러스터(우,유럽국경)
- 대규모 산업 공단/ 테크노파크 구축
- 의료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 드니프르강 수자원관리 프로젝트
- 에너지프로젝트
- 광케이블등 통신프로젝트
- 국제공공교육플랫폼구축

SDGs유라시아 외교

우크라이나 인도적지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전후질서

중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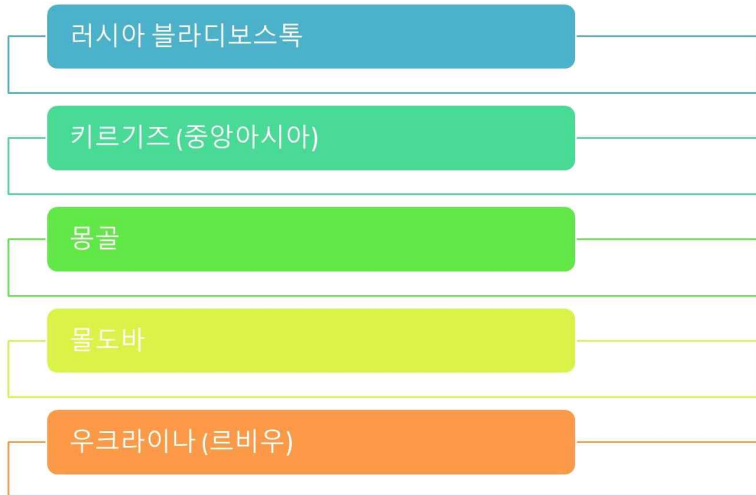
극동 러시아 협력

남북러중 협력

동북아시아 SDGs 5개년 로드맵



SDGs유라시아 벨트(5대 전략적협력지역)



ウクライナ戦争と東北アジア情勢

(副題:地政学的想像力と恨。仕事協力)

-東北亜未来フォーラム(23.8.21)-

Lee YangGu
元ウクライナ大使

I。ウクライナ戦争（背景と本質）

ウクライナ事と我が々の対応戦略



- 1.ウクライナレベル
 - 外交安保主権の確保
 - 自由民主主義守護
2. ロシア次元
 - 覇権競争
 - ソ連帝国復活の影響権確保
3. 米国、西側レベル
 - 自由民主主義体制の価値
 - WW II 国際秩序守護
4. グローバルレベル
 - WW II 国際秩序守護
 - 国連平和、独立、主権、領土、人道主義の尊重
 - 各自凶生、弱肉強食、混乱無秩序防止

2

ウクライナ事と我が々の対応戦略

II グローバルな影響と情勢の展望



3

1. ユーラシア世紀事件 (6+1)

- ・イラン革命
- ・中東産油国オイルのオーナーシップ確保
- ・中国経済の現代化
- ・インド経済の現代化
- ・旧ソ連崩壊
- ・プーチン政権登場
- ・ウクライナ戦争

II. グローバル影響と情勢展望



4

2.3 大シナリオ

A. Worstシナリオ

- ・原発危機、拡散
- ・ロシア内部危機
- ・ロシアの対中依存度の深化
- ・エネルギー、食糧危機
- ・世界的な景気低迷

B. 現状維持

C. Bestシナリオ

- ・Balance of Power(ユーラシア戦後秩序構築)
- ・ウクライナ戦後復興成功 (ニューマーシャルプラン)
- ・ロシア、中国、北朝鮮など自由民主主義拡散
- ・ロシアの建設役割強化 (勢力均衡、極東シベリア、北極海)

II. グローバル影響と情勢展望

3. 歴史的ビッグディールの事例

- 第二次世界大戦中の米ソ連協力
- WWII後、米国、ドイツ、日本の協力
- 1972 米中協力
- ロシアの政治、経済発展支援
- ロシアの建設的役割向上
- 極東シベリア、北極海発展などの機会
- 中国の挑戦、共同対応



5

II. グローバル影響と情勢展望

4. ウクライナ事態の影響

A. グローバル次元

- 自由民主主義対権威主義陣営間の両極化
- WW II 国連中心の国際秩序の弱体化
- 各自凶生、弱肉強食、無秩序、混乱を招く
- 地政学危機の常時化
- 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崩壊
- エネルギー、穀物価格の高騰

B. 対ユーラシア次元

- 中央アジアなどCISロシアの影響力問題
- 中央アジアなどCIS地域紛争勃発の恐れ



6

II. グローバル影響と情勢展望



7

4. ウクライナ事態の影響

C. 対北東アジア次元

日米AUKUS、QUAD vs 中朝、北朝鮮
日本/台湾などの核武装/軍備競争の強化
韓半島/台湾地政学の危機を高める

中国、ロシアの協力強化(極東ロシア、北極海進出)

D. 韓半島次元

北中朝三角協力の向上
北朝鮮の非核化問題
南北協力の制限
北朝鮮冒険主義の試み

II. グローバル影響と情勢展望



8

4. ウクライナ事態の影響

E. 対韓国次元

・親西側対権威主義陣営間の選択

・尹錫悦 大統領の自由民主主義の価値とアイデンティティ外交

・対中国、ロシアの実質協力制限

・核安全保障問題の台頭

・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貿易、原材料、穀物価格の影響

III.教訓

1. 国際政治の本質大国の素顔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
2. ウクライナ、韓半島は地政学的共感
 - Pivot State
 - WW III / SDGs 5P Anchor
 - Balloon Effect / Mirror Image
 - 同盟と価値共有友好が重要
 - 自由民主主義アイデンティティ基盤の原則外交
 - 自由民主主義の力底力を確認

Freedom is Priceless



2

III.教訓

5. 予防/危機管理が重要
 - ハインリヒ法則 1:29:300
6. 危機の常時化時代到来
 - Crisis Management Unit
7. ハイブリッド戦争への備え
8. 核兵器/原発などWMDに対する備えを強化



1

III.教訓

9. コロナウイルスなど今後の不確定要因に備える必要がある
10. 世紀的、歴史的事件のモニタリング強化及び波及効果への備えを徹底
 - コロナウイルスの余波
 - ピーター・ザイハン三大戦争シナリオ
 - 不都合な真実直視
 - アメリカ孤立主義の回帰
 - 米中露の覇権競争
 - 中国の極東ロシア、東海、北極海進出



III.教訓

11. UNSDGs ESG 炭素中立 デジタル革新など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主導
 - SDGs 5P: 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
12. 対国民外交安保、公共外交強化
 - 全国民外交官化
 - グローバルマインドグローバル力量
 - 世界市民教育の強化



III. 教訓



- 13. 「まさか？」警戒
 - ・プーチンの全面戦争
 - ・核兵器に関する言及
 - ・遠隔爆撃、占領、核人質/テロ化
- 14. 小探対室境界
 - ・NATO加盟問題
 - ・ドンバス紛争問題
 - ・日韓歴史問題
 - ・国内理念葛藤問題
 - ・外交安保政治化
- 15. Moment of Truth 直視
 - ・北朝鮮核問題
 - ・米中覇権と韓国の選択
 - ・アメリカ孤立主義の回帰
 - ・意思決定メカニズム

01 不便な真実直視 / 地政学的想像力(現状維持)

米中不安なBalance of Power

北朝鮮核問題、南北関係の現状維持

ロシア・西側間の競争と協力

韓米関係

韓日関係

韓・中・日関係

01 不便な真実/
地政学的想像力 Worstシナリオ(1)

第2ベネジュエラ(Populism)

第2IMF(世界景気低迷、コロナ)

中国の覇権獲得(2030)

北朝鮮核問題の既成事実化/北東アジアの核ドミノ

アメリカ孤立主義回帰

韓米同盟瓦解

01 不便な真実/地政学的想像力
Worst シナリオ(2)

米軍撤退

韓米日協力瓦解

中国・日本葛藤(ピーター・ザイハン3大戦争論)

世界経済大恐慌

国際秩序の混乱と無秩序

第三次世界大戦

01 不便な真実/地政学的想像力
Bestシナリオ(1)

- 北朝鮮の非核化解決
- 米中間協力
- 韓米日協力
- ミドルパワーネットワーク構築(P4G、MIKTA)
- 北東アジア一日常生活圏、単一経済圏構築

01不便な真実/地政学的想像力Best
(2)

- 中国の普通国家化
- ユーラシア新シルクロード構築(UN SDGs基盤)
- 4大海峡構築
- 北極海時代到来
- SDGsグローバル次元具現(5P)
- 平和統一、先進化、グローバルパワー

01

国家発展モデル

帝国の理解と韓半島地政学
2011.04

四大海峡論

韓/日、露/米、露/日、韓/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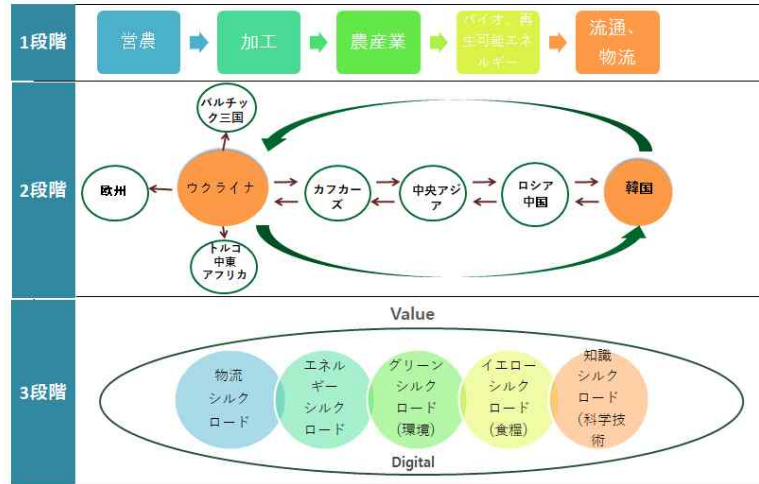
危機予防管理trigger防止



02

국제 정치 인사이트

SDGsシルクロード·ビジョン



02

国際政治インサイト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05 ウクライナ戦後復興協力

メガプロジェクト - スマートシティ - スマートファームクラスター

- 100万ヘクタールの農業バリューチェーンベースのメガプロジェクト
- 国際経済特区、国際スマートシティクラスター(右、欧州国境)
- 大規模産業公団/テクノパークの構築
- 医療バイオヘルスケアクラスターの構築
- ドニフル川水資源管理プロジェクト
- 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
- 光ケーブル等通信プロジェクト
- 国際共有教育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SDGsユーラシア外交

ウクライナ人道支援

ウクライナ戦後復興/戦後秩序

中央アジア

極東ロシア協力

南北口中協力

SDGsユーラシア外交

ウクライナ人道支援

ウクライナ戦後復興/戦後秩序

中央アジア

極東ロシア協力

南北口中協力

北東アジアSDGs5カ年ロードマップ

2023 韓国(釜山)

2024 南北SDGsエキスポ(3大メガイイベント連携)

2025 日本(神戸)

2026ロシア(ブラディボストク)

2027 中国東北3省

SDGsユーラシアベルト（5大
戦略的協力地域）

ロシア・ウラジオストク

キルギス（中央アジア）

モンゴル

モルドバ

ウクライナ(ルビウ)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前 주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상임대표는 외부고시 18기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35년에 걸친 외교부 본부근무 중 정보화 담당관, 러시아 CIS과장, 국무총리실 외교안보 심의관, 조정기획관, 중앙공무원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해외 근무지로는 주)러시아 대사관 2차례, 주)라성 영사, 주)프랑스 참사관, 주)카자흐스탄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키르기즈스탄 겸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주)우크라이나 대사(몰도바 겸임) 근무하였다.

이양구 상임대표는 정년퇴임 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외국어대학교 지역대학원 초빙교수, 외교협회 이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비상임고문, 농업회사 드림팜 고문, 시도지사협의회 국제자문관, 경남함양지역발전 특별위원, 서울대농생명대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우크라이나인도적지원공동대책위원장, 유라시아센터 소장, (사)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 중에 있다.

이양구 상임대표 학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DLI(Defense Language Institute)러시아어 연수를 하였으며, 주요상훈으로는 대통령표창, 외교부장관 표창, 올해의 외교관상, 녹조근정훈장, 의료재단 그린닥터스 봉사대상을 받았다. 주요저서는 유라시아의 꿈과 도전, 중앙아시아 블랙골드 카자흐스탄(공저), 극동러시아 투자가이드(공저), 신외교안보방정식(공저, 한국전략문화연구소 주관)이 있다.

[지정토론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동북아의 지정학』

俞敏浩

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 教授

INAF理事

討論：ウクライナ戦争と北東アジア情勢
— 地政学的想像力と韓日協力 —

토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정세
(부제: 지정학적 상상력과 한·일 협력)

兪敏浩 INAF理事
(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

Lee報告の要点

- ウクライナ戦争の見方
- ウクライナ戦争の影響：グローバル、北東アジア、韓国
- 地政学から見る北東アジアの将来
- 最善のシナリオを追求するためになすべきこと

이 양구발표의 요점

-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글로벌, 동북아시아, 한국
-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시아의 미래
- 최선의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ウクライナ戦争の見方 우크라이나사태를 보는 시점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 글로벌 등 차원이 바뀌면 관점도 달라진다.

위의 내용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세대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 글로벌 등 차원이 바뀌면 관점도 달라진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 글로벌 등 차원이 바뀌면 관점도 달라진다.

위의 내용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세대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세대의 연구자들 중에는 흑백을 명확히 구분하고 악을 징벌하는 사고방식보다 평화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세대 연구자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ウクライナ戦争の見方 우크라이나사태를 보는 시점

제기되는 문제: 평화인가, 정의인가?

정의의 다의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러시아의 논리와 우크라이나의 논리의 상극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러한 궁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균형 잡힌 신중한 정책 운영이 아닐까?

제기되는 문제: 평화인가, 정의인가?

정의의 다의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러시아의 논리와 우크라이나의 논리의 상극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러한 궁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균형 잡힌 신중한 정책 운영이 아닐까?

ウクライナ戦争の影響

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

ウクライナ戦争と台湾海峡問題

→中国はロシアと同じく武力によって現状変更を図るのか？

国際システムにおける中国の地位は上昇しており、これがロシアとの決定的な違い。

→中国が台湾に対して行った数回の武力行使または恫喝、いずれも「台湾は中国の一部」という主張を国際社会に植え付けるため。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문제

→중국은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현상변화를 노리는 나라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국제시스템에서 중국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몇 차례의 무력행사 또는 협박은 모두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第1次台湾海峡危機 (1954年)

第2次台湾海峡危機 (1958年)

「第3次台湾海峡危機」 (1995-1996年)

「第4次台湾海峡危機」 (2022年)

제1차 대만 해협 위기 (1954)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1958)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1995-1996)

"제4차 대만 해협 위기"(2022)



우크라이나情勢와 동아시아 지정학

<p>1.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 크림반도 합병 · 트럼프 정권 이후 미중 '신냉전' → 우크라이나 침공 <p>2.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러 협력관계의 유지, 혹은 강화 · 미국과 동맹국의 대 중국 경계조치가 중국을 자극하는 악성순환 	<p>1. 東アジアにおける米中対立と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アメリカのアジア太平洋リバランス → クリミア併合 · ドランプ政権後の米中「新冷戦」 → ウクライナ侵攻 <p>2. ウクライナ戦争は米中対立をさらに先鋭化させ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露協力の維持、ないし強化 · アメリカと同盟国の対中国警戒措置が中国を刺激する悪性循環
---	---

米中「新冷戦」時代の北東アジア構想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동북아 구상

<p>1. 米中「新冷戦」: 対立 (台湾、地政学) + 競争 (影響力、経済) + 相互依存 (経済、グローバル課題)</p> <p>2. 米中協力の可能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米ソデタントとの比較 → 台湾問題さえコントロールできれば、米中協力の可能性は大 → 米中協商? 	<p>1. 米중 '신냉전': 대립(대만, 지정학) + 경쟁(영향력, 경제) + 상호의존(경제, 글로벌 과제)</p> <p>2. 米중 협력의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구소련 데탕트와의 비교 → 대만 문제만 통제할 수 있다면 미중 협력 가능성은 크다. → 미중협상?
--	---

3. アメリカの同盟国としての日本と韓国の役割

→日本はアメリカの対中国抑止戦略の最前線に立ちながら、TPPなど地域経済協力圏を整備することにより地政学リスクのヘッジを行っている。

→問われる韓国の役割：「日本化」、それとも独自のユーラシア外交を展開するのか？この点において、Lee報告は極めて示唆的である。

3.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역할

→日本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TPP등 지역 경제협력권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정학 리스크를 헷지 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 '일본화'의 길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유라시아 외교를 전개할 것인가?이 점에서 이 양구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발표 2]

『포스트 글로벌화 시대의
동북아 경제교류의 모습』

三村 光弘

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

教授

INAF理事

ポスト・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時代
における北東アジアの経済交流の姿

포스트 글로벌화 시대의
동북아 경제교류의 모습

三村光弘 (新潟県立大学)

미무라미쯔히로(니가타현립대학)

米中対立とウクライナ紛争による世界の分断
미중대립과 우크라이나분쟁에 의한 세계의 분단

中国の台頭を嫌い、嫌口症が蔓延する米国

- オバマ政権の後期からこのような傾向が出現
- トランプ政権期は中国敵視がメイン
- バイデン政権において、中国を封鎖し、ウクライナを利用してロシアと対立

중국의 부상을 혐오하고 혐오증이 만연한 미국

-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음
-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대중국 적대시가 주류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봉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대립

ウクライナ紛争に対する北東アジア各国の対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当事国から米国側に付く国まで多様

- ロシア：ウクライナ紛争の当事国
- 北朝鮮：ロシアの立場を積極的に支持
- モンゴル：中立
- 中国：中立
- 韓国：米国との協力関係を重視
- 日本：米国の政策に積極的に追随

当事国부터 미국 편에 서는 국가까지 다양함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당사국
- 북한: 러시아 입장 적극 지지
- 몽골 : 중립
- 중국 : 중립
- 한국 : 미국과의 협력관계 중시
- 일본 : 미국의 정책을 적극 추종

北東アジア各国の対中政策 동북아 각국의 대중정책

国際政治が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 ロシア：戦略的パートナー
- 北朝鮮：パートナーとして重視
- モンゴル：パートナーとして重視
- 中国：当事国
- 韓国：米国の対中包囲網に参加、台湾問題では曖昧な態度
- 日本：米国の対中包囲網に積極的に参加し、台湾問題でも米国を支持

국제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
- 북한 :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 몽골 : 파트너로서 중시
- 중국 : 당사국
- 한국 :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에 참여, 대만 문제에서는 애매한 태도
- 일본: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적극 동참,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을 지지

글로벌라이ゼーションを受益してきた日中韓が
分断の危機に
세계화의 혜택을 누려온 한-중-일이 분단의
위기에 처하고 있음

「經濟安全保障」による政治優先の
動きと供給網 (GVC) の分断脅威

- 米国による各種先端分野
野に対する輸出規制、イ
輸入規制 (リチウムイ
オン電池の原産地規
制)
- 中国による原材料の輸
出規制 (ガリウム、ゲ
ルマニウム)
- 米国の規制に同調する
日韓が翻弄される結果
に

'경제 안보'에 따른 정치 우선주의
움직임과 공급망(GVC) 분열 위협

- 미국의 각종 첨단분야에
대한 수출규제,
수입규제(리튬이온전지
원산지 규제)
- 중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갈륨, 게르마늄)
- 미국의 규제에 동조하는
한일 양국이 휘둘리는
결과가 발생

ウクライナ紛争に関する日韓の行動とそれに対する
ロシアの報復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한일 양국의 행동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행위

日本の經濟制裁、韓国の対ウクライ
ナ武器供与

- 日本はロシアの外貨準備を凍
結、英米の經濟制裁に同調
- 日本、韓国を「非友好国」に
指定したロシア
- ロシアでのビジネスを放棄し、
または縮小する日韓の企業
- ロシア、日韓双方が問題の最
小化を図ろうとするも、それ
を許さない米国
- ウクライナへの武器や弾薬の
供与を強いられる日韓とロシア
・北朝鮮の軍事面での協力
関係の強化

일본의 경제제재,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 일본, 러시아 외화보유고
동결... 영미 경제제재에 동조
- 일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러시아
- 러시아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한일 기업들
- 러시아, 한-일 양국의 문제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미국
-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탄약 제공을
강요당하는 한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관계 강화

グローバル化の終焉後の北東アジアの 経済交流

세계화의 종말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교류

対立を激化させる動きと対立に伴う
衝撃を緩和しようとする動き

- 各企業は対立をかいくぐり協力を模索するが政治がそれを許さない状況が続く
- 政治的原因で協力できる範囲が狭まるがそれを批判しづらい状況
- 各国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が問題をより複雑化させる

대립을 심화시키는 움직임과 대립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

- 各 기업들은 대립을 넘어 협력을 모색하지만 정치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 지속
- 정치적인 이유로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데 이를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
- 各국의 내셔널리즘의 대두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

글로벌化の終焉後の北東アジアの 経済交流

세계화의 종말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교류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の類似点

- 米英欧中心のビジネスと、中口、非米諸国を対象とするビジネスを分ける必要性
- 分断を回避するためのコストをどれだけ低減するかが課題
- 難しいところに商機がある
- 民間団体がニッチをうまく活用して調整を行えば、成長が可能

냉전 시대의 비즈니스와의 유사점

- 미국-영국-유럽 중심 비즈니스와 중-러-비미국 대상 비즈니스 구분 필요
- 分断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
- 어려운 곳에 기회가 있다
- 민간단체가 틈새를 잘 활용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산업은 성장할 것

グローバル化の終焉後の北東アジアの 経済交流

세계화의 종말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교류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の相違点

- 米国の制裁は冷戦時代よりも洗練され、逃れることが難しい
- 制裁が金融、保険分野を中心に行われるため、会社を分けるだけでは無理
- それなりの覚悟を持ってビジネスを行う成長するか
- 中口、非米諸国側も力をつける、報復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냉전 시대의 비즈니스와의 차이점

- 미국의 제재는 냉전시대보다 더 정교해져 빠져나가기 어려워졌다.
- 제재가 금융,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
- 나름대로의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장 여부
- 중-러, 비미국 측도 힘을 키워 보복할 수 있게 되었음

글로벌화 이후의 북동아시아의 경제 교류

세계화의 종말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교류

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を作る必要

- これまでのグローバル化時代とは異なるやり方を発見する必要
- 政治的分断が激化する中でも、人流、物流、通信は冷戦時代よりも飛躍的に発達
- 先入観を捨てて、新たな時代の感情を養う必要があるだろう
- 自分の頭で考えて、アメイバ的に行動できる人材を使いこなせる企業に勝算がある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세계화 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발견이 필요하다.
-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인적 교류, 물류, 통신은 냉전시대보다 비약적으로 발전
-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감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아메바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승산이 있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mimura@unii.ac.jp

三村光弘(미무라 미츠히로)Profile

<p>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教授 研究テーマ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法, 経済 ユーラシアの経済社会と経済協力, 北東アジア とSDGs 略歴 2001年3月, 大阪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後 期課程 修了 博士(法学) 2001年4月~2023年3月 財団法人環日本海経 済研究所調査研究部研究員, 主任研究員 2023年4月~新潟県立大学教授 研究: 『日本ノ対北朝鮮経済制裁ノ経済的効果ノ分 析』(韓国・対外経済政策研究院、2005年) (朝鮮語) (共著)「南北首脳会談以降の南北経済関係」 環日本海経済研究所編『現代韓国経済』(日 本評論社、2005年)。</p>	<p>니이가타현립대학 동북아연구소 교수 연구테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과 경제 유라시아의 경제사회 경제협력, 동북아와 SDGs 약력: 2001년3월, 오사카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2001년4월-2023년3월, 재단법인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원, 주임연구원 2023년4월,부터 현직 연구 [일본의 대북조선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2005). 공저[남북소뇌회담이후의 남북경제관계] {현대한국경제}(2021)</p>
---	--

[지정토론 2]

『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

洪正杓

ソウル大アジア研究所
客員研究院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 : 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
Mimura Mitsuhiro 니가타현립대학 교수,

토론자 : 홍정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전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미무라 미쓰히로 교수는 글로벌시대의 동북아 경제상황을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하고 이의 해결 방법을 분석적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세계를 다시 신냉전으로 분단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혐오가 오바마시대에 움이 터 현재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동북아 국가들을 러시아와 미국의 양 진영으로 가르고 있다. 즉, “러시아<중국<북한 그리고 한국> 일본>미국”의 형태로, 또 동북아 국가들의 대 중국정책도 “중국<러시아<북한 - 몽골 - 한국>일본>미국“로 수렴되고, 이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경제의)의 혜택을 누리온 한중일은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열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즉, 1) 미국/ 대중국 수출규제: 원산지 규제(반도체), 2)중국/ 원자재 수출규제: 갈륨과 게르마늄, 3) 한국일본/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휘둘리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임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동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1) 러시아: 일본과 한국을 비 우호국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제재가함, 2) 일본: 러시아 외화 보유고 동결과 영미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조, 3) 한일 기업: 러시아 사업의 포기과 최소화 노력도 미국이 불용납, 4) 한국은 미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 강요당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협력 강화

세계화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는,

1.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요인과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 병존. 1) 기업들이 대립을 초월하여 협력을 모색하나 정치가 이를 부인, 2) 정치적 이유로 협력범위가 좁아지는데 대한정치적 비판이 어려움, 3) 각국의 내셔널리즘의 대두와 문제를 복잡화 시킴.
2. 냉전시대의 비지니스와 유사한 점, 1) 미국-영국-유럽 중심의 비지니스와 중국-러시아-비미국 대상의 비지니스로 구분할 필요성 대두, 2) 양 진영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을 줄이냐가 관건, 3) 어려운 때에 기회가있고, 4) 민간단체가 틈새시장을 잘 조율하면 산업성장이 가능할 것.
 3. 냉전시대의 비지니스와 다른 점, 1) 미국의 제재는 냉전시대 보다 정교하여 빠져나가기 어려움, 2) 제재가 금융과 보험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 짐으로 단순히 회사분리만으로 불가능, 3) 기업인 자신의 결단력에 따른 성장여부, 4) 중국, 러시아, 비미국 국가들도 이제 보복할 수 있게 됨.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1) 지금까지의 세계화 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모델이 필요, 2) 정치분열 중에도 인적/물적/통신 교류가 비약적 발전, 3) 선입견을 버리고 새시대의 감성으로 무장해야, 4) 자신의 아이디어와 아메바적 행동 인간을 가진 기업은 승산이 있다.

지금, 세계질서는 미국이 1)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새로운 대결구도로 , 2)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마찰을 통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경제상황과, 3) 사회적으로는 Post-COVID-19시대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즉, 국가시장경제의 성공을 경험하고, 나아가 서구의 웨스프팔리아체제(balance of power)를 부정하고 패권외교가 아닌 대국외교를 표방하고 강대국으로의 대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에 대하여 패권정책을 지양하고 국제협력을 바라며, 대 중국정책에서 decoupling 이 아닌 derisking 의 정치우선의 대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2023년6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질서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global pivot to state)로 이제까지의 미국 중심의 단선적 안보질서가 아닌 일종의 다변화된 안보질서를 추구하는역할을

시작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하고 있을 때, 같은 시기 일본의 키시다 총리는 발빠르게 한국방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전환점에서 일본의 대 글로벌 및 동북아시아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 홍정표(洪停杓):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三村光広教授は、グローバル時代の東北アジア経済状況を巨視的な枠組みから眺め、その解決方法を分析的な方法で提案をするものである。

*ホン・ジョンピョ（洪停杓）：ソウル大アジア研究所客員研究院、元宮崎国際大学教授

アメリカと中国の対立そしてウクライナ紛争が世界を再び新冷戦で分断した。アメリカの対中国に対する嫌悪がオバマ時代に芽生え、現在に至っている。ウクライナ紛争は東北アジア諸国をロシアとアメリカ両陣営に分けている。つまり、「ロシア<中国<北朝鮮そして韓国>日本>アメリカ」の形で、また東北アジア国の対中国政策も「中国<ロシア<北朝鮮—モンゴル—韓国>日本>アメリカ」へ収束し、これは政治が経済へ影響を及ぼすものを意味する。

世界化（経済の）利点を味わった韓・中・日は、分裂が起きる政治優先事項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分裂の危険に直面した。つまり、1) アメリカ/対中国輸出規制：原産地 規制（半導体）、2) 中国/原資材の輸出規制：ガリウムとゲルマニウム、3) 韓国・日本/アメリカと中国の規制に振り回す。

ウクライナ紛争に臨む韓国と日本両国の行動に対するロシアの報復行為について、1) ロシア：日本と韓国を非友好国へ指定して様々な制裁を行い、2) 日本：ロシアの外貨保有高凍結と英米の対ロシア経済制裁に同調、3) 日・韓企業：ロシア事業をあきらめることや最小化の努力も米国が不容認、4) 韓国は米国によってウクライナへ武器供給を強要され、ロシアは北朝鮮へ軍事協力を強化

世界化以来、東北アジアの経済交流は、

1. 対立を緩和させる要因とこれによる衝撃を緩和させる動きが併存。1) 企業が対立を超越して協力を模索しているが、政治家がこれを否認、2) 政治的な理由で協力範囲が狭くなるが、これに対する政治的な批判が難しい、3) 各国のナショナリズム台頭と問題を複雑化させる。
2.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類似した点、1) アメリカ—イギリス—ヨーロッパ中心のビジネスと中国—ロシア—非アメリカ対象のビジネスとして区

別する必要性が台頭、2) 両陣営の分裂を避けるためにどのくらい費用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かがカギ、3) 難しい時に機会があり、4) 民間団体がニッチ市場を上手く調整すると 産業成長が可能であること。

3.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異なる点、1) アメリカ制裁は冷戦時代より洗練され、抜け出すは難しい、2) 制裁が金融と保険分野を中心になっており、単に会社を分離するだけで不可能、3) ビジネスマン自分の決断力による成長の可否、4) 中国、ロシア、非アメリカ国も、今は報復できるようになった。
4. 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1) これまでのグローバルイゼーション時代とは異なる方法のモデルが必要、2) 政治分裂中でも人的・物的・通信交流が飛躍的に発展、3) 先入観を捨て、新しい時代の感性に武装しなければならない、4) 自分のアイデアとアモーバ的な行動人間を持つ企業は勝算がある。

今、世界秩序は米国が1)政治的にはウクライナ戦争でロシアを軍事的に圧迫する新しい対決構図で、2)経済的には米・中貿易摩擦を通じて中国を圧迫する新しい経済状況と、3)社会的にはPost-COVID-19時代の新しい状況が展開されている。

中国は、彼らの中国特色的社会主義、つまり、国家市場経済の成功を経験し、さらに西欧のウェスパファリア体制(balance of power)否定し、覇権外交ではなく大国外交を 標榜して強大国への待遇を願っている。アメリカは中国が周辺国に対して覇権政策を止揚し、国際協力を望み、対中国政策でdecouplingではなくderiskingの政治優先の対中国政策を堅持している。

東北アジアでは、2023年6月に韓国の尹錫悦大統領がアメリカのジョー バイデン大統領を訪問して、韓米同盟をさらに強化することにした。そして、韓国政府は、国際秩序と東北アジア秩序からグローバル中枢国家 (global pivot to state) として、これまでの米国中心の断線的な安全保障秩序ではなく、一種の多様化された安全保障秩序を追求する役割を始めたのである。一方、尹錫悦大統領がアメリカのバイデン大統領を訪問している時に、同じ時期に日本の岸田首相はすぐに韓国訪問を決定した。このような世界秩序の転換点で、日本の対グローバル及び東北アジアへの構想があるとしたら何か？

[발표 3]

『신냉전시대의 동북아
미래경제협력 방안』

鄭京泳

漢陽大學 國際大學院 教授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제1회 동북아미래포럼

신냉전시대의 동북아 미래 경제협력 방안

(2023 . 8. 21)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

순서

- I. 들어가면서
- II. 신냉전구조의 전략환경 평가
- III. 동북아 경제협력 실태 분석
- IV. 동북아 미래 경제협력 방안
- V. 결론 및 제안



I
CHAPTER

들어가면서

43

목적과 배경

- **목적:** 신냉전 구조의 전략환경 평가와 동북아 경제협력 실태 분석
통해 경제협력 방안 모색
- **배경**
 - 신냉전 구조의 전략환경 평가
 - 미중 패권경쟁이 외교, 군사, 경제, 기술, 이념 전 분야로 확대
 - 북중러 vs 한미일 블록간 갈등 구조 심화
 - 북핵 도전과 대만위기는 지역질서에 파괴적 영향
 -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세력정치의 국제안보질서 재편
 -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위협은 공동으로 대처
 - 동북아 경제협력 구조 역시
 - 미국 주도의 IPEF vs 중국 주도의 RCEP로 블록화
 - 경제와 안보 분리하기 어려운 대립 구조
 - 이러한 전략환경 분석을 통해 동북아 미래 경제협력 방안 강구

4



신냉전구조의 전략환경 평가



- ① 미중 패권경쟁
- ② 동북아 갈등과 대립구조
- ③ 북핵 미사일 도전
- ④ 대만 위기
- 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⑥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위협

8

1. 미중 패권경쟁

- 외교: 인태전략, NATO관여 vs 일대일로, SCO, BRICS
- 군사: 다영역(Multi Domain),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VS 반접근 지역거부(A2&AD)전략, 제1, 2도련선
- 경제: IPEF, 글로벌공급망 vs RCEP, 공동부유
- 기술: 전략산업(반도체, AI, 배터리, 자동차) 중국 봉쇄, CHIP4 vs 민간기업 보다 국유기업 중시, 자원 수출 통제
- 이념: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6

동아시아 미중 군사전략



2. 동북아 갈등과 대립구조

- **한미일 자유진영 vs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
 - 한미·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 북중동맹, 북러 전통적 관계, 북중러 전략적 협력
- **3대 군사 강국 및 최다 핵보유 지역**
 - 3대 군사강국: 미, 러, 중
 - 핵보유국: 미, 러, 중, 사실상 핵보유 북한
- **최대의 영토분쟁 지역**
 - 북방영토/쿠릴, 독도/다케시마, 이어도/쑤옌자오, 센카쿠/다오위다오
- **역사적 유산과 배타적 민족주의**

동북아 국가별 국력 비교

분류	GDP(달러) 1인당 개인소득	인구(명)	국방비(달러)	병력(명)
미국	21,132조(1위) 63,700	339,665,000	7,500억	1,390,000 (육군: 47.5만, 해병: 18만, 해군: 34.5만, 공군: 33.5만)
중국	14,317조(2위) 17,600	1,413,142,000	2,500억	2,000,000 (육군: 100만, 해-해병군: 3만, 공군: 12만, 로켓군: 15만, 전략지원군: 15만)
일본	5,126조(3위) 40,800	123,719,000	543억	240,000 (육군: 15만, 해병군: 4.5만, 공군: 4.2만, 해안경비대: 1.4만)
러시아	4,078조(11위) 11,160	141,698,000	614억	850,000 (육군: 30만, 공군: 4만, 해군: 15만, 우주군: 16만, 전략로켓군: 7만, 특수전: 2만, 지위 및 지원: 10만)
한국	1,5807조(9위) 32,046	51,970,000	438억	500,000 (육군: 36.5만, 해군: 7.0만, 공군: 6.5만, 예비전력: 310만)
북한	302억 1,800	26,070,000	43.1억	1,280,000 (육군: 11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전략군: 1만, 예비전력: 762만)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22』(서울: 국방부, 2023); CIA, The World Factbook 2023-2024 (Washington, D.C.: CIA, June 2023); OECD, The World Factbook 2022: Global Firepower, "2023 World Military Strength Rankings" <https://www.youtube.com/watch?v=GS8RtUtpba> (검색일: 2023. 3. 26); ISS, 2021-2022 Military Balance (Lond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21); IMF, IMF 2020 (Washington, D.C.: IMF, 2019); 2023년 한국의 국방비는 57조 1638억원이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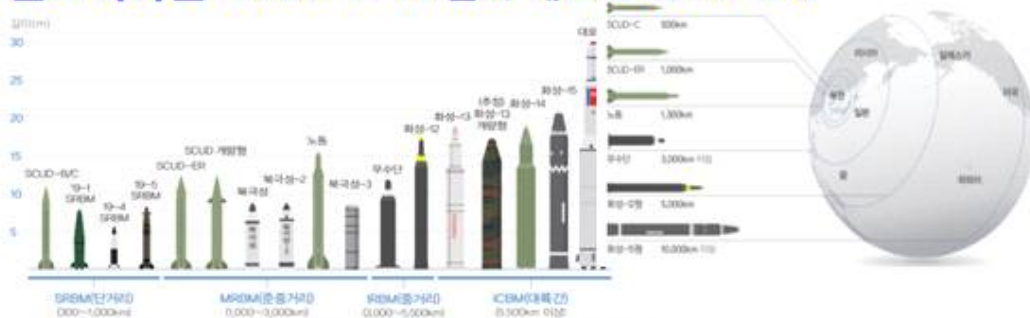
3. 북핵 미사일 도전

● 핵무력정책법 제정(2022. 9.8)

- 핵탄두 최대 60기, 2027 최대 242기 보유 판단(아산정책연구원 RAND, 2022)

* 전술핵 운용 공격축선별 실전적 훈련(2022. 9. 25-10.9)

● 탄도미사일: 2023. 7. 13 올해 네번째 ICBM 발사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20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29.

● 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 핵선제 공격 등 강압적이고 다양한 위협과 공격 예상

10

4. 대만 위기

● 대만 사태

- “통일 위해 무력사용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겠다” 는 시진핑 주석 발언 (2022. 10월 중국 공산당 20차대회)
- “대만 정세 변경 시도면 대응할 것” 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2022. 11. 인도네시아 미중정상회담)
- 양안 방공식별구역 빈번한 진입, 대만 포위 무력시위, 미중간 무력 충돌 가능성

● 대만 문제가 심각한 이유: **대만 통일, 점령시**

- 중국: 제1도련선 발판 구축, 한일 고립, 패권적 지위 확보, 민주주의 대만 소멸
- 미국: 자유주의 국제질서 포기, 동맹네트워크에서 한·일·호 떨어져 나감
한일 무역항로 중국에 의존

11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2. 2. 24 러시아 침공,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전쟁

- 사실상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진영 간 전쟁
- 에너지, 식량,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
- 러시아 핵무기 사용 시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국과 북한의 향후 무력 행사까지 영향
-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되느냐
힘이 지배하는 흡즈적 세계가 되느냐에 영향

● 중러 관계

- 중국에게 러시아는 반미 연대의 최대 우방국, 미국의 군사 전략적 초점 분산
에너지 자원 공급자, 서방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념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
- 러시아 방치시 중러관계 악화, 푸틴 권위주의 체제 붕괴시 반미연대 약화

12

6. 초국가적 위협

- **초국가적 위협: 국경을 넘나들면서 주는 위협, 특정국가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협**
 - 재해 재난, 팬데믹, 사이버테러, 해킹, 인신매매, 무기 및 마약밀매, 해적, 국제범죄, 대량난민, 환경오염 등
 -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생태계 파괴, 지진, 산불, 홍수, 화산폭발, 쓰나미 등 자연재해 심각
 - 해킹 등 사이버 테러
 - 불량국가, 테러리스트에게 북한 핵, 미사일 WMD 이전 가능성
-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이 초국가위협 공동 대처 절실**

13



CHAPTER

동북아 경제협력 현실태



- 1 미국 주도 IPEF vs 중국 주도 RCEP
- 2 한중일협력사무국
- 3 대북·대러 경제제재

6

1. 미국 주도 IPEF vs 중국 주도 RCEP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 중심의 무역 촉진, 공급망, 디지털 경제, 투명한 투자, 디지털 연대체제 운용**
 - 2022. 5, 미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 필리핀, 부르나이, 피지, 인도 등 12개국 IPEF 출범
- **역내포괄적경제협력(RCEP): 중국 중심의 메가 FTA**
 -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2022. 3. 18일 발효
 - 창립 회원국 34억 명, 전 세계 GDP의 40% 49조 5천억 달러 보유
- **IPEF 및 RCEP 공동 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양 경제협력기구 중재 역할 필요**

15

3. 한중일협력사무국

-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공동 문화비전 실현 목적, 정부 간 국제 기구**
 - 2011. 9, 한중일 3국 정부가 서명 비준해 서울에 설립
 - 한중일 각국이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
 - 기능 및 역할
 - 한중일 3국 간 협의체 지원
 - 한중일 협력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 신규 사업 발굴
 -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TCS의 목표 하나인 공동번영의 실질적 협력 미흡**

16

4. 대북 · 대러 경제제재

- **대북 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제재 등
역내 국가와 북한 간 경제협력 제한
 - 북한의 1차 핵실험(2006. 10. 9)으로부터 6차 핵실험(2017. 9. 3) 및
수 많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따른 유엔 경제제재, 대북 수출 정유봉쇄,
식물수출규제, 해외파견근로자 계약연장 금지, 합작 경제협력 금지
 - 미국의 안보위협, 테러지원, WMD확산국으로 대북 제재, IMF 원조 금지,
적성국 무역금지 및 행정명령에 의한 북한 기업, 은행과의 거래 개인 및
기업 재산 동결, 미의회 입법에 따른 대북 제재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 경제제재, 경제협력 제한
 -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첨단제품 · 부품 수출 통제, 유럽내 자산 동결,
러시아 정부 기업에 자금 조달 차단, 가스관 사업중단 vs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우크라이나 식량 공급 차단
- 북한의 비핵화 및 러시아 침략행위 중단토록 국제사회 노력 필요

17

IV 동북아 미래 경제협력 방안



- 1 소다자주의 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 2 경제안보 협력
- 3 녹색성장 협력

8

1. 소다자주의 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 전략기조

- 평화,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환경 조성
- 소다자주의 협력과 동북아 전략경제협력 병행 추진

● 소다자주의 협력 활성화

- 한미일 군사공조체제: 북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처
- 남북미중 전략대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 남북러 협력: TKR—TSR 연결, 에너지 개발 협력
- 남북일러 협력: 동해권 개발 협력
- 남북중 협력: 서해권 개발 협력

● 동북아 전략경제협의체 창설

- 남북미중일러몽 정상회담: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모체로 확대

● 동북아 전략경제협의 아키텍처



- * 동북아 역내 안보, 경제를 통합하여 안보경제 질서 구축
- * 군비경쟁, 북핵문제, 영토분쟁, 지역녹색성장, 통상, 기술협력, 통화스위프
- * 제주도에 동북아 국제대학원 설립, 인재육성

2. 경제안보 협력

- **경제안보:** 국가·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음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유지·경제 활동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
 - 코로나, 우크라이나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핵심물자 부족, 물가 상승 등 큰 영향, 경제 불실성 완화, 대외 리스크 회복력 제고, 경제도약 위한 경제안보 외교의 역할 중요
 - 한, 미, 일, 호, EU 등과 경제안보 전반 전략적 소통과 정보협력 확대
 - IPEF, RCEP, G20, OECD, APEC, WTO 적극 참여
 -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용: 공급망, 첨단기술 유사입장국과 협력
 - 핵심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 확보, 에너지 및 식량안보 강화
 - 핵심 신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21

3. 녹색성장 협력

- **녹색성장:** 기후변화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은 모든 국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
 -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과 인간의 경제 활동 증가 및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
 -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3%, 메탄가스도 34% 감소
 - 국제사회와의 협력
 - ODA 부문 녹색 ODA 비중 제고, 녹색성장 정책 수립 경험과 과정 공유
 - 해외 공공부문과 민간시행 탄소감축사업 통해 해당 국가 탄소 감축 기여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D와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의 G를 합친 D+G전략 발전, 지역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적용
 - D+G가 K-Culture와 만나서 새로운 탄소중립 활동과 친환경적인 문화 확산

22

V. 결론 및 제안



8

결론 및 제안

- 전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새로운 접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제안
 - 경제안보, 탄소중립·녹색성장 등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
 - 동북아미래국제포럼이 주기적으로 한일간,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 정책제안

25

정경영 박사 프로필

-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015년부터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세계정치에서 한국, 박사학위 논문작성법 강의
- **교육:** 미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논문: Build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미 USC대학원 · 미 육군지휘참모대 · 육군사관학교 졸업
- **경력:** 서부 · 중부 · 동부전선 지휘관, 합참과 한미연합사 정책 · 전략 수립, 국방대 · 가톨릭대 초빙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사)동북아 공동체연구원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국방전문가포럼 대표
- **저서:**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2022),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2020),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 (2014),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第1回東北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新冷戦時代の 東北アジアの未来経済協力 案 (2023 . 8 21)

漢陽大学校 国際学大学院
Adjunct Professor
Jeong Gyoung-young

目次

- I. はじめに
- II. 新冷戦構造の戦略環境評価
- III. 東北アジア経済協力の実態分析
- IV. 東北アジア未来経済協力方案
- V. 結論および提案



目的と背景

● **目的:** 新冷戦構造の戦略環境評価と東北アジア経済協力実態分析
通じて経済協力方案を模索

● **背景**

- **新冷戦構造の戦略環境評価**

- ・ 米中覇権競争が外交、軍事、経済、技術、理念の全分野に拡大
- ・ 北中ロvs韓米日ブロック間の葛藤構造の深化
- ・ 北朝鮮の核挑戦と台湾危機は地域秩序に破壊的影響
- ・ ウクライナ戦争の長期化、勢力政治の国際安全保障秩序再編
- ・ 気候変動などの超国家的脅威は共同で対処

- **東北アジアの経済協力構造もやはり**

- ・ 米国主導のIPEF vs 中国主導のRCEPでブロック化
- ・ 経済と安全保障の分離が難しい対立構造

- **このような戦略環境分析を通じて東北アジアの未来経済協力
方案を講じる**



新冷戦構造の戦略環境評価



- ① 米中覇権競争
- ② 東北アジアの葛藤と対立構造
- ③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挑戦
- ④ 台湾危機
- ⑤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
- ⑥ 気候変動のような超国家的脅威

8

1. 米中覇権競争

- 外交: 印度・太平洋戦略、NATO関与vs一対一路、SCO、BRICS
- 軍事: 多領域 (Multi Domain)、統合抑制 (Integrated Deterrence) vs 反接近地域拒否 (A2&AD) 戦略、1、2島鏈線
- 経済: IPEF、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vsRCEP、共同富裕
- 技術: 戦略産業 (半導体, AI, バッテリー, 自動車), 中国封鎖CHIP4vs民間企業より国有企業重視、資源輸出統制
- 理念: 民主主義vs権威主義

6

東アジア米中軍事戦略



11

2. 東北アジアの葛藤と対立構造

◆ 韓米日の自由陣營vs北中口の権威主義陣營

- 韓米日の同盟、韓米日の安保協力
- 中朝同盟、朝露の伝統的關係、朝中露の戰略的協力

◆ 3大軍事大国及び最多核保有地域

- 3大軍事強国:米、口、中
- 核保有国:米、口、中国、事實上核保有の北朝鮮

◆ 最大の領土紛争地域

- 北方領土/クリル、独島/竹島、離於島/蘇巖礁、尖閣/釣魚群島

◆ 歴史的遺産と排他的ナショナリズム

8

東北アジア国家別の国力比較

分類	GDP(ドル) 一人当たり個人所得	人口(名)	国防費(ドル)	兵力(名)
米国	21,132兆(1位) 69,700	339,665,000	7,500億	1,390,000 (陸軍: 47.5万, 海兵: 16万, 海軍: 34.5万, 空軍: 33.5万)
中国	14,317兆(2位) 17,600	1,413,142,000	2,800億	2,000,000 (陸軍: 100万, 海軍兵隊: 3万, 空軍: 12万, ロケット軍: 15万, 戦略空軍: 15万)
日本	5,126兆(3位) 40,800	123,719,000	543億	240,000 (陸軍: 15万, 海兵隊: 4.5万, 空軍: 4.2万, 海岸警備隊: 1.4万)
ロシア	4,078兆(11位) 11,180	141,698,000	614億	890,000 (陸軍: 30万, 工兵: 4万, 海軍: 15万, 宇宙軍: 16万, 戦略ロケット軍: 7万, 特殊戦: 2万, 指揮及び支援: 10万)
韓国	1,880兆(9位) 32,046	51,970,000	438億	500,000 (陸軍: 36.5万, 海軍: 7.0万, 空軍: 6.5万, 予備兵力: 310万)
北朝鮮	300億円 1,800	26,070,000	43.1億	1,280,000 (陸軍: 110万, 海軍: 6万, 空軍: 11万, 戦略軍: 1万, 予備兵力: 762万)

資料: 韓国 国防部, 「国防白書 2022」(ソウル: 国防部, 2023); CIA, The World Factbook 2023-2024 (Washington, D.C.: CIA, June 2023); OECD, The World Factbook 2022; Global Firepower, "2023 World Military Strength Rankings" <https://www.youtube.com/watch?v=GS-R8rtDjpb0>, (投稿日: 2023. 3. 26); ISS, 2021-2020 Military Balance (Lond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21); IMF, IMF2020(Washington, D.C.: IMF, 2019); 2023年の韓国の国防費は57兆1628億ウォンである。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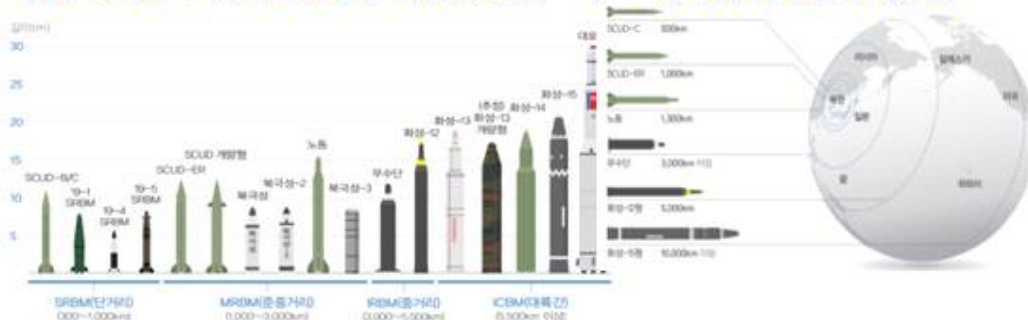
3.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挑戦

◆ 核武力政策法制定 (2022年9月8日)

- 核弾頭最大60基、2027年に最大242基保有判断 (元山核研究院RAND2022)。

* 戦術核の運用攻撃軸選別の実戦的訓練 (2022.9.25-10.9)

◆ 弾道ミサイル: 2023年7月13日、今年4回目のICBM発射



資料: 韓国 国防部, 「2020国防白書」(ソウル: 国防部, 2020), p.29.

◆ 化学兵器2,500-5,000トン、生化学兵器炭疽菌、天然痘、ペスト

※ 核先制攻撃など強圧的で多様な脅威と攻撃予想

10

4. 台湾危機

◆ 台湾事態

- 「統一のために武力使用を放棄すると約束しない」という習近平国家主席の発言
(2022.10月中国共産党第20回大会)
- 「台湾情勢変更の試みには対応する」というバイデン大統領の発言
(2022.11.インドネシア米中首脳会談)
- 兩岸防空識別圏への頻繁な進入、台湾包囲の武力示威、米中武力衝突の可能性

◆ 台湾問題が深刻な理由:台湾統一、占領時

- 中国:第1島鏈線の足場構築、韓日孤立、霸権的地位確保、民主主義台湾消滅
- 米国:自由主義国際秩序の放棄、同盟ネットワークから韓・日・豪離れ、韓易航路の中国に依存

11

5.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

◆ 2022.2.24 ロシア侵攻、長期化するウクライナ戦争

- 事実上権威主義勢力と民主主義陣営の戦争
- エネルギー、食料、サプライチェーンなど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戦争
- ロシアの核兵器使用時、米国とNATOがどのように反応するかが中国と北朝鮮の今後の武力行使まで影響
- 戦争がどのように終結するかによって自由主義国際秩序が維持されるかが支配するホープズ的世界になるかに影響

◆ 中露関係

- 中国にとってロシアは反米連帯の最大友好国、米国の軍事戦略的焦点分散
エネルギー資源供給者、西側の人権と民主主義の理念的圧力に共同で対応
- ロシアを放置すれば中露関係の悪化、プーチン権威主義体制崩壊時の反米連帯の弱体化

12

6. 超国家的脅威

◆ 超国家的脅威: 国境を越えた脅威、特定の国家 独自に対処しがたい脅威

- 災害災難、パンデミック、サイバーテロ、ハッキング、人身売買、武器および麻薬密売、海賊、国際犯罪、大量難民、環境汚染など
- 気候変動によって食糧需給に問題が生じ、伝染病が蔓延し、生態系の破壊、地震、山火事、洪水、火山噴火、津波など自然災害が深刻化
- ハッキングなどのサイバーテロ
- 不良国家、テロリスト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WMD移転の可能性

◆ 東北アジア地域内の国々が超国家脅威共同対処を切実に必要

13



CHAPTER

東北アジア経済協力の現状



- ① 米国主導のIPEF vs 中国主導のRCEP
- ② 日中韓協力事務局
- ③ 対北朝鮮・対ロシア経済制裁

6

1. 米国主導のIPEF vs 中国主導のRCEP

◆ インテ経済フレームワーク (IPEF) :米国中心の貿易促進、サプライチェーン、デジタル経済、透明な投資、デジタル連帯体制の用

- 2022.5、アメリカ、インド、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シンガポールマレー、フィリピン、ブルネイ、フィジー、インドなど12カ国 IPEF発足

◆ 域内包括的経済協力(RCEP):中国中心のメガFTA

- ASEAN加盟国10カ国、中国、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15カ国が参加する自由貿易協定、2022年3月18日発効

- 創立メンバー国34億人、世界GDPの40%49兆5千億ドルを保有

◆ IPEF及びRCEP共同加盟国である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
両経済協力機構の仲裁役割が必要

15

2. 韓・中・日協力事務局

◆ 日中韓協力事務局 (TCS) :東アジア地域の持続的平和、共同繁栄、共通文化ビジョンの実現目的、政府間国際機関

- 2011.9、韓中日3か国政府が署名批准してソウルに設立

- 日中韓の各国が2年ごとに輪番制で任命する事務総長と2人の事務次長で構成

- 機能および役割

・ 韓中日3か国間の協議体支援

・ 日中韓協力に対する大衆の認識向上

・ 新規事業発掘

・ その他の国際機関との協力

・ 研究およびデータベース構築

◆ TCSの目標の一つである共同繁栄の実質的な協力不足

16

3. 対北朝鮮・対ロシア経済制裁

◆ 対北朝鮮制裁: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による国連安保理制裁など 域内国家と北朝鮮間の経済協力制限

北朝鮮の1回目の核実験（2006年10月9日）から6回目の核実験（2017年9月3日）及び数多く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による国連の経済制裁、対北朝鮮輸出精油封鎖、織物輸出規制、海外派遣労働者の契約延長禁止、合併経済協力禁止

- 米国の安保脅威、テロ支援、WMD拡散国として対北朝鮮制裁、IMF援助禁止、敵国貿易禁止及び行政命令による北朝鮮企業、銀行との取引個人及び企業財産凍結、米議会立法による対北朝鮮制裁資金洗浄憂慮対象国指定

◆ 対ロシア制裁:ウクライナ侵攻による対ロシア経済制裁、経済協力制限

- 石油製品の価格上限、先端製品・部品輸出統制、欧州内の資産凍結、ロシア政府企業への資金調達遮断、ガスパイプライン事業中断vs
ロシアのガス供給停止、ウクライナの食糧供給停止

◆ 北朝鮮の非核化およびロシア侵略行為を中止するよう国際社会の努力が必要

17

IV

東北アジアの未来経済協力方案



- ① 小多者主義の協力和東北アジア多国間協力
- ② 経済安全保障協力
- ③ グリーン成長協力

1.小多者主義協力と東北アジア多国間協力

◆ 戦略基調

- ・平和、共同繁栄を向けた東北アジアの環境造成
- ・小多者主義の協力と東北アジア戦略経済協力を並行して推進

◆ 小多者主義の協力の活性化

- ・韓・米・日の軍事協力体制: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への共同対応
- ・南・北・米のうち戦略対話:北朝鮮の非核化と平和協定
- ・南・北・口の協力:TKR—TSRの連結、エネルギー開発協力
- ・南北日口の協力:東海圏開発協力
- ・南北中の協力:西海圏開発協力

◆ 東北アジア戦略経済協議体の創設

- ・南・北・米・中・日・ロ・モン首脳会談:韓中日3か国の協力事務局母体に拡大

◆ 東北アジア戦略経済協議のアーキテクチャ



* 東北アジア域内の安保、経済を統合して安保経済秩序を構築

* 軍備競争、北朝鮮核問題、領土紛争、地域グリーン成長、通商、技術協力、通貨スワップ

* 済州島に東北アジア国際大学院設立、人材育成

36

2. 経済安全保障協力

◆ 経済安全保障:国家・国民の経済活動に欠かせない品目などが円滑に流入し、不適切に流出しないとして、国家安全保障の維持・経済活動の支障が招かれない状態

- コロナ、ウクライナ戦争は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攪乱、核心物資不足物価上昇など大きな影響、経済の不健全性緩和、対外リスク回復力向上、経済跳躍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外交の役割が重要
- 韓・米・日・豪・EUなどと経済安保全般の戦略的疎通と情報協力を拡大
- IPEF、RCEP、G20、OECD、APEC、WTOに積極的に参加
- 経済安全保障外交センター運用:サプライチェーン、先端技術類似立場国と協
- コアサプライチェーン危機対応能力の確保、エネルギーと食糧安全保障の強
- 核心の新興技術の保護及び協力強化

21

3. グリーン成長協力

◆ グリーン成長:気候変動による炭素中立・グリーン成長はすべての国家協力して推進すべき課題

- 自然災害と異常気候、人間の経済活動の増加、化石燃料使用の増加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増は密接な関係
- 2030年までに全世界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43%、メタンガスも34%減少
- 国際社会との協力
 - ・ ODA部門のグリーンODA比重向上、グリーン成長政策樹立経験と過程共有
 - ・ 海外公共部門と民間施行炭素削減事業を通じて該当国家炭素削減寄与
-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igital Transformation)のDとグリーン切り替え(Green Transformation)のGを合わせたD+G戦略の発展、地域と国家別にカスタマイズして適用
- D+GがK-Cultureと出会い、新しい炭素中立活動と環境にやさしい文化拡散

22

V.

結論および提案



8

結論および提案

◆ 戦略環境が急激に変化し、新しいアプローチの経済協力が求められる状況

◆ 変化した戦略環境に符合する経済協力方案を講じて相互Win-Winできるシステム構築

◆ 提案

- 経済安全保障、炭素中立・グリーン成長などは経済協力を通じて可能
- 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が周期的に韓日間、東北アジア域内の国家間の経済協力がうまく行われているのかを評価、政策提案

25

Dr.Jeong Gyoung-young プロフィール

◆ 漢陽大学国際大学院兼任教授:2015年から東北アジア国際関係、国際政治経済、世界政治における韓国、博士学位論文作成法講義

◆ 教育:米メリーランド大学院国際政治学博士 (学位論文:Build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米USC大学院米陸軍指揮参謀隊・陸軍士官学校卒業

◆ 経歴:西部・中部・東部戦線指揮官、合同参謀と韓米連合軍司令部政策・戦略樹立、国防大学・カトリック大学招聘教授、国家安保室政策諮問委員、社)東北アジア共同体研究院付設東アジア国際戦略研究所所長、国防専門家フォーラム代表

◆ 著書:『戦作権転換と国家安保』(2022)、『ピースクリエーション:韓米東盟と平和創出』(2020)、「韓国の求心力外交安保政策」(2014)、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25

[지정토론 3]

『신냉전시대의 동북아
미래경제협력 방안』

韓承軒

Seoul大学国際大学院修士課程

INAF研究員

제1회 동북아시아미래포럼

신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 미래경제협력안

지정토론

ソウル大学 国際大学院 韓 承軒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승헌



동북아 전략환경평가

미중 패권경쟁

동북아시아 대립구조

북한 핵미사일 위기

대만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

동북아 전략환경 유의점

- 1) "신냉전구조 " 라는 관점
- 2) 민주주의의 의미
- 3)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북한

2

1. “신냉전구조 ” 라는 관점

- “신냉전 ” 이란?

미중 간 혹은 미러 간의 대립 상황을 새로운 냉전으로 인식

- “신냉전”이라는 말 자체가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① Babb(1993), Arbatov(1994) 냉전 종식 후 바로 '신냉전 ' 을 제기
- ② Salla(1997): 이슬람과 서양의 관계가 '신냉전'이 될 가능성, 그리고 Buzan(2006): 테러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것을 '신냉전'에 비유
- ③ Rahm(2001): 러시아, 인도, 중국이 협력하여 미국에 위협을 가하면 '신냉전'이 될 수 있다고
- ④ Odgaard(2008), Cooney(2008)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Rising Power로 인식, 미중이 '신냉전'이 될 가능성을 논한다.

결론: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있을 때마다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3

1. “신냉전구조 ” 라는 관점

- ‘신냉전’과 중국의 대응
- 중국이 ‘신냉전’ 이야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2012년경부터이고,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무역전부터다. 2012년 이전에는 주로 ‘미러 신냉전’으로 인식되었고, 2016년경까지 그 인식은 계속된다.

- ① 潘兴明 (2008)、钱平广 (2011) :미러 ‘신냉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분석
- ② 阎学通&漆海霞(2012) : 중미 경쟁은 가짜 친구이지 신냉전 아니라고 부인
- ③ 赵明昊(2018) 적대화를 가중하는 개념이라고 논술
- ④ 于海洋&马跃(2020) ‘신냉전’ 은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의문을 제기

결론: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이라는 말에 경계하고 중미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려 한다. 즉, 중미 경쟁을 ‘신냉전’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2.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란?

동북아 국면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전쟁으로 보는 것에 의문

Countries that provide military aid to Ukraine (January 2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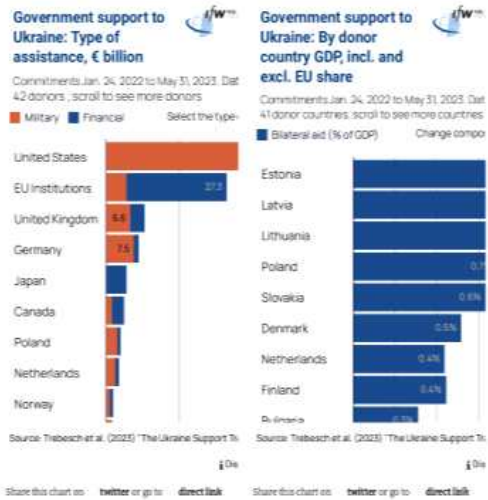
민주주의 진영

- 독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 GDP당 지원액은 발트 3국이 1%를 넘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등 인접국
 - 군사 지원국은 선진국 혹은 인근 국가들이다.
- “우크라 지원한 31개국 감사” 명단에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없었다(서울신문)

source: euro.uz.gov.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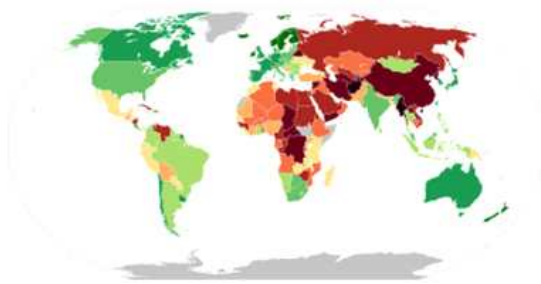
Iceland is now added to the Tracker to further complete the list of donor countries.

[Go to dataset](#) [Go to research paper](#) [Go to media information](#)



민주주의 국가는 같은 민주주의인가?

- 선거 민주주의, 경쟁적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계가 있다
- Freedom House, Polity data series, Democracy Index 등 민주주의는 지수가 있고 지수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 녹색의 완전한 민주주의, 연두색의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보면 남미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 특히 미국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후퇴



권위주의 국가도 같은 권위주의인가?

- ① 권위주의의 국가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비민주'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없어질 정도로 다양하다
- ②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등은 왕정, 군사, 종교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 ③ 동북아시아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을 같은 권위주의라고 생각하면 상대국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방해가 된다.



3.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북한

-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도 당연히 중-북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 ① 중국은 지금까지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화 하는 데 전념했으니 앞으로도 대만 문제가 확실히 내정문제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 ②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한 나라가 '인근국', '나토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대만에 무력행위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반발 및 지원이 없지만 한일 베트남 필리핀 NATO 선진국의 지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③ 북한은 우크라이나처럼 핵무기를 포기하면 열전이 될 것임을 인식,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 결론: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은 대만통일을, 북한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 현황과 제안

- 미국 주도 IPEF vs 중국 주도 RCEP 중재자 중요성
- 한중일 협력사무국 확대
- 대북·대러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적 협력

10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미국

• 동북아 다자협력에 미국은 필요한가?

지정학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글로벌 파워를 빼는데 동북아 협력은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입을 계속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이 '미국 없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의 'RCEP', 문화교류의 'TCS'가 그 예이다

11

결론

1. '신냉전'이라는 말에는 입장과 관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동북아시아를 볼 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중국·북한·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으로 명명하는 것은 각 나라를 이해하고 협력을 구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
3. 국제 정세는 앞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아직 국제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4. 경제적, 문화적 협력은 한중일 3국에서 성공한 경험이 충분하므로 미국 없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韓 承軒 한승헌

<p>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 研究員 「東北亜新聞」 記者</p> <p>専門：日本現代社会、中日関係、国民感情</p> <p>略歴： ソウル大学 国際大学院 修士修了 北京大学 日本語学科 卒業 早稲田大学 政治学科 卒業</p> <p>卒論と取材： 「日本アニメーションにおける罵倒語」、「中日高校 歴史教科書の語り方比較研究」(日本語) <China's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Japan's ODA policy towards China after the 1990s> 記事「歴史に残された在日朝鮮人は誰だろうか、なぜ 今も差別を受けているのか?」(中国語)</p>	<p>일반사단법인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신문 기자</p> <p>전공: 일본현대사회, 중일관계, 국민감정</p> <p>약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수료 베이징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와세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p> <p>졸업논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본 매도언어> <중일고등학교교과서의 서술 비교연구> (일본어) <1990년대 일본의 대중국 ODA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인식> (한국어) 기사 <역사가 남긴 재일조선인, 그들은 왜 아직도 차별 받고 있는가?> (중국어)</p>
---	---

13

第1回東北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新冷戦時代の東北アジア
の未来経済協力案」
指定討論

ソウル大学 国際大学院 韓 承軒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승헌



東北アジアの戦略環境評価

米中覇権競争

東北アジアの葛藤と対立構造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挑戦

台湾危機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

気候変動のような超国家的脅威

東北アジアの戦略環境の補足

- 1) 新冷戦構造という観点
- 2) 民主主義の語り方
- 3) ウクライナ侵攻と中国、北朝鮮

3

1. 新冷戦構造という観点

- 「新冷戦」とは？

米中間あるいは米露間の対立状況を新しい冷戦として認識する

- 「新冷戦」という言葉自体が観点を表している

- ① Babb(1993), Arbatov(1994)冷戦終焉後すぐ「新冷戦」を語る
- ② Salla(1997): イスラムと西洋の関係が「新冷戦」になる可能性、そして、Buzan(2006):テロリストとの戦争が持続し、それを「新冷戦」に喩えた
- ③ Rahm (2001) :ロシア、インド、中国が協力し、アメリカに脅威をもたらしたら「新冷戦」になる可能性がある
- ④ Odgaard(2008), Cooney(2008)が本格的に中国をRising Powerとして認識、米中が「新冷戦」になる可能性を論じる。

結論：アメリカの潜在的脅威である度に「新冷戦」という言葉は登場された

4

1. 新冷戦構造という観点

- 「新冷戦」と中国の対応
 - 中国が「新冷戦」の語りに対応し始めたのも2012年ごろからで、より多く語られ始めたのは2018年貿易戦からである。2012年以前は主に「米露新冷戦」として認識され、2016年ごろまでその認識は続く
 - ① 潘兴明(2008)、钱平广(2011)：米露「新冷戦」という問題について
 - ② 阎学通&漆海霞(2012)：「中米競争は偽友であり、新冷戦ではない」と否定
 - ③ 赵明昊(2018)「新冷戦」は敵対化を加重する概念だと論述
 - ④ 于海洋&马跃(2020)「新冷戦」の定義の不明確に疑問
- 結論：中国は、アメリカの「新冷戦」という言葉に警戒し、中米関係をより柔軟的に解釈しようとしている
- つまり、中米競争を「新冷戦」として認識するか否かは立場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忘れないことが重要である

5

2. 民主主義の語り方 Countries that provide military aid to Ukraine (January 2023)

- 「民主主義」とは？
- 東北アジアの局面を「民主主義」と「権威主義」の対立としてみる
- そしてウクライナ侵攻を「民主主義」対「権威主義」の戦争として見ることに疑問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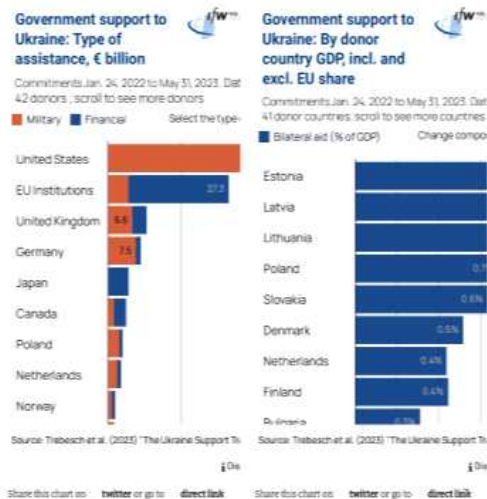
www.euro.undp.or.jp/ukr...

Iceland is now added to the Tracker to further complete the list of donor countries.

[Go to dataset](#) [Go to research paper](#) [Go to media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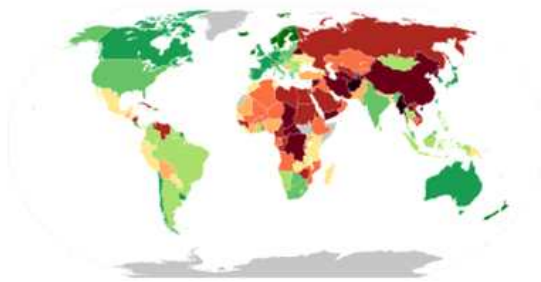
2. 民主主義の語り方

- ドイツのデータベースによると
- ① GDP当たりの支援額、バルト三国が1%超え、次にポーランド、スロバキア、デンマークなどの近隣国
- ② 軍事支援国は先進国あるいは近隣国家
- 「ウクライナ、支援国31カ国へ感謝、日韓おらず」(ソウル新聞)



民主主義国家は同じ民主主義なのか？

- ① 選挙民主主義、競争的民主主義、自由民主主義という段階がある
- ② Freedom House, Polity data series, Democracy Index など、民主主義指数は異なる
- ③ 緑の「完全な民主主義」、薄緑の「不完全な民主主義」を見ると、南米、南アフリカ諸国、インド、東南アジア諸国はウクライナ支援に積極的とは言えない
- ④ 特に米は「不完全な民主主義」と分類されるほど、民主主義の後退



権威主義国家も同じ 権威主義なのか？

- ① 権威主義国家は民主主義の原則のもとで「非民主」ということを除けば、共通点が無くなるくらい多様である
- ② サウジアラビア、リビア、イランなどは王政、軍事国家、宗教国家など色々な特徴を有している
- ③ 東北アジアにおいても、ロシア、中国、北朝鮮を同じ「権威主義」だと考えると相手の国を理解すること、協力することの妨害になる



3. ウクライナ侵攻と中国、北朝鮮

- ウクライナ侵攻の結果も当然中国と北朝鮮の動きに影響
- でも、**ウクライナ侵攻が発生した時点で中国と北朝鮮にもたらす影響も重要**：
 - ① 中国は今まで、台湾問題を国内問題化することに専念したから、これからも台湾問題が確実に内政問題に認識されることを望む
 - ② 中国はウクライナを積極的に支援した国が「近隣国」、「NATO先進国」であることを認識し、台湾に武力行為を果たす時は同じく発展途上国からの反発及び支援がないもの、日韓、ベトナム、フィリピン、NATO先進国の支援が有り得ることを認識
 - ③ 北朝鮮は、ウクライナのように核兵器を放棄したら、「熱戦」になることを認識、非核化はより難しくなる

結論：結果にもよるけれども、現時点で中国は台湾統一を北朝鮮は核保有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

東北アジア経済協力の現状と提案

- 米国主導のIPEF vs 中国主導のRCEP、仲裁役の重要性
- 日中韓協力事務局、その拡大
- 対北朝鮮・対ロシア経済制裁を通じた国際的協力

11

東北アジアの協力とアメリカ

- 東北アジア多国間協力でアメリカは必要なのか？

地政学的考え方によると、アメリカみたいなグローバルパワー抜きに東北アジア協力は無理があるかもしれない、アメリカは「インド・太平洋戦略」の機にこれからも積極的な介入を続ける

現実的には多くの領域での協力が「アメリカ無し」で進行している

経済協力の「RCEP」、文化交流の「TCS」がその例である

12

結論

1. 「新冷戦」という言葉には立場と観点があることは、今の東北アジアを見るときに適用できるかもしれない
2. 中国、北朝鮮、ロシアを「権威主義」陣営という名をつけることはそれぞれの国を理解し、協力を求めるときに妨害となる恐れがある
3. 国際情勢はこれから容易に変わることもなく、ロシアと北朝鮮との経済協力はまだ国際的な条件が欠かしている
4. 経済的、文化的協力は日中韓三国で成功した経験が十分あるので、アメリカ無しの東北アジア経済協力も考える必要がある

13

韓 承軒 한승헌

<p>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 研究員 「東北亜新聞」 記者</p> <p>専門：日本現代社会、中日関係、国民感情</p> <p>略歴： ソウル大学 国際大学院 修士修了 北京大学 日本語学科 卒業 早稲田大学 政治学科 卒業</p> <p>卒論と取材： 「日本アニメーションにおける罵倒語」、「中日高校歴史教科書の語り方比較研究」(日本語) <China's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Japan's ODA policy towards China after the 1990s> 記事「歴史に残された在日朝鮮人は誰だろうか、なぜ今も差別を受けているのか？」(中国語)</p>	<p>일반사단법인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신문 기자</p> <p> 전공: 일본현대사회, 중일관계, 국민감정</p> <p>약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수료 베이징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와세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p> <p>졸업논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본 매도언어> <중일고등학교교과서의 서술 비교연구> (일본어) <1990년대 일본의 대중국 ODA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인식> (한국어) 기사 <역사가 남긴 재일조선인, 그들은 왜 아직도 차별 받고 있는가?> (중국어)</p>
---	--

14

[발표 4]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李鋼哲

INAF 所長

北陸大学經濟經營学部 教授

はじめに: 들어가는말:

東北アジア地域では、1990年代初頭に大きな地殻変動が起こり、世界的な冷戦崩壊とともにグローバル化時代と地域協力の時代を迎えた。

30年後の現在、東北アジア地域は再び大きな地殻変動が起こり、「新冷戦」とも言われる、反グローバリズム、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を迎えている。

동북아지역에서는 1990년 대초에 크나큰 지각변동이 일어나 세계적 냉전붕괴와 더불어 지구화 시대와 지역협력의 시대를 맞이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또다시 크나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신냉전] 이라고 불리는 반지구화와 내셔널리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I. 米中は「新冷戦」時代に突入 미중 [신냉전] 시대에 돌입

* 米国(トランプ政権)は、2018年3月対中貿易のバランス問題(対中貿易赤字)を口実に中国に対して高い関税を課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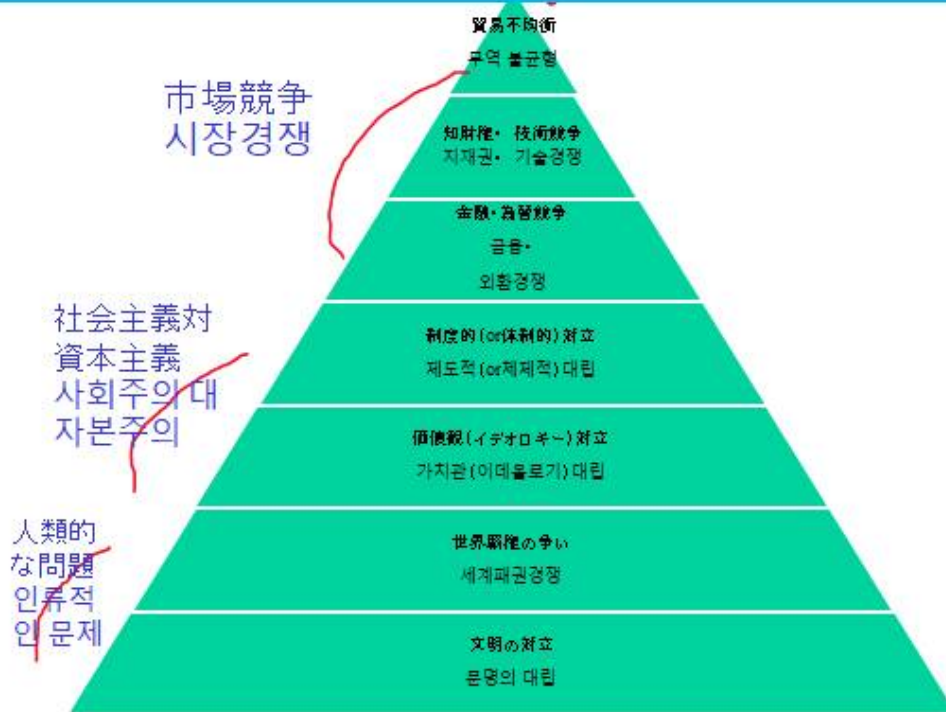
* しかし、貿易戦争から始まる対立は、本質的には台頭する大国中国に対する覇権国の米国による世界覇権争いの本格化に他ならない。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2018년3월, 대중국 무역 밸런스 문제를 구실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

*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대립은 본질적으로는 대두하고 있는 대국인 중국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세계패권 경쟁의 본격화로 보여진다.

- * それに対して、中国当局は真正面から対抗措置をとり、一步も譲らない姿勢を示す。
- * その背景には、中国の急速な経済成長に伴う大国化および軍備増強と世界の既存秩序に対する挑戦(対等関係を求める中国)がある。
- * 世界2大国(G2)は、全く異なる価値観と体制。つまり、自由民主主義の総本山米国VS共産党一党独裁の牙城中国、という対立構図。
- * 米中両国の対立は、貿易摩擦→先端技術戦争(5G等)→金融戦争へとエスカレートし、政治的、経済的、軍事的な全対立に発展しつつある。
- * 中国当局は、国内では集権化を図り、国際的には「戦狼外交」を展開。
西側の価値観を完全否定し、「中国式民主主義」を主張する(2021年3月18日に米アラスカ州で会談したブリンケン米国務長官と中国の外交担当トップ、楊潔篪共産党政治局員らの冒頭発言)。
- * 중국당국은 정면으로 부터 대항조치를 취하며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취함.
- * 그 배경에는 중국의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국화 및 군비증강과 세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즉 미국과의 대등관계를 추구하는 양상이 보인다.
- * 세계 2대 강국(G2)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체제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VS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추국가인 중국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졌다.
- * 미중양국의 대립은 무역마찰→첨단기술경쟁(5G)→금융대립으로 에스칼레트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전면 대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 중국당국은 국내에서 집권화를 도모하고 국내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전랑외교]를 펼쳐가며 서방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중국식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2021년3월18일 미국 알라스카주에서 회담때 중국의 외교담당 최고 지도자인 양제츠의 발언)

「新冷戦」の構造と特徴 [신냉전]의 구조와 특징



「新冷戦」の構造と特徴 [신냉전]의 구조와 특징

米ソ冷戦(「旧冷戦」と称する)の時期と比較すると「米中新冷戦」は以下の5つ特徴を持つ。

- ① 非対称性
- ② 経済のデカップリング
- ③ 同盟対非同盟
- ④ 最前線がヨーロッパから、東アジアにシフト
- ⑤ 既存秩序VS新秩序
- ⑥ 経済的な相互依存構造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形成

미소냉전(구냉전)의 시기에 비교하면 [미중신냉전]은 아래와 같은 5개 특징이 있다.

- ① 비대칭성
- ② 경제적 디커플링
- ③ 동맹과 비동맹
- ④ 최전선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전
- ⑤ 기존질서와 새질서
- ⑥ 경제적 상호의존 구조와 공급망의 형성

Ⅱ. 中国の大国戦略と世界秩序への挑戦 중국의 대국전략과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

21世紀初頭に南北逆転・東西逆転への胎動

* アメリカの覇権衰退が加速し、世界経済における南北(先進国対新興国)逆転現象と東西(アジア対欧米)逆転の動きが複合しつつ進展。
* 2014年中国の購買力平価(PPP、IMF推計)GDPが米国を超える。

21세기에 들어서 남북역전과 동서역전이 태동

* 미국의 패권쇠퇴가 가속, 세계경제에서의 남북역전(선진국 VS 발전 도상국) 현상.
* 동서역전도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중.
* 2014년 중국의 구매력평가(PPP、IMF추계)GDP가 미국을 초월.

新興G7の経済力(PPPのGDP)が先進G7を抜いた。

(IMF2018推計)

先進国G7: GDP(PPP)34兆5千億ドル(米英仏独伊日加)

新興国G7: GDP(PPP)37兆8千億ドル(BRICs4カ国、インドネシア、メキシコ、トルコ)

신흥 G7의 경제력(PPP의GDP)가 선진국 G7을 초월.

(IMF2018년추계)

선진국 G7GDP34.5조달러

신흥국G7GDP37.8 조달러(BRICs4개국、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 国力増強を背景に、中国の習近平政権は大国外交戦略を積極的に打ち出す。

* 2013年から、習近平は「**一帯一路**」構想を打ち出し、「一帯一路基金」も設立。

* 中国を中心に、2015年「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設立(16年に57ヶ国、2020年10月現在100ヶ国が加盟)。

* 「上海協力機構(SCO)」による国際銀行の設立。

* 「BRICS国際銀行」の設立など、いずれも中国が主導

* 強力な経済力を背景に、アジア、アフリカ、中東、南米の第3世界に積極的に経済進出し、先進国にも進出(ギリシャやイタリアなど)。

* 国力増強を 배경으로 중국의 시진핑정권은 대국외교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2013년부터 [일대일로]구상을 제기, 동기금도 설립.

* 중국을 중심으로 2015년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16년에 57개국, 2020년10월100개국 가맹).

* 「상해협력기구(SCO)」에 의한 국제은행 설립.

* 「BRICS국제은행」설립등은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강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주등 제3세계에 적극적으로 경제진출. 선진국에도 진출(그리스,이태리)

Ⅲ. 中国経済の現状と展望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国内の深刻な構造的問題

①經濟成長率が急速に低下:
政府の発表ではGDP成長率は6.5%(2018年)だが、実態經濟を反映していない

(実態は1.67%、またはマイナス成長だと内部資料で推計、中国人民大学の向松祚教授の報告による)。

2020-22年はコロナ禍のなかで他国よりはGDPの高い成長率を見せたが、それは実態を反映せず、信憑性が低い数字。

②不動産バブル、金融バブル崩壊の危険性。政府や企業の債務がGDPの2.5倍~10倍。貨幣M2の発行量が日米欧合計額より多い

③民間企業の萎縮、「国進民退」現状が顕著。新たな「公私合営」による民間企業の「国有化」と「薙刈り」で財政逼迫に対応。

④失業問題: 製造業や貿易企業、飲食業等の倒産急増(失業者が急増)、コロナ禍で失業者1億人以上と推計される。

⑤資本逃避: 外国企業の拠点を第三国に移転。国内富裕層の海外資金移転。資本逃避の規模は15年後半で年間1兆ドル(外貨準備が1兆ドル減少)。国内の投資家や富裕層による資金の海外移転。

국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①경제성장율의 급속 하강:
정부가 발표한 GDP성장율은 6.5%(2018년)이나 실태경제를 반영하지 않고(실태는1.67%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재부자료의 추계가 중국인민대학의 상송조교수의 보고에 의함)。

2020-22년, 코로나 사태중에 다른나라에 비하면 성장율이 높다고 하나 실태를 반영하지 않기에 신뢰성이 낮다.

②부동산 버블, 금융 버블 붕괴이 위험성이 높다. 정부와 기업의 부채가 GDP의2.5~10배. 화폐M2의 발행량이 미일구 총합보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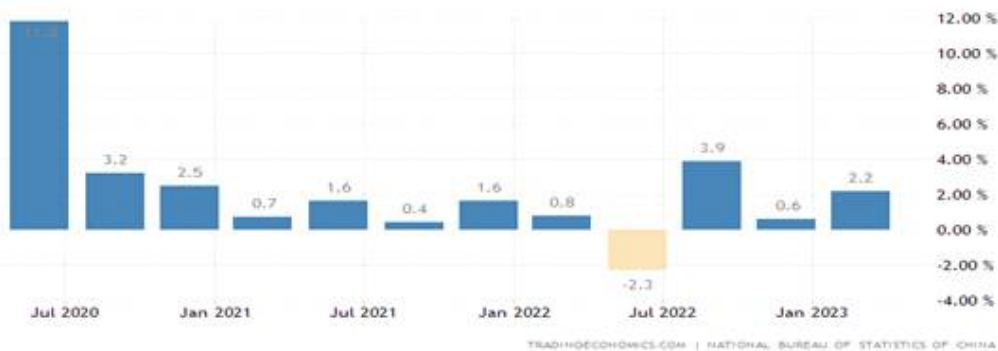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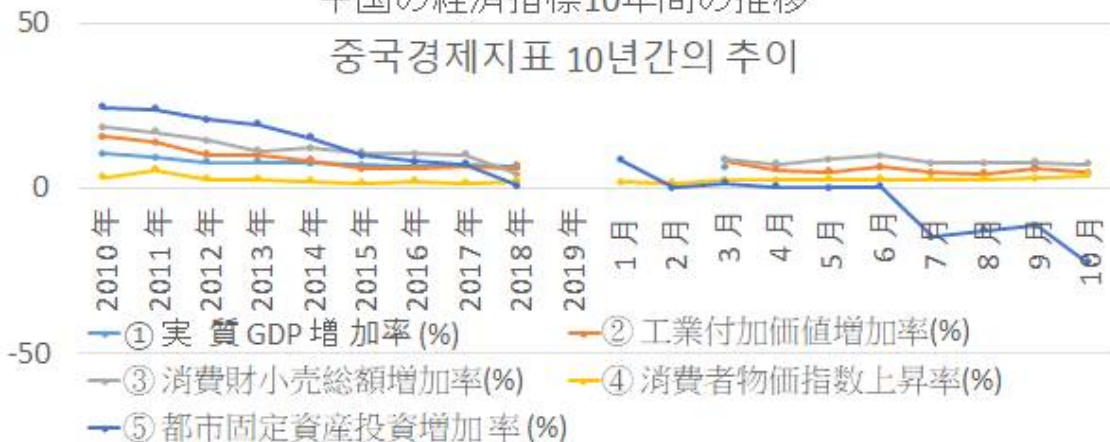
③민간기업의 위축과 「국진민퇴」현상이 현저하고 새로운「공사 합영」에 의한 민간기업의 「국유화」와 「부추베기」로 재정 압박에 대응.

④실업문제: 제조업과 무역기업, 음식업등 부도가 급증,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⑤자본의 도피: 외자기업들은 제3국에 거점을 이전. 국내부유층은 해외로 자금을 이전. 자본 도피 규모는 2015년 1조달러 규모.

中国の経済指標10年間の推移

중국경제지표 10년간의 추이



「中進国の罠」と「体制移行の罠」

「中進国の罠」懸念の理由

- ① 勤労者の所得上昇とコスト増加で製品の国際競争力が低下。
- ② 輸出主導→内需主導へと転換、構造改革は進まない。
- ③ 貿易自由化、資本自由化が許されず、第2次産業の十分な発展を邪魔する。
- ④ 国有企業の改革が進まず、生産性が低く、イノベーション力が弱い(ゾンビ企業の大量発生)。にもかかわらず、国有企業を強化し、民間企業を抑制する「国進民退」常態化。
- ⑤ 民営企業が弱体化(とりわけ製造業と輸出が不振)。
- ⑥ 不動産、金融バブルの崩壊による国内景気の低迷、インフレ拡大の懸念。

「중진국가의 덩」과「체제이행의 덩」

중진국가의 덩이 될 이유

- ① 근로자 소득상승과 코스트증가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
- ② 수출주도→내수주도로 전환과 구조개혁이 부진함.
- ③ 무역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가 허용되지 않기에 제2차산업의 발전의 장애가 된다.
- ④ 국유기업의 개혁이 부진하고 생산성이 낮고 이노베이션력이 약하다(좀비기업이 대량발생). 하지만 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국진민퇴」가 상태화되고 있다
- ⑤ 민영기업의 약화로 특히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함.
- ⑥ 부동산과 금융버블의 붕괴가 되면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이플레션의 확대가 우려된다.

「体制移行の罅」:

清華大学凱風發展研討院・社会發展研討課題組(2012)の報告

＊市場移行過程で形成された既得権益集団が、現状維持を求めて改革深化を阻止し、移行期の特徴を具現化した体制を定型化し、その利益を最大化するのに有利な「混合型体制」を構築して、経済社会發展の奇形化と経済社会問題の深刻化をもたらしている。「中所得の罅」が経済停滞を招来するのに対して、「体制移行の罅」は経済社会發展の奇形化。

5つの「病状」

- ① 經濟發展が奇形化
- ② 移行期の体制の定着化に伴い、体制改革は窮地、とくに政治改革は放置
- ③ 社会構造が固定化、分断社会が形成
- ④ 社会矛盾に対する誤った判断に基づき、「社会の安定維持」を最優先する政策
- ⑤ 社会の崩壊が日増しに顕著。

「체제 이행의 덫」

청화대학 카이펑(凱風)발전연구원의 사회발전연구 과제팀의 2012년차 보고

＊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기득 이익집단이 현상유지를 요구하여 개혁의 심화를 저지시킬려고 하며 이행기의 특징을 구현화한 체제를 정형화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유리한 「혼합형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사회발전의 기형화 문제를 심각화 하고 있음。「중진국의 덫」이 경제의 정체를 도래하는데 대하여 「체제 이행 의 덫」은 경제사회발전의 기형화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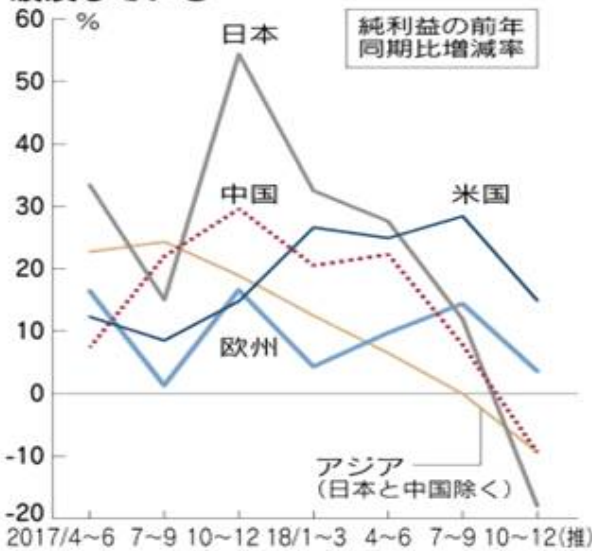
5가지의「병」

- ① 경제발전의 기형화
- ② 이행기체제의 정착화에 따라 체제개혁이 궁지로 특히 정치개혁이 방치상태
- ③ 사회구조의 고정화와 분단사회의 형성
- ④ 사회모순에 대한 틀린판단에 근거해 「사회적 안정유지」를 최우선하는 정책
- ⑤ 사회의 붕괴가 날따라 현저해짐.

IV. 東北アジア經濟に与える影響 동북아경제에 주는 영향

中国景気の減速が世界の企業業績に波及している

日本經濟新聞20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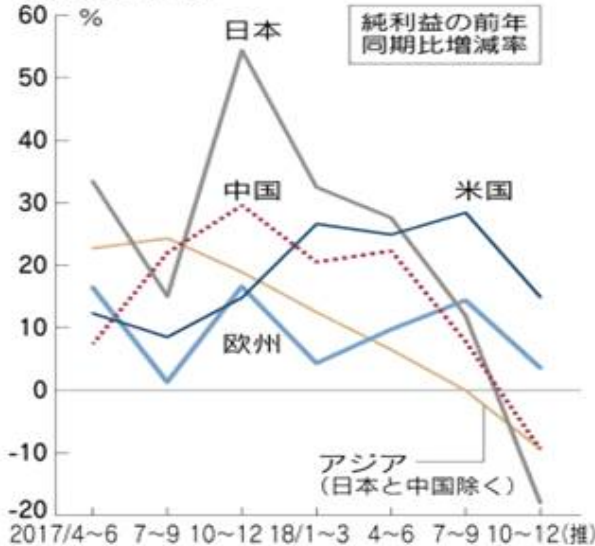
(注)日本は1日までの発表分。中国とアジアは「Asia300」企業、米国はS&P500、欧州はSTOXX600の構成企業。いずれも継続比較ができない企業などを除く。アナリスト予想平均は米欧はリフィニティブ、その他はQUICK・ファクトセットのデータを使用

2018年10~12月期は中国が前年同期比で最終減益で、日本やアジアもマイナス。日本の最終減益は2年半(10四半期)ぶり。米欧も7~9月に比べ増益率が鈍った。

「世界の消費地」となった中国の景気が減速し、悪影響が広がっている。米中貿易摩擦やスマートフォン(スマホ)市場の飽和も響いた。約2年間にわたって続いてきた企業業績の拡大基調が途切れるようなら、世界経済への逆風となる。

IV. 東北アジア経済に与える影響 동북아경제에 주는 영향

中国景気の減速が世界の企業業績に波及している



(注)日本は1日までの発表分。中国とアジアは「Asia300」企業、米国はS&P500、欧州はSTOXX600の構成企業。いずれも継続比較ができない企業などを除く。アナリスト予想平均は米欧はリフィニティブ、その他はQUICK・ファクトセットのデータを使用

중국의 경기감속이 세계의 기업업적에 파급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2019.2.4)

2018년10~12월기의 중국경제의 전기대비 최종 이익감소로 일본과 아시아도 마이너스로 됨.

일본의 최종 이익감소와 2년반 이래 (10개의4분기) 구미도 7~9월에 비해 이익률이 둔화됨. 「세계의 소비지」 중국의 경기감속에 의한 악영향이 확산. 미중무역마찰이거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도 영향주고 있음. 약2년간 계속되던 기업업적의 확대기조가 끈기계 되면 세계경제에도 역풍이 된다.

* 米中覇権争いは、中国および東北アジア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東北アジアでは、日中をはじめ広範なサプライ・チェーン生産・販売構造になっているが、構造転換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

* 中国で生産している日本企業、韓国企業など外国企業(とりわけ対米輸出企業)大きな打撃になる。中国に拠点を置いた外資系企業は東南アジアやインド等に拠点を移す動きがあり、資本逃避が日増しに強まっている。

* 미중패권쟁탈전은 중국 및 동북아 지역경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중 한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급망 즉 생산과 판매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부득불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됨.

*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기업등 외자기업(특히는 대미수출 기업)들은 큰타격을 받고 있음. 외자 기업들은 동남아 나 인도등에 거점을 이전 하여 자본도피가 갈수록 심.

* 2019年3月、香港最大の長江和記実業の李嘉誠氏の中国資産(香港を含む)が総額ベースで1割に縮小し、欧州資産は5割を超えた。

李氏が中国撤退の英断を下したのは、2013年頃と推定、同年10月、建設中の上海陸家嘴東方匯経中心(OFC)を90億香港ドルで売却した。

台湾の企業も中国から撤退が進む。

* 2019년3월 홍콩 최대의 장각화기기업의 리자청씨의 중국에서의 자산(홍콩을 포함)이 총액베스로 10% 축소. 유럽에서의 자산은 절반을 넘었다.

리씨가 중국 철퇴의 결단을 내린 것은 2013년경으로 추정. 그해 10월에 건설 중의 상해 루자주의 동방후이징 중심(OFC)를 90억 홍콩 달러로 매각.

대만의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퇴가 많아지고 있다.

V. 東北アジアの「地政学」と「地経学」 동북아 [지정학]과 [지경학]

「地政学」は地理的条件、歴史、民族、宗教、資源、人口などをベースに、国際情勢を分析する。地政学的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経済を武器として使うこと—それが「地経学」。「地政学的な利益を、経済的手段で実現しようという政治・外交手法」
米中の貿易をはじめ、ジオエコノミクス(Geo-economics)の闘い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両国の覇権争いは、かつての米ソ冷戦とは違う。AI、5G、自動運転などの新技術をめぐる競争も重なる中、経済安全保障、経済制裁、技術覇権など、地経学が扱うべき課題は多い

(船橋 洋一『地経学とは何か』(文春新書2020))



V. 東北アジアの「地政学」と「地経学」 동북아 [지정학]과 [지경학]

「지정학」은 지리적조건, 역사, 민족, 종교, 자원, 인구등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학문.

지정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를 무기로 쓰는것이 곧 「지경학」. 다시말하면 「지정학적 이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 회교수법」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바로 Geo-economics의 싸움이다. 양국의 패권쟁탈전은 예전의 미소냉전과는 다르다. AI, 5G, 자동운전등 새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경제안전보장, 경제제재, 기술패권등 지경학이 취급할 과제는 많다.

(후나바시 요이치 『지경학이란 무엇인가』 (文春新書2020)



米中両国の「新冷戦」は、2国間摩擦を超えて、地球規模で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

トランプ政権時代に始めた摩擦や対立は、今や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はからは全面的な外交対立に進化し、民主主義国家「連合」対中国(+@:ロシア、イラン、北朝鮮など)への全面的な対立へと拡大しつつある。そして貿易摩擦中心から、人権外交中心へと外延が拡大しつつある。

미중양국의 「신냉전」은 2개 나라의 마찰수준을 넘어 지구적 규모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정권 시대에 시작한 무역 마찰과 대립은 지금 조 바이덴 정권시대에는 전면적 외교대립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 국가연합] 대 [중국+@:로시아, 이란, 북한등)으로 확대.

그리고 무역마찰로 부터 인권외교를 포함한 가치관 대립으로 외연이 확대됨.

* その中で、東北アジア地域では、地政学的に朝鮮半島を中心に大国外交の焦点にあり、米国と同盟関係にある日本や韓国は厳しい選択を余儀なくされつつある。

* 日本は日米同盟を強化する動きに出ており、日中関係は停滞しつつある。

* 韓国は民主党政権のもとで韓米同盟が揺らいで、安全保障は米国、経済は中国という二股戦略だったが、

尹錫悦政権では韓米同盟強化に乗り出し、韓国民の対中国世論は悪化している。

*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외교의 교착지이며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엄연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음.

* 일본은 일미동맹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일중관계는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 민주당정권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윤석열 한나라당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에 기울여지고 있으며 한국민의 대중여론은 악화됨.

* 東北アジア地域では、かつての冷戦対立構造で二つの「鉄の三角」が形成され厳しい対立と対峙が続いてきたが、

その冷戦構造はこの地域では完全に解消されず、新しい局面で再現する可能性すら出ている。

* 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後退しつつあり、ナショナリズムが改めて台頭する。

*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 대립구조 속에서 두개의 「철의 삼각」이 형성되어 엄연한 대립과 대치가 지속되어 왔는데 세계적 탈냉전 시대에도 냉전이 해소되지 않고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

* 경제적 글로벌화는 후퇴되고 있으며 내셔널리즘이 또 대두하고 있다.

[지정토론 4]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金元鎬

韓國外國語大學

國際地域大學院

名譽教授

리강철 소장의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지정토론문

2023.8.21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

1.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

미국은 약 40년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며 매년 중국인 3000명의 미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10만 명씩 보내라”고 말할 정도로 과학기술 습득의 문을 열어줬다. 미국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중국을 편입함으로써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했다. 유럽이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해 유럽연합을 출범시키자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보다 3개월 앞서 중국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시켜 대응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2001년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부상의 산파역을 담당했다.¹⁾

미국과 중국간의 밀월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는 한편으로, 중국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며 군비를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즉,

- 중국경제는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계획 이후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여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는 산업 전략을 수립했다. 2014년 중국의 PPP기준 GDP는 미국을 추월했고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 위협으로 등장했다.
- 2012년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유시장 질서와의 거리를

1) 拙稿, “중국 견제’ 쏟아내는 바이든.” 한국경제신문, 2023.3.20.

더 두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의 자금력과 세계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13년 일대일로사업(BRI),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기치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에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2차 세계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을”²⁾ 추진했다.

2. 미국의 대응전략의 변천

그동안 미국의 대응 선택지는 네 가지였다.³⁾

- 첫째, 중국의 경제발전이 종국적으로 사회·정치 변화를 초래하기를 기다리거나,
- 둘째, 당분간 중국과 ‘투톱’(G2)을 이루어 중국이 세계리더가 되기까지 학습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순조로운 패권 이행을 수용하거나,
- 셋째, 미국 스스로 혁신을 가속화하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든가,
- 넷째,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억제하든가였다.

첫째 선택은 시진핑의 등장 이후 효력을 잃었다.

둘째 선택은 ‘미국은 쇠퇴하는가’ ‘중국은 패권 후계자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째, 즉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한 채 중국과 경쟁해 이기는 대안을 택하여 중국을 배제한 APEC내 12개국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타결시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이 미국 내 소외계층을 양산한다는 점을 부각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 직후 미국의 TPP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오바마 전략은 무산되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초래한 중국뿐만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무역 제재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특화된 전략을 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성장억제를 시도했다. 바이든의 대중국 봉쇄전략은 자신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냉전

2) Yang Jiemin, Keynote speech at CELAO 2023, Shanghai University, Aug. 5, 2023.

3) Ashley J. Tellis, “The geopolitics of the TTIP and the TPP,” in Sanjaya Baru and Suvi Dogra, eds., *Power Shifts and New Bloc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IISS, 2015), pp. 93-120.

구도 속에서 QUAD, AUKUS 등 안보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는 경제협력체로 대변된다. 즉, 중국 견제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기술 보유국과 중국 간의 연결고리를 제한하며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3.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과연 미·중 패권경쟁의 결말은 무엇인가.

토론자는 양국 모두 승자가 아닐 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감속은 지난 30년간 글로벌가치사슬(GVC)로 얽힌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계획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과신했던 바, 이미 코로나19, 인구감소, 부동산버블 (부동산 산업의 침체와 대형 개발업체의 디폴트 가능성), 민간기업의 투자위축, 미국의 제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경제활력을 잃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도 이미 경험한 바,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저조 (내수소비 및 수출 부진) 및 사상 최대의 실업률 등 거시경제불안정은 미국 경제 추월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신산업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었던 배경은 2018년 이래 지속되어온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대한 미 정가의 유례없는 여야간 공감대 덕분이었다.⁴⁾ 즉, 중국의 위협이 악화될수록 미국 정가의 공감대는 선거철마다, 대중 기술수출 및 투자보쇄정책과 신산업정책의 비용에 대한 지지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점차 넓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바이든의 대중 보쇄정책은 미국내, 동맹진영내, Global South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 미국기업들은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편익을 누리왔다. 또한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미 첨단기술 업계는 중국과의 decoupling (분리, 단절, 배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계최대인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의 모순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내에서도 Janet Yellen재무장관은 decoupling 개념에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왔

4) UC San Diego Congress Tweets Project, <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how-does-congress-feel-about-china/>

고, 지난 7월 중국방문에서는 핵심공급망(critical supply chains)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하는 decoupling 대신 핵심공급망 다양화(diversifying)가 미국의 정책노선임을 주장했다.⁵⁾

-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 등 많은 개도권 경제는 탈글로벌 추세가 가져오는 비용상승 및 성장저하라는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decoupling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de-risking (위험최소화, 다변화) 개념을 강조했다.⁶⁾
- Global South로 일컬어지는 국가들 (인도,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125개국)은 미중 경쟁의 어부지리를 노리며 양다리 (fence-sitting) 전략 또는 비동맹노선을 추구하고 있다.⁷⁾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신세계질서는 공급망 재편을 기조로 한 지역파편화 (regional fragmentation) 또는 블록경제이다. 세계는 이미 과거 냉전시대에 블록경제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냉전종식후 글로벌경제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시대 (The Pacific Age)’의 도래를 목격했다. 대결은 아시아시대와 G-2시대의 종언을 재촉할 뿐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론과 이에 대한 봉쇄전략의 선택은 패배주의의 표현으로 미국의 자신감 상실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따르려면 첫째, 미국이 신산업정책에서 한국에 충분한 경제적 비용 보상을 약속하고, 둘째, 한국이 de-risking을 위한 공급망다변화 및 기술개발 준비가 돼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세계무역 질서의 파행이 더 장기화하기 전에 중국경제 확장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2018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한국에게는 이를 위한 조건 성숙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실리적인 것이다.

5) *New York Times*. “3 Takeaways From Janet Yellen’s Trip to Beijing.” <https://www.nytimes.com/2023/07/09/business/janet-yellen-china-trip.html?searchResultPosition=31>.

6) *New York Times*. “How ‘Decoupling’ From China Became ‘De-risking’.” <https://www.nytimes.com/2023/05/20/world/decoupling-china-de-risking.html>.

7) Alexander Stubb, “The west must learn from its mistakes if it wants to shape the new world order,” *Financial Times*. May 10, 2023.

李鋼哲所長の「米中覇権競争時代の地政学と地域協力の新たな課題」について 討論文

2023.8.21

キム・ウォンホ（韓国外国語大学国際地域大学院名誉教授）

1. 米・中覇権競争の背景

米国は約40年間、中国の経済成長及び技術発展を主導的に導いた張本人である。1978年、鄧小平が改革開放を主導し、毎年中国人3000人の米国留学を決定したとき、ジミー・カーター当時、米国大統領は「10万人ずつ送ろう」と言うほど科学技術習得の扉を開けた。米国は国際自由貿易秩序に中国を編入することでソ連を崩壊させ、冷戦で勝利した。欧州が1992年2月、マストリヒト条約(Maastricht Treaty)を締結して欧州連合を発足させると、ジョージ・ブッシュ政権はこれより3カ月早く中国を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に加入させて対応した。ビル・クリントン政権は、2001年、中国が社会主義経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世界貿易機関(WTO)加入を支援することで中国の浮上の産婆役を担当した。

米国と中国間の蜜月関係に変化が起き始めた原因は、中国の経済規模が米国経済を追い越すという懸念がある一方で、中国が共産党独裁を強化して軍備を拡張してきたためである。つまり、

- 中国経済は2006年の国家中長期科学技術計画以来、急速に技術発展を遂げ始め、2015年には「中国製造2025」を発表し、製造業基盤の育成と技術革新、グリーン成長などを通じて中国の経済モデルを「量的成長'から'質的成長'に変えるという産業戦略を樹立した。2014年、中国のPPP基準GDPは米国を追い越し、中国の産業技術政策は世界第1の経済大国である米国に脅威として登場したのである。
- 2012年の権力を掌握した習近平国家主席は、前任者とは異なり、中央政府と共産党の権限を強化し、権力を集中させることで自由市場秩序との距離をさらに置き始めた。また、中国の資金力と世界市場の支配力をもとに、2013年の一帯一路事業(BRI)、2015年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などを基に、アジア、中東、アフリカ、ヨーロッパ、中南米への影響力を拡大し、「2次世界大戦後、米国を中心に構築された国際経済秩序の改革を推進したのである。

2. 米国の対応戦略の変遷

これまで米国の対応選択肢は4つだったのである。

- 第1に、中国の経済発展が終局的に社会・政治変化を招くのを待ったり、
- 第2に、しばらく中国と「ツートップ」(G2)を行い、中国が世界リーダーになるまで学習過程を経ることで、順調な覇権履行を受け入れたり、
- 第3に、米国自らイノベーションを加速し、中国の追撃を根絶するか、
- 第4に、中国が成長しないように国際政治・経済的に抑制するかどうかだった。

第1の選択は習近平の登場以来、効力を失った。

第2の選択は「米国は衰退するか」「中国は覇権後継者として適切か」という質問に肯定的な答えが必要だったが、そうではなかった。

バラク・オバマ大統領は第3、すなわち世界自由貿易秩序を維持したまま中国と競争して勝つ代案を選び、中国を排除したAPEC内12カ国環太平洋同伴者協定(TPP)を妥結させた。しか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自由貿易が米国内の疎外階層を量産するという点を浮き彫りに大統領選挙で勝利し、就任直後に米国のTPP脱退を決定することで、オバマ戦略は無産となった。その代わり、トランプ政権は、米国に貿易赤字をもたらした中国だけでなく、同盟国である韓国を含む主要貿易相手国に貿易制裁または自由貿易協定(FTA)再交渉で圧迫することで、事実上中国に特化した戦略を展開するとは見えない。

一方、ジョーバイデン政権はトランプ政権が始めた中国産輸入品に対する高率関税賦課と先端技術の対中国輸出統制を拡大しながら中国の成長抑制を試みた。バイデンの対中国封鎖戦略は、自身が提示したインド・太平洋戦略と新冷戦構図の中でQUAD、AUKUSなど安保同盟と、インド・太平洋経済フレームワーク(IPEF)という経済協力体に代弁される。つまり、中国牽制安保同盟を強化し、技術保有国と中国間の連結を制限し、米国内の製造業を復活させることである。

3.米・中覇権競争の展望と韓国の選択

果たして米・中覇権競争の結末は何か。

討論者は両国とも勝者ではないだけでなく、中国経済の減速は過去30年間、グローバル価値チェーン(GVC)にまつわる世界経済に悪影響を及ぼすと考える。

中国は計画経済の成長潜在力について過信していたところ、すでにコロナ19、人口減少、不動産バブル(不動産産業の低迷と大型開発業者のデフォルト可能性)、民間企業の投資萎縮、米国の制裁などの複合的な要因で最近経済活力を失っ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これは日本や韓国もすでに経験したことで、経済が成熟期に入って成長が鈍化しているためでもある。結局、最近中国の成長率の低調(内需消費及び輸出不振)や史上最大の失業率などマクロ経済不安定は米国経済の追い越しの可能性を低下させてい

る。

これまでバイデン政権が新産業政策を押し出すことができた背景は、2018年以来持続してきた中国殴打(China bashing)に対する米政界の由来のない与野間共感帯のおかげだったのである。つまり、中国の脅威が弱まるほど、米国政界の共感帯は選挙時期ごとに、対中技術輸出及び投資封鎖政策と新産業政策の費用に対する支持勢力の立場によって徐々に薄くなるしかない。

さらに、バイデンの対中封鎖政策は米国内、同盟陣営内、Global Southから挑戦を受けている。

- 米国企業はグローバル自由貿易秩序の中でアウトソーシングを通じて中国経済成長の便益を享受してきた。また、半導体産業をはじめとする米の先端技術業界は、中国とのデカップリング(分離、断絶、排除)が現実的に不可能で、世界最大の中国市場への接近制限の矛盾を指摘してきた。バイデン政権内でも、Janet Yellen財務長官はdecouplingの概念に異見を持っていることが知られており、7月の中国訪問では、コアサプライチェーン(critical supply chains)からの中国排除を意味するdecouplingの代わりにコア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diversifying)が米国の政策路線であると主張した。

- 韓国、日本を含むアジア同盟国など多くの開発途上国圏の経済は、脱グローバル傾向がもたらすユスト上昇及び成長低下という不利益に直面している。ウルジュラ・ボンデアライエン(Ursula von der Leyen) EU執行委員長も去る3月、欧州はトランプ政権が開始したdecouplingに従わないとし、de-risking(危険最小化、多様化)概念を強調した。

- Global Southと呼ばれる国(インド、南アフリカ、ブラジル、インドネシア、トルコ、サウジアラビアなど125カ国)は、米中競争の漁夫の利を狙い、両足(fence-sitting)戦略または非同盟路線を追求している。

バイデン政権が追求する新世界秩序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を基調とした地域破片化(regional fragmentation)またはブロック経済である。世界はすでに過去の冷戦時代にブロック経済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そして冷戦終息後、グローバル経済の拡散による世界経済の急速な成長と「アジア太平洋経済時代(The Pacific Age)」の到来を目撃した。対決はアジア時代とG-2時代の終言を促すだけである。また、中国経済の米国追越し論とこれに対する封鎖戦略の選択は、敗北主義の表現で米国の自信喪失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がバイデン政権の戦略に従うには、まず、米国が新産業政策で韓国に十分な経済的費用補償を約束し、第二に、韓国が脱riskingのためのサプライチェーン多様化と技術開発の準備ができているという二つの条件が満た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韓国のための最善のシナリオは、世界貿易秩序の跳躍がさらに長期化する前に中国経済拡張の限界が確認され、世界経済秩序が2018年以前に

復帰することなので、韓国にはこのための条件成熟のために多角的に努力するのが実理的だろう。

拙告、「中国の牽制」を注ぐバイデン、韓国経済新聞、2023.3.20。

Yang Jiemian, Keynote speech at CELAO 2023, Shanghai University, Aug. 5, 2023.

Ashley J. Tellis, "The geopolitics of the TTIP and the TPP," in Sanjaya Baru and Suvi Dogra, eds., *Power Shifts and New Bloc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IISS, 2015), pp. 93-120.

UC San Diego Congress Tweets Project,
<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how-does-congress-feel-about-china/>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3 Takeaways From Janet Yellen's Trip to Beijing,」
<https://www.nytimes.com/2023/07/09/business/janet-yellen-china-trip.html?searchResultPosition=31>。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How 'Decoupling' From China Became 'De-risking'," <https://www.nytimes.com/2023/05/20/world/decoupling-china-de-risking.html>。

Alexander Stubb, "The west must learn from its mistakes if it wants to shape the new world order," *Financial Times*. May 10, 2023.

[제 2 세션]

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

座長: 佐渡友 哲
日本大学大学院 教授

[발표 1]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川口 智彦

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 教授

INAF理事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니혼대학
가와구치 도모히코

1. 필자의 연구 배경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이유는 주변에 제일 동포들도 많았고 또 북과 남한의 라디오 방송도 청취하였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한국 중앙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귀국 후 호세이대학 부설 경제연구소 외부 연구원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문제 (1985-1991), 중국의 산업발전과 노동문제, 중국조선족자치주의 경제 (1992-1998) 등을 연구하였고 2010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여 왔다. 북한에 관하여는 대학 심포지엄 등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여 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표면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2010년의 북한 방문이었다. 그 때 당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북에 인접한 중국 단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 방문을 통해서 강하게 느낀 것은 북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였던 필자가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 것이 바로 2010년부터 북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는 필자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려고 한다.

2. 놀았던 몇 가지 사례들

방북하기 전까지는 북이 발신하는 정보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필자 자신도 북이 말하는 것들은 거짓이 뿐이라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여러 의미에서 스테레오 타이프화 된 북한관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그런 상태로 방북을 하였다는 셈이다.

(1) 반미 국가에서 영어 교육

북한이 반미 국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적들의 언어인 영어는 배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 한복판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미국의 디즈니 영화 미키 마

우스를 보여 주면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영어는 말하자면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이 싫든 싫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배워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실 문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한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시켜 보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어로 대답하였다.

이 일과 연관해서 말하면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2012년 북한에서는 모란봉악단이라는 여성 악단이 출현하였다. 그 시범공연에는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나타나 공연 무대에서 춤을 추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2010년 당시 필자와 같이 “반미 국가인데 왜?”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북한에는 문학이나 만화의 한 종류로 “세계명작”이라는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종류 안에는 디즈니 영화도 포함되어 있고 북에서도 DVD 판매점 등으로 가면 디즈니 영화가 수록된 DVD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2014년에 라선에 간 적에는 여성 영어 안내원이 그 때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겨울왕국”에 대하여 열심히 물어 왔던 일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2) 사회주의 국가가 남한보다 더 유교적

필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있었던”이라고 해야 할지) 유교적인 풍습이나 관습을 19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체류하였을 때에 많이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유교적 풍습을 포함한 봉건적인 유산들은 모두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측 판문점에 갔을 때 일이었다. 일본어 안내원들은 필자가 한국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을 안내하는 인민군 군관과 필자만 남기고 담배를 피우러 가고 말았다. 군관은 일제의 후손을 보는 듯 아주 불쾌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는데 필자가 한국어를 하는 줄을 안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고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러기까지 필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아닌가,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이 조선말을 할리가 없다 등 많을 질문이 있었지만.

필자가 대학교수라고 말하자 군관이 설날에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왔다. 필자가 가족이랑 조용히 지낸다고 대답하더니 군관이 바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더니 군관은 제자들이 설인사를 올리러 오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북한에서는 설날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설인사를 올리러 가는 유교적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날에 스승에게 인사를 올리는 습관은 옛 일본에도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도

20세기 말까지는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후 북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는 여러 유교적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자를 “아버이”로 모시는 것 그 자체가 유교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해의 중요성

위에 쓴 사례들은 처음으로 방북한 며칠 동안에 보고 느끼고 알게 된 몇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자를 포함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북한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스테레오 타입에 사로잡혀 있다. 북한이라고 하면 핵 미사일 인권이라는 말들만 떠오르고 독재자의 억압 속에서 굶어 죽는 인민들만 상상이 된다. 그것은 서방 매체들이 그러한 측면만 강조하여 보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가 그 지점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일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잘못된 또는 나쁜 나라, 불상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옳고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나라이기에 우리가 고쳐 주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조차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그러한 선입관들을 다 버리고 보아야 한다. 그 일은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문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측이 옳고 어느 측이 틀렸다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간에는 아직 많은 갈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차이를 서로의 문화로서 평가하는 지점까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가 다른 북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사회제도를 가지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그것도 아주 독특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는 북한이 하루 아침에 그 제도를 바꿀 가능성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한반도 북반부에 자리 잡은 북한을 탄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을 큰 덩어리로 보지 말고 사람이 사는 사회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는 역시 사람들이 웃고

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면 공통 점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법이다. 그 몇 가지 사례는 벌써 위에 썼고 같은 민족인 한국인이라면 외국인인 필자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가 우리보다 제한된 북한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남한을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한 상황을 번히 알면서 그러한 주장만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측이 먼저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북을 알자는 주장이 친북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본을 아는 것과 친일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일본을 잘 알면서 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알아서 하는 비판만큼 설득력도 크다. 친북과 지(知)북은 완전히 다르다.

4.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실지적 방법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여도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도 지금까지 세번 방북하였지만 일본인일 경우 비자 신청 등 수속면에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더라도 비용면에서는 부담이 아주 컸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손쉽게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고 그럼으로 북한을 아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1차 정보를 얻는 방법은 북한이 발행하는 “로동신문” 등 종이 매체를 참조하거나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북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신을 점점 시작하였고 2012년경에는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사이트가 생겼다. 그 후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현재는 50개를 넘는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북한 사이트들을 쉽게 볼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 알아보면 얼마든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매체 중에서도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조선중앙텔레비죤”이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된 프로의 일부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일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필자는 주로 총련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미국에 있는 북한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스트리밍을 시청하는데 과거에는 한국내에 있는 어느 한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시청한 적이 있다 (지금 그 사이트는 잔

해만 남아있다).

5.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시청하면서

“조선중앙텔레비죤”은 2022년5월까지 월요일-금요일은 15시-22시반 경,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22시반경 방송되어 있었으나 2022년5월 북한에서 시형 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방송 시작이 매일 9시로 변경되었다. 방송내용은 보도, 위대성교양, 선전/선동 편집물, 화면음악, 예술영화 등 정치적인 프로가 많지만 과학영화, 사회 문화 상식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 그리고 아동방송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음악프로 교육프로 등도 방송된다.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방송과 차이가 크다. 그런데 북측 사람들은 그러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일상적으로 시청한다고 볼 때 북측 사람들의 생활을 아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모르는 말 또는 표형 그리고 행위들이 많았다. 그러나 10년 넘게 시청을 계속하는 속에서 그러한 의문들이 점점 풀렸다. “조선중앙텔레비죤” 시청은 의문을 찾고 스스로 푸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변화도 알 수 있다.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거리에서 택시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런데 텔레비죤 시청을 하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택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손전화기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필자는 2019년에 방북하였을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학자는 학문을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학자에게는 소위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도 기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되리라고 믿으면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된 프로를 유튜브에 실리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실리는 프로는 일반 사람들이 북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프로들을 뽑고 일본인 시청자들 위하여 일본어 자막을 첨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필자가 쓰는 블로그의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일본 매체 특히 일본 방송국들이 보여 주는 북한 영상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북을 헐뜯는 반응이 전반적으로 많긴 하지만 조금씩 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6. 대화의 중요성- 핑계삼아 -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방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가던 중국에 있는 조선식당에서 일하는 북에서 파견된 여종업원들과 가급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다. 대화는 북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적대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경각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말 밖에 안 해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경각성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럴 때 “조선중앙텔레비죤” 시청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된다. 그들의 조국을 깔보기만 하는 줄 아는 일본인이 텔레비죤에서 볼 수 있는 조국의 발전상이나 일상적인 일 특히 노래를 잘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실마리로 그들과 대화를 한다.

여기서 하나 고백을 하여야 한다. 실은 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 쓰려고 하던 대화는 이러한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다. 북과 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화에 대하여 쓰려고 하였다. 그 골자는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은 지금처럼 강대강 힘대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논하기에는 지면도 시간도 모자란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논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서 “대화는 북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썼는데 “대화는 평화를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日本大学
川口智彦

1. 筆者の研究背景

筆者は幼い頃から朝鮮半島に関する深い関心を持っていた。その理由は、周辺に在日朝鮮人が多く、また北と南のラジオ放送も聴取していたからだ。高校生の時から朝鮮語を学び、大学を卒業した後、韓国の中央大学校に留学した。

帰国後、法政大学附設の経済研究所の外部研究員として韓国の民主化と労働問題などを研究し、2010年からは北朝鮮に関する研究を本格的に行ってきた。北朝鮮に関しては、大学のシンポジウムなどで核問題について発表したことがあるが、振り返れば、とても表面的な研究に過ぎなかった。

北朝鮮の研究を本格的に始めた契機は2010年の北朝鮮訪問だった。その時は特別な関心を持って北朝鮮を訪れたのではないが、偶然、朝中国境に隣接した中国・丹東で開催された会議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だ。その訪問を通して強く感じたことは、北朝鮮はある程度知っていると思っていた筆者が、実は余りにも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がまさに2010年から北朝鮮を本格的に研究し始めた契機とな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背景を持つ筆者が、北朝鮮に対する理解と北朝鮮との対話の重要性について論じてみようと思う。

2. 驚いたいくつかの出来事

北朝鮮を訪問するまでは、北朝鮮が発振する情報に接する機会がほとんどなかっただけでなく、正直に言って、筆者自身も北朝鮮が言うことなど嘘ばかりだという先入観があったので、積極的に探してみようともしなかった。その結果、様々な意味でステレオタイプ化された北朝鮮観を持つことになった。筆者はそうした状態で北朝鮮を訪れたのである。

(1) 反米国家で英語教育

北朝鮮が反米国家だということは、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したがって、当然、敵共の言語である英語は教えないものとはばかり思っていた。

しかし、平壤のど真ん中にある人民大学習堂では、米国のディズニー映画、ミッキーマウスを見せながら、平凡な勤労者が英語を学んでいた。冷静に考え

れば、英語は世界の共通語だと言え、米国が嫌いか否かに関係なく教える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である。教室の入り口近くに座っていた女性に英語で話しかけてみたら、とても上手な英語で答えた。

これとの関係で言えば、金正恩総秘書執権後の2012年、北朝鮮ではモランボン楽団という女性楽団が出現した。その示範公演ではディズニー映画に登場する主人公達が現れ、公演舞台上で踊って世界を驚かせた。世の中の人々は、2010年当時の筆者のように「反米国家なのになぜ?」と思ったのであろう。

しかし、北朝鮮研究を進めながら知ったことは、北朝鮮には文学や漫画の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世界名作」というのジャンルがあるということだ。そのジャンルの中には、ディズニー映画も含まれており、北朝鮮でもDVD販売店などに行けば、ディズニー映画が収録されたDVDをいくらでも入手できる。2014年に羅先に行った時には、女性の英語案内員が当時、流行っていた「アナと雪の女王」について熱心に尋ねてきたのはとても印象的だった。

(2) 社会主義国家が韓国よりもさらに儒教的

筆者は、韓国に残っている（「残っていた」と言うべきか）儒教的な風習や監修を1980年代中盤に韓国にいた時、多く目にした。しかし、社会主義国家である北朝鮮では儒教的な風習を含む封建的な遺産は全てなくなっていた。

しかし、北側の板門店に行った時のことだ。日本語の案内員は筆者が朝鮮語を話す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板門店を案内する軍官と筆者だけを残してタバコを吸いに行ってしまった。軍官は、日程の未裔を見るようにとても不快な顔をしていたが、筆者が朝鮮語を話すことが分かってからは、態度が変わり、色々な話をし始めた。

もちろん、それまでに筆者が日本国籍の在日同胞なのか、祖先が朝鮮半島から渡来した人ではないのか、日本人が朝鮮語を話すはずがないなど、多くの質問があったのだが。

筆者が大学教授だと言うと、軍官は「正月にはどのように過ごすのか」と尋ねてきた。筆者が家族と静かに過ごすと言うと、軍官は「忙しくないのか」と言うのであった。その意味を理解できず尋ねてみると、軍官は「弟子達が正月の挨拶に来るのではないか」と言った。その言葉を聞いて北朝鮮では正月に弟子達が師匠に正月の挨拶をしに行くという儒教的な習慣が残っていることを知った。

正月に師匠に挨拶をする習慣は昔の日本にもあったと思うし、韓国にも20世紀末までは残っ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後、北朝鮮を研究する過程で

北朝鮮には様々な儒教的習慣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ことを知った。落ち着いて考えれば、指導者を「父」と呼んでいること自体が儒教的施行に基づくものだと見えよう。

3. 理解の重要性

上に書いた事例は初めて訪朝した数日間で見、感じて、知ったいくつかの事例に過ぎない。しかし、そうした事例を通して言えることは、筆者を含む日本人や韓国人があまりにも北朝鮮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だ。

我々は北朝鮮を見るとき、ステレオタイプに取り憑かれている。北朝鮮と言えば、核・ミサイル、人権という言葉だけが思い浮かび、独裁者の抑圧の中で餓死する人民が想像される。それは、西側メディアがそうした側面だけを強調して報道するからでもあるが、人々の指向がその地点で止まっていることがさらに大きな原因と言える。

また、我々は北朝鮮を見る時、誤ったあるいは悪い国、可愛そうな国という視点から見る傾向がある。換言すれば、我々が正しく、我々が上にいる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見ていると言える。そして、人によっては、そうした誤った国なので我々が正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傲慢な考えさえ抱いている。

こうした考えを持っている限り、北朝鮮を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だ。北朝鮮を理解するためには、一旦、そうした先入観を全て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言うほどに簡単なことではなく、特に同じ民族である韓国人にはさらに難しいであろう。しかし、北朝鮮を理解するためのドアの前に立つ時には、必ずそれが必要となる。

外国を理解しようとする時、違いが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どちらが正しく、どちら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観点ではなく、違いがあることを認め合うことが重要だ。日韓間には未だに多くの葛藤が残っているが、違いを認め、その違いをそれぞれの文化として評価する地点まで歳月が流れる中で至ったと言える。

社会制度が異なる北朝鮮を理解することは、同じ社会制度を持つ国を理解するよりもっと難しいであろう。しかし、社会主義、それもとても独特な社会主義制度を持つ北朝鮮が一日にしてその制度を変える可能性はなく、また朝鮮半島の北半部に位置する北朝鮮を他の場所に移動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

そして、北朝鮮を大きな塊としてみるのではなく、人々が暮らす社会として見ることも重要である。我々とは多くの違いがあるにしても、そこでもやはり

人々が笑い、泣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違いを認めながら入っていけば、共通点も多く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ものだ。そのいくつかの事例は既に上述したが、同じ民族である韓国人であれば、外国人の筆者よりももっと多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こうした主張をすると、「なぜ自分たちだけがそ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反発が出るのは当然である。しかし、現実的に自由が我々よりも制限された北朝鮮で、外国の、それも韓国を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に近いことである。そうした状況をはっきりと知りながらも、そうした主張をするのは道理に合わない。誰が先にではなく、できる側が先に踏み出さなければ何も動かない。

また、北朝鮮を知ろうという主張が「親北」と誤解される可能性もある。これは、韓日関係においてもおなじであるが、日本を知ることと「親日」になることは違う話だ。日本をよく知りながら、厳しく批判する人々はいくらでもいるし、よく知りながらする批判であるからこそ説得力も大きい。「親北」と「知北」は完全に異なる。

4. 北朝鮮を知るための実質的方法

北朝鮮を理解しようとしてもその方法には限界がある。筆者も今まで3回、訪朝したが、日本員の場合はビザ申請など手続き面ではそれほど手間がかからなくても、費用面では負担がとても大きい。したがって、韓国に行くように容易に北朝鮮を訪問することはできず、そのため、北朝鮮を知る他の方法を見つけないといけない。

インターネット普及以前までは、北朝鮮の一次情報を得る方法は北朝鮮が発行する『労働新聞』など紙媒体を参照したり、北朝鮮のラジオ放送を聴取したりするぐらいしかなかった。しかし、世界的に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する中、北朝鮮も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情報発信を徐々にし始め、2012年頃には「朝鮮中央通信」と「労働新聞」のサイトができた。その後、北朝鮮が運営する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は増加し続け、現在は50を超えるサイト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反共を国是とし、国家保安法が現存する韓国ではこうした北朝鮮サイトを容易に見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少し調べてみれば、いくらでも見る方法があるのも事実である。

北朝鮮メディアの中でも筆者が特に注目しているのは「朝鮮中央TV」である。「朝鮮中央TV」で放送された番組の一部は北朝鮮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でも

見ることができるが、今は放送開始から終了ま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ストリーミングで視聴することができる。筆者は、主として総連が運営しているサイトと米国の北朝鮮研究機関が運営するサイトのストリーミングを視聴しているが、過去には韓国内にあったある団体が運営するサイトも視聴した（いま、そのサイトは残骸だけが残っている）。

5. 「朝鮮中央TV」を視聴しながら

「朝鮮中央TV」は、2022年5月まで月～金は15時から22時半頃、童謡と日曜は9時から22時半頃まで放送していたが、2022年5月に北朝鮮で新型コロナが発生したことを契機に、放送開始時間が9時に変更された。放送内容は、報道、偉大性教養、宣伝・煽動編集物、画面音楽、芸術映画など、政治的な番組が多いが、科学映画、社会文化常識など、日常生活に役立つ情報提供をする番組、そして児童放送時間には子供達が見る漫画、音楽番組、教養番組なども放送している。

このように、放送内容を見ると韓国や日本の放送と違いが大きい。しかし、北側の人々はそのような「朝鮮中央TV」を日常的に視聴していると考えれば、北側の人々の生活を知る良い方法の一つだと言える。放送を視聴し始めた時は、知らない言葉や表現、そして行為がたくさんあった。しかし、10年超、視聴を続ける中でそうした疑問が徐々に解けた。「朝鮮中央TV」の視聴は、疑問を見つけ、自ら解くよい手段だとも言える。

そして、経済及び社会の変化も知ることができる。2010年に訪朝した時には、街にタクシーがほとんど見えなかった。ところが、テレビを視聴しながら通り過ぎるタクシーが徐々に多くなっているようだと感じた。これは、携帯電話についても言えることだ。筆者は、2019年に訪朝した時、それを直接目で確認した。

学者は学問を自分の満足を得るためだけにしてはならないと言う。学者にはいわゆる「社会に対する貢献」なるものも期待されているからだ。したがって、筆者は社会に少しでも貢献できると信じつつ「朝鮮中央TV」で放送された番組をYouTubeにアップロードすることを日常的に行っている。アップロードする番組は一般人が北の様々な側面を理解する助けになると思われる番組を選び、日本人の視聴者のために日本語字幕を添付している。

はじめには、筆者が書いているブログの参考資料程度と考えていたが、続けている中ではっきりと感じているのは、日本メディア、解くに放送局が見せる北朝鮮の映像が決して全てではないことに気付いたという反応が多くなってい

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ちろん、未だに北を中傷する反応が全般的に多いが、少しずつ他の目で見ることが出来る人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良いことだと思う。

6 . 対話の重要性 - 言い訳を兼ねて -

前述したように、訪朝は容易ではない。だから、コロナ前にはしばしば行っていた中国にある朝鮮食堂で働く来から派遣された女性重要員と積極的に多くの話をしようとしていた。対話は北を知る最も良い方法だからだ。しかし、北から北人々は、外国人、解くに敵対国から北外国人に対する警戒心がとても高いので、最小限のことしか言わないことが多い。だから、彼らと対話をするとはそれほど簡単ではない。

そのため、まず彼らの警戒心を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が、その時に「朝鮮中央TV」の視聴を通して得た知識が役立つ。彼らの祖国を見下してばかりいると思っていた日本人が、テレビで見られる祖国の発展している姿や日常的な、とりわけ歌を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のは、彼らにも嬉しいことだからだ。筆者は、そうした話を糸口に、彼らと対話をする。

ここで一つ告白しなければならない。実は、この文を書き始めた時に書こうとした「対話」は、こうした個人的な「対話」ではない。北と南、国と国の間の「対話」について書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骨子は平和で安全な環境は、今のように「強対強」、「力対力」で作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を論じるには紙面も時間も不足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問題については次に機会があれば論じようと思う。

最後に、直ぐ上で「対話は北を知る最も良い方法」と書いたが、「対話は平和を成す最も良い方法だ」という言葉を残しながらペンを置くことにする。

[지정토론 1]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丘必鉉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
Kawaguchi Domohiko 니혼대학 교수,**

**토론자 : 丘必鉉, Ph.D., abd, Int'l Political Economy, London, UK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필자의 상기 주제에 대한 연구배경은 어려서부터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관련 연구와 그후 북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반성하며, 2010년 이후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을 밝혔다.

그동안의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현지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북한의 대남 도발과 대일 도발 그리고 쌓여 있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대한 매우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상태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방북을 통한 직접적인 대화와 경험들을 소개하며, 또한 북한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특히 남한-북한 주민들의 유교사상)와 북한 관영매체에서 발행한 다양한 신문들과 50개가 넘는 각종 tv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10여년간 지속하고 있다.

필자의 동북아 평화에 대한 견해는 親북한이 아닌 知북한으로 요약되며, 북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여 북한측에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선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경제와 군사적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 (Northeast Asian region)은 지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해체와 12월 미소간 몰타선언으로 냉전 종식 이래 1992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으로 확립된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동북아 각국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공산주의 소비에트 블록경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글로벌 상호 경제협력을 거부하며 UN 측의 대북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의 개발 및 발사를 포함한 신형 무기들의 지속적인 실험 등 군사적 도발 등으로 한-미-일-중-러-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 중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중지등을 목표로 UN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2017년부터 5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반, 세 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회담 등 추진하며 남북한 직접 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남측의 끈질긴 대화를 통한 노력끝에 2018년 2월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같은 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월 19일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합의는 서로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대화였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모든 UN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WMD의 폐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UN 대북제재를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유일의 공식 대화 창구인 개성에 위치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6월 16일 폭파했으며, 또한 북한은 2018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2022년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5차례 이상 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4.25 열병식 연설과 최근 2023년 7월 27일 열병식을 통해 대남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군사퍼레이드는 전례 없이 TV를 통해 전세계로 실시간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로 인해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공존이라는 대북 대화 유화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90년 이래 구축되고 유지되어 왔던 동북아 지역의 미-일-중-러-한국간 국제 정치군사적 평화 (Balance of Power)와 글로벌 분업화의 경제적 안정 (Status quo)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오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커다란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의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주의-시장경제 vs 공산주의-공산경제 블록간 냉전구조 (Cold War)가 종식되고, 1990년 이래 지난 30년간의 글로벌 분업화 시대(Post Cold War)를 열었으나, 2022년 2월 이후 세계는 다시 자유주의-시장경제 vs 권위주의-사회주의 시장경제 블록간 신냉전구조 (New Cold War)로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Paradigm shif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system)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일-중-러 글로벌 4-big power 가 육상과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격돌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글로벌 안보 개념의 변화 및 글로벌 경제 산업 분업화의 종식 (특히, Global SCM)으로 기존의 국제 정치-군사-경제 체제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구조의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남북관계 및 통일의식 변화, 북한의 대남·통일 인식 및 담론 변화 등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신냉전시대를 대비한 기존의 전통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의 연계 및 결합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 중심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남북 관계 인식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일본의 대한반도 전문가인 Kawaguchi 교수는 기존의 대북한 관련 연구에서 금기시 된 “남북한 주민들 간 직접 소통과 대화”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담론(談論)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Kawaguchi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있어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주민들이 공유하는 “유교 문화 공동체 (Confucious Cultural Community)” 개념을 확장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수 있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시론적 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정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단초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定討論文

トピック：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理解と対話の重要性－

Kawaguchi Domohiko 日本大学教授、

討論者：丘必鉉, Ph.D., abd, Int'l Political Economy, London, UK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政策諮問委員

2023.08.06

筆者の上記テーマに対する研究背景は、幼い頃からの朝鮮半島に対する関心から始まった関連研究とその後、北朝鮮に対する理解の不足を反省し、2010年以降、北朝鮮を中心に研究を本格的に始め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これまでの日本と大韓民国で北朝鮮研究者たちは、北朝鮮現地の実状を把握できなかった状態で、過去の北朝鮮の対南挑発と対日挑発そして積み重ねられている社会主義共産国家に対する非常に制限的で否定的な認識状態で研究になってきたことを本人の経験を通して告白している。

このようなことを克服するために、私は北朝鮮を通じた直接の対話と経験を紹介し、また北朝鮮の人々の文化的な認識に対する肯定的な理解（特に、南韓・北朝鮮住民の儒教思想）と北朝鮮の官営媒体で発行した多様な新聞と50個を超える各種TV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を通して北朝鮮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を10年間余り持続している。

私の東北アジアの平和についての見解は、親北朝鮮ではなく知北朝鮮に要約されており、北朝鮮に対する理解の増進のためには、北朝鮮住民を含め、北朝鮮側に持続的かつ積極的な対話を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を通じて東北アジア平和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最善の方法だという見解を提示している。

これに対する本人の見解は次のとおりです。

韓国を含む北朝鮮、中国、日本とロシアの国境は互いに接触しており、アメリカのアジア太平洋に対する経済と軍事的理解が鋭く絡み合っている東北アジア地域（Northeast Asian region）は、去る1989年11月、ベルリン障壁の解体と12月の米ソマルタ宣言（Malta Summit）で冷戦終結以来、1992年に中国の社会主義市場経済体制を導入することで確立された平和と安定をもとに、過去30年間、東北アジア各国間の経済的に密接な相互依存的協力体制を構築しました。

このような国際共産主義ソビエトブロック経済の解体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このグローバル相互経済協力を拒否し、国連側の対北経済制裁（Economic

sanction)にも核開発を放棄せず、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や潜水艦発射ミサイル(SLBM)の開発や発射を含む新型武器の継続的な実験など、軍事的挑発などで韓・米・日・中・ロ・北朝鮮を含む東北アジア諸国の中で、平和と安定を脅かす唯一の勢力として残っていました。

大韓民国は、こうした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など大量破壊兵器(WMD、Weapon of mass destruction)の開発中止などを目標に、国連の対北制裁の下でも、2017年から5年間の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政策を通じて南北首脳会談と両国首脳夫婦の白頭山登山、三回にわたるトランプ・キムジョンウン会談などを推進し、南北朝鮮直接対話を追求しました。

南側の粘り強い会話による努力の終わりに、2018年2月、北朝鮮は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に参加し、こうして作られた朝鮮半島の平和の雰囲気は同年4月27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間の板門店首脳会談につながり、9月

19日、南北朝鮮は平壤共同宣言と9.19軍事合意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これらすべての合意は、相互の立場差だけを確認した対話でした。

北朝鮮は寧辺核施設廃棄を条件に全てのUNの北朝鮮制裁の解除を要求し、米国と国際社会では、北朝鮮に対して核を含むすべてのWMDの廃棄を要求したものでした。

結局、米国と国際社会は国連対北朝鮮制裁を維持し、これに対し、北朝鮮は南北唯一の公式対話窓口である開城に位置する南北韓共同連絡事務所を2020年6月16日に爆破し、また、北朝鮮は2018年から維持してきた核実験とICBM発射猶予すなわちモラトリアムを破棄し、2022年1月からICBMを含め弾道ミサイルを15回以上発射しています。

特に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は2022年4.25列兵式の演説と最近2023年7月27日の列兵式を通じて対南核先制攻撃の可能性を露骨に脅かしており、特に、これらの軍事パレードは、前例のないテレビを通じて世界中でリアルタイム生中継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北朝鮮の露骨な挑発により、南北終戦宣言と平和共存という対北朝鮮対話宥和政策はもはや維持しにくい課題となっていま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1990年以来に構築され、維持されてきた東北アジア地域の米・日・中・ロ・韓国間の国際政治軍事的平和(Balance of Power)とグローバル分業化の経済的安定(Status quo)は、2022年2月24日午前から始まっ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より、大きな脅威に置かれました。

第二次大戦後の過去半世紀の間、自由主義 - 市場経済対共産主義 - 共産経済ブロック間の冷戦構造(Cold War)が終了し、1990年以来、過去30年間のグローバル分業化時代(Post Cold War)を開いたが、2022年2月以降、世界は再び自由主義 - 市場経済対権威主義 - 社会主義市場経済ブロック間新冷戦構造(New Cold

War)で国際政治経済体制の変化(Paradigm shif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system)が始まりました。

米・日・中・ロのグローバル4-Big Powerが陸上と海上で直接的に激突する東北アジア地域での平和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後のグローバル安全保障概念の変化とグローバル経済産業分業化の終結(特にGlobal SCM)として、既存の国際政治-軍事-経済体制のパラダイムとして解釈できない状況に直面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新冷戦構造の国際政治経済体制の変化の中で、韓国社会の南北関係及び統一意識の変化、北朝鮮の対南・統一認識及び談論の変化などは、新しい南北関係認識を要求しています。特に南北関係は新冷戦時代に備えて、従来の伝統安全保障(国家安全保障)と非伝統安全保障の連携と結合に基づいた国家安全保障中心の視点から脱皮した新しい南北関係認識が必要であり、この点で、日本の対韓半島専門家の川口教授は、既存の北朝鮮関連研究で禁忌時された「南北韓住民間の直接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対話」に対する政策転換が必要であるという談論を提示しています。

特に川口教授は北朝鮮住民の生活において儒教思想が根強く位置している点に注目し、韓国と北朝鮮と日本の住民が共有する「儒教文化コミュニティ」概念を拡張した新しい南北関係認識を高めるための議論を進める新たな対話の場を開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立場で、新しい南北関係認識と協力を模索する問題提起の性格が強い試論的な談論と言えます。そのため、今後の多様な立場と視点から、新しい南北関係認識の確立のための活発な議論を進める上で、短い役割を十分に行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발표 2]

『초국경 협력 모델』

-하산 국제공항 ·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金在孝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副理事長
東北亞地域自治團體聯合 事務總長

초국경협력 모델

하산 국제공항·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2023.8.21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金在孝



동북아가 3重(북.중.러)으로 당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지경학적 기회' 활용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域內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 구축

“政治는 사람을 분열시키지만,
市場은 사람을 협력하게 만든다”

시장은 국가간 상호의존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국가간의 평화관계를 유지 및 촉진시킨다

[목 차]

- I. 지정학의 시대
- II.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 전망
- III. 초국경협력 실행 방안
 - 1. 하산국제공항 건설
 - 2. 하산국제산업·관광도시 건설

3

I. 지정학의 시대

■ “In the 2020’s, everything is geopolitical” : Jared Cohen

現국제질서의 핵심 추세, ‘지정학의 귀환’에 따른 강대국 정치의 부활

-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의 서방진영 vs.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전체주의 ‘현상 변경세력’ 대립
 - 세계는 신냉전관계로 재정렬 불가피
- 脫冷戰 이후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확산에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대두 → 2020년대, 미·중 전략경쟁, 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지정학의 시대’로 회귀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크라이나戰은 유럽대륙 역사상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선언
 - NATO의 강화(32개국으로 확대)는 유럽의 ‘제2의 신성로마제국’화 담론 대두(철저한 러시아 분리, 봉쇄 기조)

4

■ 자유무역의 훼손

- 세계화의 시대 :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힘을 인식, 무역 장벽 완화, 경제 개방, 경제통합 통한 공동번영, 빈곤퇴치, 평화체제 구축해왔으나
 - '市場'은 반지정학적이며, 가치 사슬로 연결된 철저한 분업체계와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둠
- 지정학의 시대 :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훼손되며(보호무역회귀), 경제적 상호의존이 오히려 '敵'(상대)에게 의지해야하는 '위험'으로 간주(경제안보 무기화)됨
 - 무분별한 경제적 강압(coersion) 확산
 - 상호의존과 분업체계에서 탈피하면서, 공급망의 내재화, 다변화, 독립성 추구
 - 경제통합도 소수의 우호 국가(블럭)간으로 축소: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reshoring, nearshoring, Friend-shoring 추세)

5

■ 유라시아주의(Eurasiaism) 부상

- 西方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지리적 인접성과 對서방 적대감으로 결속된 '유라시아 전체주의 국가연합'(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부상
 - 역사적으로 4번의 유라시아 지배권 경쟁 : 제1, 2차 세계대전, 미소냉전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 단극체제에 도전하는 라이벌의 출현(중.러 : 다극체제 지향)
 - 진영대결에 대응하는 'Swing States'의 부상 :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 양 진영간 경쟁속에서 국익에 기반한 영향력 행사(대체로 유라시아세력에 경도)
- 전체주의 국가간의 결속 강화
 - 국방부분: 오래된 북한-이란 결속. 우크라ין戰 통한 중-러간 전략적 파트너십 결속 강화. 북-러는 쌍방향 군사 관계로 전환. 이란-러간의 긴밀한 국방 파트너십 구축
 - 경제, 무역: 민주진영의 제재(차단)에 대비 안전한 무역과 네트워크구축 강화. 중-러간 에너지자원의 육상수송체계 투자 확대. 북극항로 개발협력. 러-이란간 '남북수송회랑' 구축
 - 이념적 결속: 중-러는 미국의 냉전식 동맹 강화에 저항하며 체제수호 강화. 이란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해독제 역할 주장. 러시아는 자유주의진영이 지키려는 '전통적 가치'의 안식처라고 주장

6

■ 新對中전략 ‘디리스크(De-risking)’의 대두

- 2018년 이래 강화되었던, 對중국 ‘분리’ 또는 ‘脫동조화(De-coupling)’ 전략의 비현실성, 비효율성을 감안하고, 동맹·우호국간의 對中 디커플링정책의 불협화음 해소 필요에 의해,
- 對中 敵對정책에서, 실용적 접근의 ‘脫위험, 위험축소, 위험 회피(De-risking)’ 전략으로 전환
 - ‘중국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제안보 및 위험 관리
 - 중국이 지배하는 핵심물품과 자원(광물) 의존도 축소 및 과도한 경제적 상호의존 해소
- 전방위적 對中 규제에서 경제안보상의 위험분야에만 국한하는 규제로 전환
 - 미·중 관계개선의 시그널: 안보는 경쟁, 경제는 공존으로 전환

《De-risking의 3대 중점방향》

- * 탄력적 공급망 유지 → 청정에너지, 반도체의 특정국 의존 불가
- * 미국첨단기술보호 → 군사분야 전용 기술 보호
- * 美 국내 투자 확대 → 미국 산업 확장을 위한 미국내 투자 활성화

7

■ 지정학적 Swing States의 부상

- 미·소 냉전시대 : 미국 가치동맹 참여, 공산주의 블록 가입, 비동맹상태 유지의 선택지
- 미·중 전략경쟁 시대 : 글로벌 지정학적 규범의 설정 경쟁속에 양자택일 강요
 - 달라진 냉대전구도 속에서, 국익을 위한 자신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신흥국가 그룹 부상
 - ‘지정학적 스윙 스테이트(geopolitical swing states)’로서, 미·중에 대해 ‘선택적 영향력 행사’ 가능하지만, 스스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추진 능력 없음

《그룹별 Swing States: 골드먼 삭스》

- * 핵심적 신흥국가 그룹: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 * 글로벌 공급망 상위 그룹: 브라질, 호주, 멕시코, 베트남
- * 선진민주국가로서 글로벌 비전과 리더십 보유 그룹: 독일, 프랑스, 한국, 캐나다

8

II.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 전망

■ 급변하는 동북아의 지정학, 지경학

- 동북아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었으며, 향후 10년간(2020년대)은 국제정세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예측되는 가운데,
 -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로 누리던, 글로벌 '지경학적 Advantage'도 상실
- 그러나, 전략환경의 급변에 따라 중기적 反轉 예상
 - 미·중 전략경쟁(2018년~), 우크라이나전쟁(2022년~)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 불가능
 - 결국,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균형과 공존'체제로의 이행 불가피
 - 당사국의 정치적 변수 감안, 새로운 균형에는 최소 2년~5년(2025년~2028년) 소요 예상
- 따라서, 동북아는 변화될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경제공동체, 경제통합, 공동시장의 필요성의 대두에 대비할 필요

9

■ 동북아 국가별 전략 환경 변화

- 중국: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팅'으로 완화. 경제적 데탕트 기대. 상호 존중의 공존체제로 이행 가능. 중·러간의 정치·경제·안보 긴밀관계(종속적) 전환. 유라시아 진영의 결속 주도
-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럽·러 관계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정치·경제적 '단절(디커플링)'. 對중국 의존도 심화(종속적)에 대한 경계 및 대비 불가피. 대안으로, 東아시아(Pivot to Asia)와 the Global South와의 관계 증진 및 특히 북·러 관계 긴밀화 필요
- 북한: 한·미·일vs. 북·중·러 진영대결 프레임 적극 활용.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북·러간 군사·경제적 관계 긴밀성을 과도한 대중국 의존 완화의 대안으로 활용 예상. 국제적 대북 제재의 약화(중·러의 UN 대북 제재 강화 회피)기회 적극 활용
- 한국, 일본: 미·중 전략경쟁에 적극 동참. '디리스팅'에 참여(공급망 재편 호응). 서방과의 안보연대 강화. 대러제재 동참. 대북 압박 공동 대응. '탈중국'의 대안 시장 모색 불가피.

10

■ 미래 경협기반 구축

-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계 시대를 대비한 경제협력 기반의 선제적 구축 필요
 - *지경학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경협 기반 구축
 - * 동북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경제공동체 未구축지역 : SCO, EAEU, ASEAN
 - * 독자적 경제통합의 잠재력 보유: 중국 동북3성, 남·북한, 극동러시아, 일본, 몽골(3억명)
- 동북아는 탈냉전시기, 域內 국가간 경제개발의 단계별 격차로 상호보완적 경제개발 추진 유망 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연경제권'을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 받음.
 - * 유엔(UNDP), 초국경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축(TRADP/GTI).
 - * 북·중·러 접경지 중심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수립
 - * 다만, 참여국간(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해 충돌로 성과 미미
- 두만강 유역 '초국경협력'의 성공 모델을 통한, 미래 동북아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

11

III. 초국경협력 실행 방안

1. '하산국제공항' 건설



12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은 지정학, 지경학, 역사·문화적 함의가 큰 만큼
역내 당사국의 발상의 전환과 함께, 분명한 정치적 목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하산국제공항 합의

- 두만강 유역의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은 동북아 유일의 '3국 접합점(Tripoints)'임
- 국제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의 허브이면서, 유일하게 공항 부재 지역임
 - 국제물류 인프라 구축의 완성을 위해, 북·중·러 공동 운용의 관문 공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건설 반드시 필요
 - 공항 건설을 통해 '항만, 육로, 공항'을 완비한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
 - 접경지 공동 개발을 통해, 지정학적 긴장지역을 지경학적 평화·공동번영 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의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초석(Linchpin) 기대
 - 先공항건설을 통해 배후지에 조성할 '하산국제도시' 개발 수요에 부응하며 지역개발의 촉매 역할 기대

23

■ 공항건설 방향

○ 하산국제공항은 수요 창출을 위한 先투자로 추진

- 오늘날 공항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승객과 물류이동의 단순한 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으로 변모.
-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등 다양한 파급효과 발생시킴.
- 공항경제권역 개발시: '항만, 철도, 고속도로 중심의 개발'에서 → '공항 중심의 개발' → 배후지에 물류, 관광, 전시·컨벤션, 상업,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 '공항복합도시'형으로 개발

○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로 건설

- 초국경협력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당사국(북중러)의 공동 참여가 필수
- 공항입지 조성, 건설비용, 노동인력 투입에 대한 역할 분담
- 공항 명칭도 당사국의 이해 반영 : 예) '하산국제공항: 훈춘-하산-나선'으로 설정
- 3국의 기존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역내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결합된 이익공유 시스템하에, 동북아 소지역(sub-region) 협력 발전 모델로 추진 필요

24

■ 공항 개요

○ 하산 중심의 '소지역(sub-region)' 경제권 현황

- 현재, 훈춘(20만명)+나선(20만명)+ 하산일원(5만명-> 향후 20만명으로 확대)
- 북한 나선의 배후지 청진(67만명), 중국 훈춘의 배후지 연길 등 (200만명), 러시아 하산의 배후지 블라디보스톡(60만명) 까지 포용 가능
- * 2013년, 중국 훈춘에 화물중심의 중소형 공항 건설 구상: 소요예산 9억 달러, 60만 m2 규모.

○ 공항 건설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공항 배치 구상: 1단계로 활주로 1본 건설(활주로 2,600미터, 2단계 확장대비 활주로 400-900미터 연장가능토록 부지 예비)
- 터미널: 1단계로, 2030년 기준 연간 여객처리 100만명 기준. 터미널 규모 15,000평방미터
2단계로, 20,000평방미터로 확장
- 계류장: 1단계 6대분 조성. 화물터미널 규모 1단계로 3,000평방미터로 조성.
- 구역 조건 측면: 구역 중첩, 이착륙시 인접국 통과 불가피한바 '평화공항' 구축이 불가피
- 부지: 북한지역은 늪, 호수지역으로 부적합, 훈춘지역은 부지 확보난, 러시아 하산지역이 최적
- 공항 기능: 초기에는 화물항공 비중이 높을 것이나, 추후 산업·관광 도시 조성에 따른 여객 수요가 확대 가
등

15

《 공항건설 사업비 추정액: 부지 비용 제외 》

연간여객처리: 100만명(2030년 개항 기준)	· 총소요예산(부지 제외): 5,500억원
· 총소요부지면적: 10 km2(300만평 기준)	· 소요예산 세부내역:
· 활주로 길이: 3,500 미터 1본	- 비행장건설: 3,500억원
· 계류장: 대형기 2대 등 총 10대분.	- 여객터미널건설: 400억원
탑승교 3대분	- 화물터미널건설: 50억원
· 여객터미널 규모: 20,000m2	- 지원건물(관리동 등): 200억원
· 화물터미널: 3,000m2	- 주차장, 무선레이더, 전기, 상하수도,
· 주차장, 무선레이더, 전기, 상하수도, 오페수	오페수처리시설, 급유, 철도/도로인입 등:
시설, 급유, 철도/도로 인입, 기타 지원용	1,000억원
건축물	- 부대 비용: 350억원

출처: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16

《초국경협력 국제공항 성공모델》

스위스 바젤국제공항(Euro Airport : Basel-Mulhouse-Freiburg)



17

- 유럽 라인강 상류의 스위스, 프랑스, 독일의 접경지(Tripoints)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바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역통합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스위스 바젤+ 프랑스 알사스+ 독일의 바덴지역 통합
- 역사적으로 영토적 갈등(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이지만, 지경학적 우호관계 수립을 통한 갈등해소와 경제적 공동번영을 이룬 초국경협력의 상징으로 부각됨
- 3개국 공동운용하는 '바젤국제공항' 건설(1950년대 시작)을 통해 각각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 공항 부지는 프랑스가 제공, 건설 비용은 스위스부담
- 공항의 위치는 프랑스 생루이지역에 있으면서, 공항 명칭은 허브역할을 하는 바젤국제공항으로 명명.
 - 공식명칭 : 유로에어포트 Euro Airport: Basel-Mulhous-Freiburg
 - 약칭 : 바젤국제공항
- 건설은 3단계까지의 확장을 거쳐, 현재 3800미터 활주로 2개 구비, 연간 여객 900만명, 1일 300편의 항공기 운항. 2026년까지 4단계 확장 추진중

18

- 터미널에는 3개국으로 직접 입출국 할 수 있는 출입국 심사, 세관, 진출입로를 운용하며, 각각의 공항버스 운영.
- 바젤국제공항의 경제권역에는 바젤(인구 20만명), 밀루즈(17만명), 콜마(7만명), 프라이부르크(20만명) 등 60여만 명 거주 (두만강 유역의 하산-훈춘-나선 경제권과 유사)
 - 연간 여객수 900만명으로 유동인구 규모 짐작할 수 있음.
- 또한, 역내 다양한 육상 교통, 물류 인프라와 함께, 공항과 라인港(하천항)까지 보유한 **Tripport**를 형성.
- 바젤경제권에는 제약, 정밀화학, R&D센터, 전시·국제컨벤션 센터, 금융산업, 관광·물류 산업 발달
 - 초국경 경제권의 특색으로, 3국간 **'1일 越境 통근자(frontier commuter)'**가 55,000명에 달함.
 - '라인강 상류(Upper Rhein)' 전체로는 1일 90,000명에 달해 전형적인 초국경협력의 모델

2. 하산 국제 산업·관광 도시 건설

《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은 지정학, 지경학, 역사·문화적 함의가 큰 만큼
역내 당사국의 발상의 전환과 함께, 분명한 정치적 목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국제도시 건설 방향

- 역내 각국의 지정학적 이익 상충 극복을 위해 '다자간 협력모델'로 추진
- 초국경협력 촉진을 위해 '先국제공항 건설, 後국제 산업·관광도시 건설' 추진 (先공급, 後수요). 남·북·러·중 통합경제권 구축의 중심축으로 활용
 - 기존의 《훈춘(20만명), 나선(20만명), 하산(5만명)》에 + 《하산국제도시' 조성(10만~15만명)》 + 하산국제공항 → 《나선-하산-훈춘 균형된 통합경제권》 → 두만강 유역 **1일 경제권** 형성
 - 유럽의 '바젤경제권'과 유사: 《바젤(20만명)- 뮐루즈(20만명)- 프라이버그(20만명)》 + 바젤국제공항 → **1일 경제권** 형성

21

■ 국제도시 개발 모델

- 다자간 협력: 남·북·러 중심, 중·일·몽 협력
 - ★러시아: 부지, 투자, 인프라 조성, 노동력(고려인)
 - ★북한: 노동력(최대 10만명), 자원(광물)
 - ★한국: 기술, 투자, 숙련노동력
 - ★중국: 기술, 투자, 노동력(조선족 중심)
 - ★몽골: 노동력, 투자
 - ★일본, 미국, 싱가포르: 자본, 기술
- 최적의 개발 모델 선택: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모델: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선도개발구역 개념 적용
 - 중국의 '경제특구' 모델: 1970년대말 개혁·개방 초기 모델. 중앙에서 가장 먼 '변방에서의 개혁(reform at the margin)' 전략으로 심천을 경제특구로 설정. 자유 경제활동 보장.(북한에게 유의미)
 - 완전 자율형 도시 조성: 과거 홍콩, 싱가포르식의 개발 개념으로, 기존의 규범, 제도, 질서를 초월한 완전한 경제자유구역형(위탁 개발·경영 가능) 'Charter City' 개념으로 조성

22

-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경제개발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러시아의 '프리모리예 I,II', 중국의 '창지투개발선도구',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계획
 - 제3국에서의 제2개성공단 개념 추진으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창출
- 초국경협력의 중심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의 '발상의 전환' 필수적
 - 북한: '자력갱생', '자급자족'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탈피해야. 시장화, 개방화 필요
 - 러시아: 유럽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시장 중시 전환 불가피.
기존의 선언적 극동개발정책에서 탈피, 진정한 동북아경제권 편입을 위한 실용적 정책 전환 필요

■ 투자 유망 분야

- 제조업 기지 육성: 脫중국 기업의 우선 유치. '중,저위 기술' 제조업 분야 중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유치.
 - 제3지대에서의 개성공단 모델로 조성(남.북.러 중심:기술+ 투자+ 노동력 결합)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분야 유치: ICT,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 신산업분야, 친환경에너지,
 - 의료·제약 분야, 광물 추출분야(특히 희귀 광물), 개발 수용에 부합하는 건축자재

23

-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투자 유치
 - 탈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안보 위험분야만의 제한적 '디리스크(위험회피)'정책이 향후 국제통상환경의 핵심기조가 된다면, 기업 투자 유치 대상이 자유로워질 것
 - 이는, 국제적인 제재 대상인 중국(디리스크), 북한, 러시아에게 긍정적인 영향 예상
- 국제적인 복합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연관 수요 분야
- 자유무역 지대로서의 필수 기능 확충 분야
 - 국제 전시·컨벤션 분야 투자 유치 필수적(가장 열악한 분야)
- 관광 산업 분야 투자 유치:
 - 동북아 유일의 Tripoints인 지리적 특성과 역사 유적지, 계절적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 호텔, 리조트, 의료관광, 역사 유적지 중심의 테마파크, 해양 레저 분야
 - 배후지 내륙지역(중국, 몽골, 극동러시아)으로부터의 계절적, 선별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

24

- UN의 SDGs 프로그램과 연계된 분야
 - 북한, 부분적으로 SDGs에 참여하고 있음
- 농수산, 식품산업 분야: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수산물 가공처리
- 미래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물류 인프라 투자 유치
 - 북극항로 시대 대비한 물류인프라 투자 : 북방 '해상실크로드' 투자 유치(2030년 본격화 예상)
 - 북극항로 출발지(블라디보스톡항)를 하산지역 항구로의 연장, 연계 필요
- 중국의 '備港出海' 전략에 부응하는 투자 유치
 - 기존 나진항, 블라디보스톡항이 활용되고 있으나, 초국경 개발협력에 따라 하산지역 항만 (자루비노, 포시에트항)의 거점화 유력시, 항만 up-grade 분야 투자 유치 필요
 - 2023.7.1부터 중국은 블라디보스톡항을 중국의 '내륙화물교역' 중개항으로서의 사용권 확보
 - *식량, 석탄 등 벌크 화물을 무관세로 화남지역으로 수송 가능하게 됨
 - 중국-북한 간에는 훈춘-상하이를 연결하는 '路港口 일체화' 정책에 따라 '中外中(외국 경유이지만 내국무역으로 간주)' 개념으로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고 있음.*

25

발표자 프로필:

김재효:

現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NEAR) 사무총장, EXCO 사장, KOTRA 상임이사 역임. 서울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美컬럼비아大 School of Business 방문연구원 역임.

26

超国境協力モデルのハサン国際空港 ・国際大都市建設案

2023.8.21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 副理事長キム・ジェヒョ



[前提]

東北アジアが3重(中朝口)に直面した「地政学的危機」を、
「知経学的機会」の活用と多国間協力を通じて
域内の平和と共同繁栄のための基盤構築

「政治は人を分裂させるが、
市場は人を協力させる」

市場は国家間の相互依存関係を形成させることはもちろん、
これにより、国家間の平和関係を維持・促進させる

[目次]

I. 地政学の時代

II. 東北アジア経済秩序の変化展望

III. 超国境協力実行案

1. ハサン国際空港建設
2. ハサン国際産業・観光都市建設

I. 地政学の時代

■ “In the 2020’s, everything is geopolitical” : Jared Cohen

現在の国際秩序の核心傾向、「地政学の帰還」による大国政治の復活

- 自由民主主義秩序守護の西側陣営vs。国際秩序を変えようとする全体主義「現状変更勢力」の対立
- ● 世界は新冷戦関係で再整列が避けられない
- 脱冷戦後、「グローバル化」と「経済的相互依存性」の拡散から→2008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
弱体化した米国覇権への挑戦台頭→2020年代、米中戦略競争、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ウクライナ戦争で世界は「地政学の時代」に回帰

- ドイツのオラフ・ショルツ首相:ウクライナ戦はヨーロッパ大陸の歴史上「時代転換(Zeitenwende)」の分岐点だと宣言

- NATOの強化(32カ国に拡大)は、欧州の「第2の神聖ローマ帝国」化の議論の台頭(徹底したロシア分離、封鎖基調)

■ 自由貿易の毀損

- 世界化の時代：世界は経済的相互依存の力を認識、貿易障壁の緩和、経済開放、経済統合による共同繁栄、貧困撲滅、平和体制を構築してきたが、
 - 「市場」は反地政学的であり、バリューチェーンで結ばれた徹底した分業体制と相互依存性に基づく
- 地政学の時代：グローバル化と自由貿易の毀損(保護貿易回帰)、経済的相互依存が逆に「敵」(相手)に頼らなければならない「危険」とみなされる
 - 無分別な経済的強圧(coersion)拡散
 - 相互依存と分業体制から脱却しつつ、サプライチェーンの内在化、多様化、独立性の追求
 - 経済統合も少数の友好国(ブロック)間に縮小：友好国中心の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reshoring、nearshoring、Friend-shoring 傾向)

■ ユーラシア主義(Eurasiaism)の台頭

- 西方自由民主主義に対抗する、地理的隣接性と対西方敵対感で結束した「ユーラシア全体主義国家連合」(中国、ロシア、イラン、北朝鮮)の浮上
 - 歴史的にユーラシア支配権争い：第一次世界大戦、米ソ冷戦時代、ウクライナ戦争
 - アメリカの単極体制に挑戦するライバルの出現(中露：多極体制志向)
 - 陣営対決に対応する「Swing States」の浮上：トルコ、サウジアラビア、インド、パキスタンなど
両陣営間の競争の中で国益に基づいた影響力行使(概ねユーラシア勢力に傾倒)
- 全体主義国家間の結束強化
 - 国防部分：古い北朝鮮とイランの結束。ウクライナ戦を通じた中ロ間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結束強化。朝露は双方向軍事関係に転換。イラン・ロ間の緊密な国防パートナーシップ構築
 - 経済、貿易：民主陣営の制裁(遮断)に備えた安全な貿易とネットワーク構築の強化。中ロ間エネルギー資源の陸上輸送システムへの投資拡大。北極航路開発協力。ロ・イラン間の「南北輸送回廊」構築
 - 理念的結束：中・ロは米国の冷戦式同盟強化に抵抗し体制守護強化。イランは米国の一方主義に対韓解毒剤の役割主張。ロシアは自由主義陣営が守ろうとする「伝統的価値」の安息所だと主張している

■ 新対中戦略「ディリスキング」の台頭

- 2018年以来強化されてきた対中「分離」または「脱同調化(De-coupling)」戦略の非現実性、非効率性を勘案し、同盟・友好国間の対中デカップリング政策の不協和音解消の必要により、
- 対中敵対政策から実用的アプローチの「脱リスク・リスク低減・リスク回避 (De-risking)」戦略に転換
- 「中国依存度」の縮小と「供給網の多角化」による経済安全保障およびリスク管理
- 中国が支配する核心物品と資源(鉱物)依存度の縮小および過度な経済的相互依存解消
- 全方位的対中規制から経済安全保障の危険分野だけに限定する規制へ転換
- 米中関係改善のシグナル: 安保競争、経済は共存に転換

《リスク除去大3点《方向中の》》

- * 弾力的なサプライチェーンを維持→クリーンエネルギー、半導体の特定国への依存は不可
- * 米国先端技術保護→軍事分野専用技術保護
- * 米国内投資拡大→米国産業拡大のための米国内投資活性化

■ 地政学的Swing Statesの台頭

- 米ソ冷戦時代: 米国価値同盟参加、共産主義ブロック加入、非同盟状態維持の選択肢
- 米中戦略競争時代: グローバル地政学的規範の設定競争の中で二者択一を強要

- 変化した新冷戦構図の中で、国益への影響力を戦略的に活用する新興国グループの台頭
- 「地政学的スイングステート(geopolitical swing states)」として、米中に対して「選択的影響力行使」が可能であるが、自らグローバル議題の推進能力なし

《グループ別 Swing States: ゴールドマンソックス》

- * 中核的新興国グループ: サウジアラビア、インド、トルキエ、パキスタン
- * 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優位グループ: ブラジル、オーストラリア、メキシコ、ベトナム
- * 先進民主国家としてのグローバルビジョンとリーダーシップ保有グループ: ドイツ、フランス、韓国、カナダ

II. 東北アジア経済秩序の変化展望

■ 急変する東北アジアの地政学、知経学

○ 東北アジアは米中戦略競争とウクライナ戦争による地政学的危機が深刻化し、今後10年間（2020年代）は国際情勢上最も「危険な時期」と予測される中、

- 「グローバル化」と「経済的相互依存の拡大」で享受していた、グローバルな「知経学的Advantage」も喪失

○ しかし、戦略環境の急変に伴い中期的な反転予想

- 米中戦略競争（2018年~）、ウクライナ戦争（2022年~）はどちらかの一方の完全な勝利は不可能

- 結局、相互尊重に基づく国際秩序の再編により、新たな「均衡と共存」体制への移行は避けられない

- 当事国の政治的変数を考慮し、新たな均衡には最低2年~5年（2025年~2028年）かかると予想される

○ したがって、東北アジアは変化する国際秩序に応える経済共同体、経済統合、共同市場の必要性の台頭に備える必要性

■ 東北アジア国家別戦略環境の変化

○ 中国:米中戦略競争の変化により、「デカップリング」から「デリスキング」に緩和。経済的デタント期待。相互尊重の共存体制に移行可能。中・ロ間の政治・経済・安全保障緊密関係（従属的）転換陣営の結束主導

○ ロシア:ウクラ戦で、欧州・ロ関係は完全かつ不可逆的な政治・経済的「断絶（デカップリング）」。
対中依存度の深化（従属的）に対する警戒と備えが避けられない。代案として、東アジア(Pivot to Asia)とthe Global Southとの関係増進及び特に朝露関係の緊密化が必要

○ 北朝鮮:韓・日・米vs.朝・中・ロ陣営対決フレームを積極的に活用。ウクラ戦で朝・露間の軍事・経済的関係緊密性を過度な対中依存緩和の代案として活用予想。国際的対北朝鮮制裁の弱体化（中・ロの国連の対北朝鮮制裁強化回避）機会を積極的に活用

○ 韓国、日本:米・中戦略競争に積極的に参加。「ディーリスキング」に参加(供給網再編の呼応)。西方との安保連帯の強化、対ロ制裁に参加。対北朝鮮圧迫共同対応。「脱中国」の代案市場模索は避けられない。

■ 未来経済協力基盤の構築

- 東北アジアの新しい国際関係時代に備えた経済協力基盤の先制的構築が必要
 - * 地経学的変化に備えた中長期的経済協力基盤の構築
 - * 東北アジアはユーラシア地域で唯一の経済共同体未構築地域:SCO、EAEU、ASEAN
 - * 独自の経済統合の潜在力を保有:中国東北3省、南・北朝鮮、極東ロシア、日本、モンゴル（3億人）
- 東北アジアは冷戦時代、域内国家間の経済開発の段階別格差で補完的な経済開発を推進有望地域として天恵の「自然経済圏」を構成していると評価される。
 - * 国連（UNDP）、超国境共同開発のための政府間協議体を構築（TRADP/GTI）。
 - * 中・朝国境地中心の「豆満江開発計画（TRADP）/広域豆満江開発計画（GTI）」樹立
 - * ただし、参加国間（韓国・北朝鮮、中国、ロシア、日本）の利害衝突で成果は微々たるもの
- 豆満江流域の「超国境協力」の成功モデルによる未来東北アジア経済共同体基盤づくりが必要

III. 超国境協力実行案

1. 「ハサン国際空港」建設



《豆満江流域の超国境協力は地政学、知経学、歴史・文化的含意が大きいだけに域内当事国の発想の転換とともに、明確な政治的目標、コンセンサス形成が不可欠である》

■ ハサン国際空港の含意

- 豆満江流域のロシア沿海州のハサンは東北アジア唯一の「3国接合点(Tripoints)」である
- 国際的な交通・物流インフラのハブでありながら、唯一空港不在地域である
- 国際物流インフラ構築の完成に向けて、中・朝共同運用の関門空港として、国際空港の建設が不可欠
- 空港建設により「港湾、陸路、空港」を完備した「トライポート(Triport)」完成
- 国境地帯の共同開発により、地政学的緊張地域を知経学的平和・共同繁栄地域として転換することで、未来の東北アジア経済共同体形成の礎(Linchpin)に期待
- まず、空港建設を通じて背後地に造成する「ハサン国際都市」の開発需要に応え地域開発における触媒の役割への期待

■ 空港建設の方向

○ ハサン国際空港は需要創出のための先投資として推進

- 今日、空港は伝統的な社会間接資本として乗客と物流移動の単純な機能から高付加価値を創出する多様なサービスと産業活動を促進させる機能に変貌。
- 地域の生産誘発効果、付加価値誘発、雇用誘発など多様な波及効果を発生させる。
- 空港経済圏域開発時:「港湾、鉄道、高速道路中心の開発」から→「空港中心の開発」→背後地に物流、観光、展示・コンベンション、商業、先端産業機能を備えた→「空港複合都市」型に開発

○ 多国間協力プロジェクトとして建設

- 超国境協力の中心軸として推進するため、関係当事国（中・朝・ロ）の共同参加が必須
- 空港立地造成、建設費用、労働人材投入に対する役割分担
- 空港名称も当事国の利害反映(例) 「ハサン国際空港:琿春-ハサン-羅先」に設定
- 3国の既存交通・物流インフラ開発計画と連携してシナジー効果を極大化
- 域内の地方自治体と民間部門が結合した利益共有システムの下で、東北アジア小地域(sub-region)協力発展モデルとして推進が必要

■ 空港の概要

○ ハサン中心の「小地域(sub-region)」経済圏の現状

- 現在、琿春(20万人)+螺旋(20万人)+ハサン(5万人→今後20万人に拡大)
 - 北朝鮮羅先の背後地である清津（チョンジン、67万人）、中国・琿春の背後地である延吉（ヨンギル、200万人）、ロシア・ハサンの背後地のブラディブストック（60万人）まで包容可能
- * 2013年、中国琿春に貨物中心の中小型空港建設構想:所要予算9億ドル、60万㎡規模。

○ 空港建設の技術的妥当性の検討

- 空港配置構想:第1段階で滑走路1本建設（滑走路2600メートル。第2段階拡張に備えた滑走路400-900メートル延長できるように敷地予備）
- ターミナル:第1段階で、2030年基準で年間旅客処理100万人基準。ターミナル規模 15,000平方メートル 2段階へ、20,000平方メートルへ拡張
- 係留場:1段階6台分造成。貨物ターミナル規模1段階で3,000平方メートルで造成。
- 空域条件の側面:空域重複、離着陸時に隣接国通過が避けられないため「平和空港」構築が避けられない
- 敷地:北朝鮮地域は沼、湖地域に不適合、琿春地域は敷地確保難、ロシアのハサン地域が最適
- 空港機能:初期には貨物航空の比重が高いが、今後産業・観光都市造成にともなう旅客需要が拡大可能

《 空港建設事業費の推定額:敷地費用を除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間旅客処理:100万人(2030年開港基準) ・ 総所要敷地面積:10km²(300万坪基準) ・ 滑走路長:3,500メートル1本 ・ 係留場:大型機2台の計10台分。搭乗橋3台分 ・ 旅客ターミナル規模:20,000 m² ・ 貨物ターミナル:3,000 m² ・ 駐車場、無線レーダー、電気、上下水道、汚廃水施設、給油、鉄道/道路引込その他支援用建築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総所要予算(敷地を除く):5,500億ウォン ・ 所要予算の詳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飛行場建設:3500億ウォン - 旅客ターミナル建設:400億ウォン - 荷物ターミナル建設:50億ウォン - 支援建物(管理棟など):200億ウォン - 駐車場、無線レーダー、電気、上下水道、汚廃水処理施設、給油、鉄道/道路引込等:1,000億ウォン - 付帯費用: 350億ウォン
---	---

出典:ハンソルエンジニアリンググローバル

《超国境協力の国際空港成功モデル》

スイス・バーゼル国際空港(Euro Airport:Basel-Mulhouse-Freiburg)



- ヨーロッパライン川上流のスイス、フランス、ドイツの国境地帯(Tripoints)で、最も経済力の大きいバーゼルを中心に強力な「地域統合経済圏」を形成している:スイスバーゼル+フランスアルサス+ドイツのバーデン地域統合
- 歴史的に領土的葛藤(戦争)など地政学的リスクが大きい地域だが、知経学的友好関係樹立を通じた葛藤解消と経済的共同繁栄を成し遂げた超国境協力の象徴として浮上
- 3カ国共同運用する「バーゼル国際空港」の建設(1950年代開始)により、それぞれの関門空港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地域経済発展の触媒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 空港敷地はフランスが提供、建設費用はスイス負担
- 空港の位置はフランス・サン＝ルイ地域にあり、空港名称はハブの役割を果たすバーゼル国際空港と命名。
- 公式名称:ユーロエアポート Euro Airport:Basel-Mulhous-Freiburg - 略称:バーゼル国際空港
- 建設は3段階までの拡張を経て、現在3800メートル滑走路を2つ備え、年間旅客900万人、1日300便の航空機運航。 2026年までに4段階拡大を推進中

- ターミナルには3カ国に直接出入国できる出入国審査、税関、出入路を運用し、それぞれの空港バスの運営。
- バーゼル国際空港の経済圏域にはバーゼル(人口20万人)、ミルズ(17万人)、コルマ(7万人)、フライブルグ(20万人)など約60万人が居住(豆満江流域のハサン-琿春-羅先経済圏と類似)
 - 年間旅客数900万人で、流動人口の規模が推測できる。
- また、域内多様な陸上交通。物流インフラとともに、空港とライン港まで保有するTriportを形成。
- バーゼル経済圏には製薬、精密化学、R&Dセンター、展示・国際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金融産業、観光・物流産業の発達
 - 超国境経済圏の特色として、3国間の「1日越境通勤者」が55,000人に達する。
 - 「ライン川上流(Upper Rhein)」全体では1日9万人に達し、典型的な超国境協力のモデル

2. ハッサン国際産業・観光都市建設

《豆満江流域の超国境協力は地政学、知経学、歴史・文化的含意が大きいだけに域内当事国の発想の転換とともに、明確な政治的目標、コンセンサス形成が不可欠である》



■ 国際都市建設の方向性

- 域内各国の地政学的利益相反を克服するため、「多国間協力モデル」として推進
- 超国境協力促進のために「先、国際空港建設、後、国際産業・観光都市建設」を推進（先供給、後需要）。韓・ロ・中統合経済圏構築の中心軸として活用
- 従来《琿春(20万人)・羅先(20万人)・霞山(5万人)》に+《霞山国際都市》造成(10万~15万人)
- + ハサン国際空港→《羅先-ハサン-琿春バランスの取れた統合経済圏》→豆満江流域の**1日経済圏**形成
- ヨーロッパの「バーゼル経済圏」と類似:《バーゼル(20万人) - ミュールーズ(20万人) - フライバーク(20万人)》+バーゼル国際空港→**1日経済圏**形成

■ 国際都市開発モデル

- 多国間協力:韓朝露中心、日中モンゴル協力
- ★ロシア:敷地、投資、インフラ整備、労働力（高麗人）★北朝鮮:労働力（最大10万人）、資源（鉱物）
- ★韓国:技術、投資、熟練労働力 ★中国:技術・投資・労働力（朝鮮族中心）
- ★モンゴル:労働力、投資 ★日本、アメリカ、シンガポール:資本、技術
- 最適な開発モデルの選択:経済自由区域として造成
- ロシアの「先導開発区域」モデル:ロシア極東地域経済。社会発展計画の一環として運用中の先導開発区域の概念適用
- 中国の「経済特区」モデル:1970年代末の改革・開放初期モデル。中央から最も遠い「辺境の改革」 「(reformat the margin)」戦略で深川を経済特区に設定。「自由経済活動の保障」（北朝鮮にとって有意義）
- 完全自律型都市づくり:過去の香港・シンガポール式の開発概念であり、従来の規範・制度・秩序を超えた
- 完全な経済自由区域型(委託開発・経営が可能)「Charter City」の概念で造成

○実効性向上のため、国別経済開発プログラムとの連携推進

- ロシアの「プリモリエーリ」、中国の「チャンジトゥ開発先導区」、北朝鮮の「螺旋経済特区」計画
- 第3国における第2開城工業団地の概念推進により、新たな南北経済協力モデルを創出

○超国境協力の中心国家である北朝鮮とロシアの「発想の転換」が必須

- 北朝鮮:「自力更生」、「自給自足」中心の経済開発政策から脱皮しなければならない。市場化、開放化が必要
- ロシア:欧州との経済的デカップリングに対する代案として、アジア市場重視の転換は避けられない。既存の宣言的極東開発政策から脱皮し、真の東北アジア経済圏編入に向けた実用的政策転換が必要

■投資有望分野

○製造業基地育成:脱中国企業の優先誘致。「中低位技術」製造業分野重点誘致。

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に対応する産業誘致。

- 第3地帯における開城工業団地モデルとして造成(南・北・露中心:技術+投資+労働力結合)
- 第4次産業革命時代の先端技術分野の誘致:ICT、デジタル化、脱炭素化などの新産業分野、環境にやさしいエネルギー、医療・製薬分野、鉱物抽出分野（特に希少鉱物）、開発受容に合致する建築資材

○国際通商環境の変化に応じた投資誘致

- 脱中国の「デカップリング(脱同調化)」政策において、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角化と安全保障リスク分野だけの制限的

「デリスキング(リスク回避)」政策が今後の国際通商環境の核心基調になれば、企業投資誘致対象が自由になること

- これは、国際的な制裁対象である中国、北朝鮮、ロシアにプラスの影響が予想される

○国際的な複合物流インフラ拡充に伴う関連需要分野

○自由貿易地帯としての必須機能拡充分野

- 国際展示・コンベンション分野への投資誘致必須(最も劣悪な分野)

○観光産業分野への投資誘致:

- 東北アジア唯一のTripointsである地理的特性と歴史遺跡、季節的観光需要に応える投資誘致
- ホテル、リゾート、医療観光、歴史遺跡中心のテーマパーク、海洋レジャー分野
- 背後地の内陸地域(中国、モンゴル、極東ロシア)からの季節的、選別的な観光客誘致のための投資

- UNのSDGsプログラムと連携した分野
 - 北朝鮮、部分的にSDGsに参加している

- 農水産、食品産業分野: スマートファームクラスター造成、水産物加工処理

- 未来北極航路時代に備えた物流インフラ投資誘致
 - 北極航路時代に備えた物流インフラ投資: 北方「海上シルクロード」投資誘致(2030年本格化予想)
 - 北極航路出発地(ブラディブストック港)をハサン地域の港への延長、連携が必要

- 中国の「港湾出海」戦略に応える投資誘致
 - 既存の羅津港、ウラジオストック港が活用されているが、超国境開発協力によりハサン地域港湾(ザルビーノ、ポシエト港)の拠点化有力視。港湾up-grade分野への投資誘致が必要
 - 2023年7月1日から中国はウラジオストック港を中国の「内陸貨物交易」仲介港としての使用権確保
 - *食料、石炭などのバルク貨物を無関税で華南地域へ輸送可能になる
 - 中国と北朝鮮の間には、琿春-上海を結ぶ「路港口一体化」政策に基づき「中外中(外国経由だが内国貿易とみなす)」概念で北朝鮮の羅津港を利用している

発表者プロフィール

キム・ジェヒョ:

現、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副理事長。北方経済政策研究院長、東北アジア地域地方政府連合(NEAR)事務総長、EXCO社長、KOTRA常任理事歴任。ソウル大学、北朝鮮大学院大学校、米コロンビア大学Businee School訪問研究員歴任。

[지정토론 2]

『초국경협력 모델』

-하산 국제공항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川口 智彦

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 教授

INAF理事

지정토론문

주제: “초국경 협력 모델, 하산 국제공항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토론자 : 가와구치 도코히코 니혼대학

이 발표는 전반부에서는 주로 현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후반 부분에서는 구라파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하산 국제 산업/관광 도시 건설 구상에 대하여 노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용 ppt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1. 미중 간 갈등의 인식

먼저 이 글에서는 미중간의 갈등이 세계 정치 경제 구도 변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등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힘도 약해졌다. 그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힘이지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에 국익에 맞는 일이고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다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나라들에게는 다른 이념을 가지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위협으로 보이는 것 같다.

중국이 아직 약하고 개혁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시장 경제화 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중국이 강해진 다음에는 경제적 경쟁 상대를 거쳐 군사적 경쟁 상대가 되었다.

대만 문제도 마치 내일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군사 공격할 것 같이 선전하고 일본과 같은 주종 국가는 그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군사력 강화에로 날뛰고 있다. 미국이 하는 말을 듣는 체하면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강화에 길로 나설 수 있다는 일본 특유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반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속에서 그 대상이 된 나라들이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의 대결적 국면을 타개하려면 어느 한 측이 아니라 상방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발표자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구라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러시아는 큰 나라이고 본 발표에서 취급하는 하산도 동북아에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내일이라도 동북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영터리 주장을 하는 소위 전문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있었다.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이나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한 것은 두 나라와 간접적으로 밖에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두 나라에 대한 러시아에 위협이 커진 것이 아니다. 일본에 NATO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북대서양도 아닌 일본에 왜 NATO 사무소가 필요할지 이해가 안 된다.

미국 일본 한국이 러시아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러시아가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데 그렇다면 본 발표 중에서 언급된 “균형과 공존 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북 중 러 관계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실로 이번에 “조국해방전쟁 75돐 경축 행사”에는 러시아국방상이 초대되어 김정은 총비서의 환대를 받았다. 무기전시회장도 같이 돌아보았다는 것으로 하여 조러 간에서 뭔가 무기 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도 추측이 간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론자는 본다.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북한의 외국 측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가 많아지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超国境協力モデル、ハサン国際空港・国際新都市建設方案』に関する討論

日本大学

川口智彦

本発表は、前半部分では主として現国際情勢を分析し、後半部分では欧州の経験などを紹介しながらハサン国際産業・観光都市建設構想について論じている。討論者は、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日常的に研究していないので、発表用pptを見ながら感じたこと何点かについて書くことにする。

1. 米中間葛藤の認識

まず、この発表では米中間の葛藤が世界の政治、経済構図の変化の根本的な原因だとみている。中国が経済的に台頭しながら、米国の経済力が相対的に弱体化し、さらには政治力も弱まった。そうしたことは、あくまでも相対的な力であり、絶対的な力ではない。

中国が経済力を強化しながら、政治的影響力を発揮しようとするのは中国の国益に合致したことであり、中国の主権に属する問題である。ただ、米国式資本主義を基本理念とする国々には異なる理念を持つ中国が発展することが脅威と見えているのであろう。

中国が未だに弱く、改革開放をしながら社会主義経済を捨て、市場経済化していた時には、それを歓迎しながら積極的に接近していたのに、今、中国が強くなった後には、経済的競争相手を経て、軍事的競争相手となった。

台湾問題もまるで明日にでも中国が台湾を軍事攻撃するように宣伝し、日本のような追従国はそのせんでんをそのまま受け入れ、軍事力強化へと奔走している。米国が言うことを聞いている素振りをしていれば、国内的にも億最適にも軍事力強化の道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日本特有の理由もあろう。

米国が中国、ロシア、そして北朝鮮に反対することを要求する中で、その対象となる国々が手を握る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と言えるのではなからうか。そして、今の対決的局面を打開するには、どちらか一方ではなく、双方の妥協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か、発表者はこの点についてどのようにお考えか。

2. ウクライナ戦争と東北アジア

ウクライナ戦争は東北アジアから遠く離れた東ヨーロッパで発生している戦

争である。ロシアは大国であり、本発表で取り扱われているハサンも東北アジアにあるので、ウクライナで戦争を引き起こしたロシアが明日にでも東北アジアで戦争を引き起こすという出鱈目な主張をする、いわゆる専門家もウクライナ戦争初期にはいた。

今、東北アジアで日本や韓国とロシアの関係が悪化したのは、両国と間接的にしか関係の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せいであり、両国に対するロシアの脅威が大きくなったのではない。日本にNATOの事務所を開設するという話もあるが、北大西洋でもない日本になぜNATOの事務所開設が必要なのか理解できない。

米国、日本、韓国がロシアに反対する根本的な理由はロシアが力による現状変更を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あるが、そうであるなら、本発表中で言及された「均衡と共存体制」なるものは、いかなるものと仮定しているのか発表者の見解を伺いたい。

3 . 北・中・露関係

ロシアが孤立しながら北朝鮮との関係が深まったという内容があった。実際、今回「祖国解放戦争75周年慶祝行事」にはロシアの国防相が招待され、金正恩総秘書の歓待を受けた。武器展示会も一緒に視察したということからすれば、朝露間で何らかの武器取引に関する話があったものと推測できる。

しかし、それが北朝鮮の中国に対する依存度を低くする結果とはならないと討論者は考えている。それよりも絶対的な北朝鮮の外国、つまり中国とロシアとの取引が増えるという結果をもたらすのではないだろうか。

[발표 3]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외교의 능동성:
대만과 일본, 대만과 한국관계를
둘러싼 고찰』

陳柏宇

新潟県立大学 教授

INAF理事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外交の能動性：
台日、台韓関係をめぐる考察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외교의 능동성：
대만과 일본, 대만과 한국관계를
돌러싼 고찰

陳柏宇 新潟県立大学
첸 보위 니이가타 현립대학
丘偉国 東吳大学 (台湾)
쿠 워이국 동오대학(대만)

はじめに：

- 本報告では、台湾の日本と韓国との関係を研究対象とし、KMT(中華民国国民党)とDPP(民主進歩党)の指導者の言説と政策の違いを探り、これらの隣国の反応を考察する。
- 既存の文献は主に両主要政党の対中政策を比較し、中台関係に焦点を当てていることに対し、ここでは、台湾の東アジア諸国との関係におけ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指導者の能動性を考察する。

들어가는말：

- 이 보고에서는 대만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KMT(중국국민당) DPP(민주진보당) 지도자의 언설과 정책의 차이를 찾아보고 이웃 나라의 반응을 고찰하다.
- 기존 문헌은 주로 양 주요 정당의 대중정책을 비교하고 중국과 대만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있지만, 여기서는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지도자의 능동성을 고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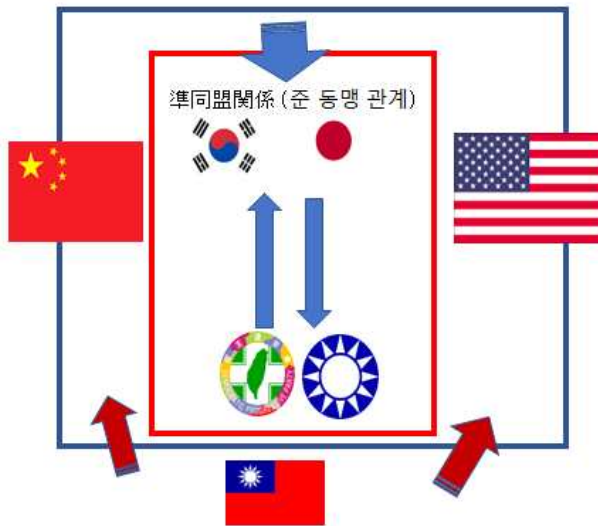
はじめに

- 日本と韓国は、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り、中国との緊密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日本は1972年に台湾との公式外交関係を断絶し、韓国も1992年に台湾と断交した。両国とも中国政府が提唱する「一つの中国の原則」との折り合いをつけながら、台湾と非公式な関係を慎重に維持している。

들어가는말:

-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에 대만과의 공식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한국도 1992년에 대만과 단교하였다. 양국 모두 중국정부가 제창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협하면서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다.

構造的要素：中米関係 (구조적 요소：중미관계)



孫文時代の中日、中韓 関係:反帝国主義

- 日本と韓国は、中華民国(ROC)が1911年に成立して以来、その国との緊密な関係を維持してきました。孫文は、日本のアジア主義のエリートと密接な交流を行っていた。孫文は西洋帝国主義に対抗する目的で日本との協力を模索した。

쑨원시대의 중일, 중한관계 : 반제국주의

- 일본과 한국은 중화민국(ROC)이 1911년에 성립 이래 그 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쑨원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엘리트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쑨원은 서양제국주의에 대항할 목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孫文時代の中日、中韓 関係:反帝国主義

- 中華民国(ROC)と韓国との関係の起源は、中華民国と大韓民国臨時政府との中国大陸での出会いに遡ることができる。韓国の独立運動家で、臨時政府の内閣メンバーであった申奎植は、1911年革命以前から孫文と親交があった。当時、台湾と同様に韓国も日本の支配下にあり、臨時政府は国際的な承認を得ることに苦労していた。

쑨원시대의 중일, 중한관계 : 반제국주의

- 중화민국(ROC)과 한국과의 관계 기원은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대륙에서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며 임시정부의 내각 멤버였던 신규식은 1911년 혁명이전부터 쑨원과 친교가 있었다. 당시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 임시정부는 국제적인 승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冷戦期: 反共産主義としての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 蔣介石は「徳を以て怨みに報ず」という姿勢を採用し、日本から賠償を求めることを避け、代わりに共産主義に対抗するために日本と協力しようとした。

냉전기: 반공산중의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 장제스는 「이덕보원(덕으로 원수를 갚음)」이라는 자세를 채택하여 일본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려고 하였다.

冷戦期: 反共産主義としての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 中華民国政府が台湾に移転した後、李承晩(Syngman Rhee)は蔣介石と反共主義同盟を結成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彼らは最終的に合意に達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主な原因は、日本に対する姿勢の違いによるものであった。李承晩の反日感情は、蔣介石率いる中華民国政権とアメリカ政府の見解と一致しなかった。

냉전기: 반공산중의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에 이승만은 장제스와 반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다.
-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주요 원인은 일본에 대한 자세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반일 감정은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정권과 미국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았다.

冷戦期: 反共産主義としての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 2000年以降、国民党が「反共」路線を
からより「親中」路線をとっており、一
方、台湾独立運動を歴史的に支持し
てきたDPP(民主進歩党)が、「反共主
義」や「反中共」のイデオロギーを復
活させた。

냉전기: 반공산중의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 2000년이후 국민당이「반공」노선으로
부터 보다 「친중」노선을 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만독립운동을 역사적으로
지지해 온 DPP(민주진보당)이
「반공주의」나 「반중공」의 이데오로기를
부활시켰다.

民主化以降: 脱中国の アプローチとしての日本

- 日本文化は台湾政府によって1993年ま
で禁止されていた。厳格な規制が施行さ
れ、日本のマンガやアニメなどのすべ
ての文化製品は、放送や流通の前に「中国
語化」という加工を受ける必要があった。
- 台湾の民主化と並行する本土化(ネイ
ティブイズム)が登場し、元台湾總統の李
登輝氏はこれを促進した。日本は台湾の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重要な要
素になっている。

민주화이후: 탈 중국의 어프로치로서의 일본

- 日本文化는 대만 정부가 1993년까지 금지시켰음.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모든 문화제품은 방송과 유통하기
전에 「중국어식」이라는 가공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 대만의 민주화와 병행하는 본토화(네이티브즘)가
등장하였고 전 대만 총통 리덩후이는 이를
촉진하였음. 일본은 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民主化以降:脱中国の アプローチとしての日本

- 李登輝政權以前、教科書では日本を無情な侵略者として描写していました。しかし、1997年に「台湾を知る」教科書が教育カリキュラムに導入された後、日本に対する評価が変わりました。これらの新しい教科書では日本が台湾の近代化において重要な促進者とし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 台湾人と中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人々の間で日本の植民地支配(1895年から1945年)に対する評価が異なるようになった。

민주화이후:탈 중국의 어프로치로서의 일본

- 리덩후이 정권 이전, 교과서에서는 일본을 무정한 침략자로 묘사했었다. 그러나 1997년에 「대만을 알기」교과서가 교육 커리큘럼에 도입된 후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이러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대만의 근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촉진자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 대만인과 중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대만사람들 사이에 일본의 식민지배(1895년 ~ 1945년)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各政權の外交方針 (각 정권의 외교 방침)

政權 정권	李登輝 리덩후이	陳水扁 I 천수이벤I	陳水扁 II 천수이벤 II	馬英九 I 마잉주I	馬英九 II 마잉주II	蔡英文I 차이잉원I	蔡英文II 차이잉원II
外交 方針 외교 방침	実務外交 실무 외교	價值觀 外交 가치관 외교	價值觀 外交 가치관 외교	活路外交 활로외교	活路外交 활로외교	價值觀 外交 가치관 외교	價值觀 外交 가치관 외교

時期 시기	1992~ 2000/5	2000/5~ 2004/5	2004/5~ 2008/5	2008/5~ 2012/5	2012/5~ 2016/5	2016/5~ 2020/5	2020/5~ 2023/現在
----------	-----------------	-------------------	-------------------	-------------------	-------------------	-------------------	--------------------

中台關係緊張
중대 관계 긴장

中台接近
중대 접근

中台關係緊張
중대 관계 긴장

日本と韓国に関する言説 日本과 한국에 관한 언설

本研究では、陳水扁政権(から蔡英文政権まで(2000~2022)の大統領による対日本と対韓国に関わる言説を総統府のウェブサイトから抽出し、構造的トピックモデル(Structural Topic Model, STM)を行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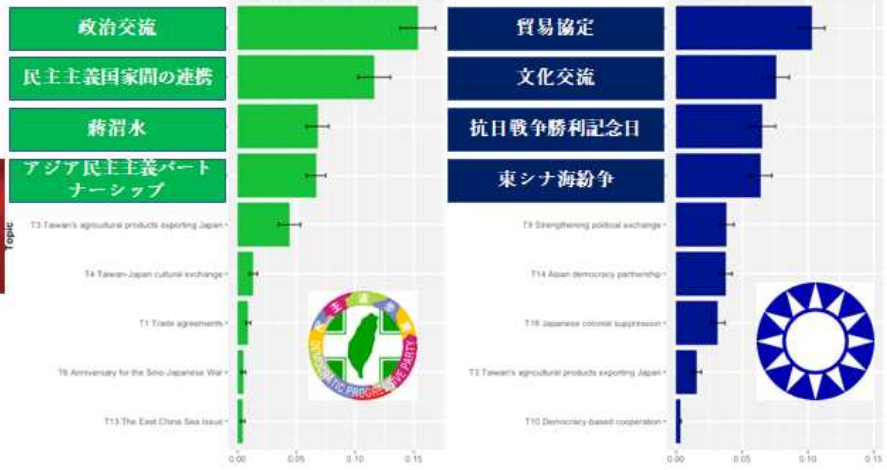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천수이벤 정권부터 차이잉원 정권까지(2000~2022) 대통령의 대일본 및 대한국에 대한 발언을 총통부 웹사이트에서 추출하여 구조적 토픽 모델(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수행하였다.

日本と韓国に関する言説 日本과 한국에 관한 언설

- DPP政権の期間中、韓国と日本に関して最も頻繁に言及されたトピックは「政治的な交流の強化」である。
- DPP정권의 기간에 한국과 일본에 관해 가장 빈번히 언급된 주제는 「정치적 교류 강화」이다.
- KMT政府は、経済的な関係と文化的な関係により大きな重点を置いているように見える。
- KMT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관해 경제적 관계와 문화적 관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Effect of DPP's administration vs. KMT's administration



Effect of DPP's administration vs. KMT's administration



台日関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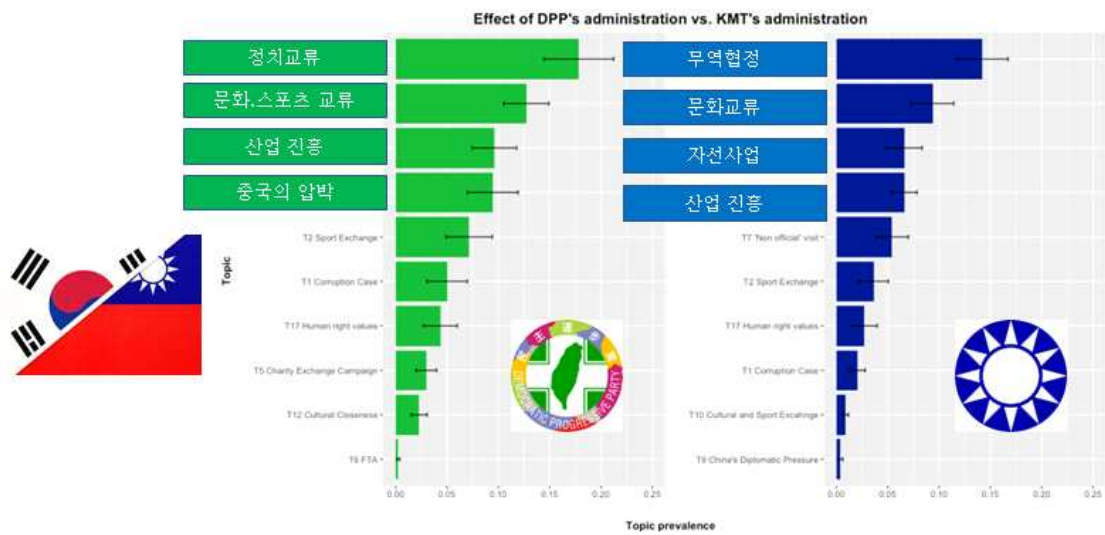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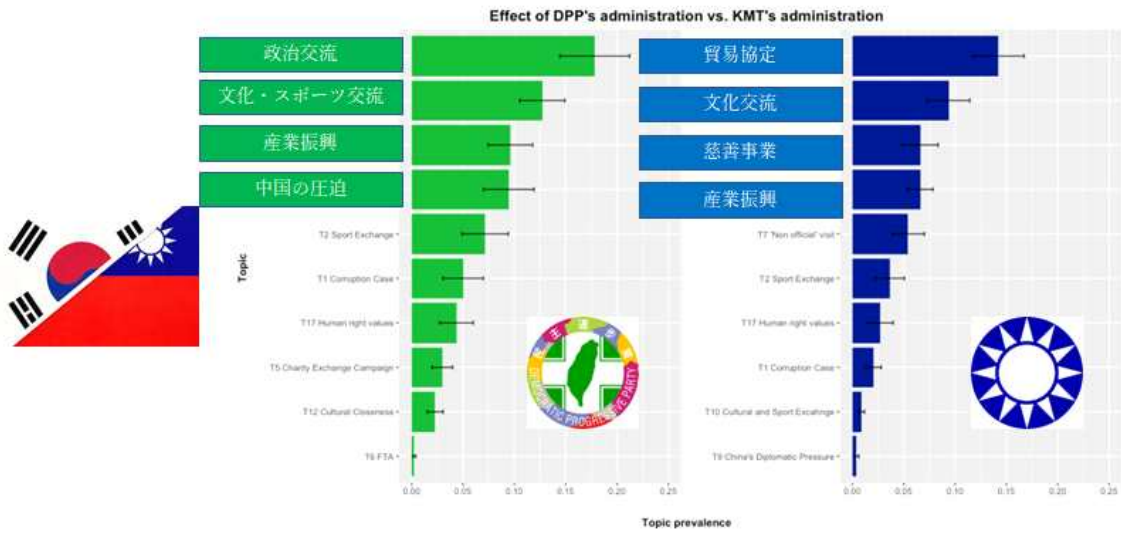
대만-일본 관계



- 2013年4月、尖閣諸島主権問題に関わる紛争のさなかで、馬英九政権は日本と「日台漁業協定」を結んだ。
- 2013년 4월 센카쿠 열도 분쟁(조어도 주권 문제)속에서 마잉주 정권은 일본과 「일본대만어업협정」을 맺었다.
- 2017年初頭(蔡英文政権)、日本交流協会は「日台交流協会」に改称し、同年3月末には日本の閣僚(国務大臣)が台湾を初訪問した。
- 2017년 초(차이잉원 정권) 일본교류협회는 「일본대만교류협회」로 개칭했고 같은 해 3월말에는 일본의 각료(국무대신)이 대만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日台漁業協定について 日本대만어업협정에 대해서

- 馬英九は強い中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ちながら、親中国のKMT支持者たちにも驚きをもって受け止められることなく、日本との漁業紛争に関する合意に達した。この合意は「日台漁業協定」として知られ、尖閣諸島の主権を巡る紛争が続く中、2013年4月に締結された。しかし、この合意は当時、中国から強い反発を引き起こさなかった。これは馬英九と中国との比較的友好的な関係の反映と見ることができ、日本が台湾と交渉する際に中国からの報復を恐れることなく、余裕を持っていたと解釈できるだろう。
- 마잉주는 강한 중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친중국 KMT 지지자들에게도 반대없이 일본과의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 이 합의는 「일본대만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센카쿠 열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 4월에 체결되었다.
- 그러나 이 합의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마잉주와 중국과의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이 대만과 협상할 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台韓關係

대만-한국 관계



- 1992年に中華民国(台湾)と断交した。台湾は韓国と台湾の定期便の相互運航を中止した。定期便の就航を再開したのは12年後の2004年(陳水扁政權)。
- 1992년에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였다. 대만은 한국과 대만의 정기편의 상호 운항을 중단하였다. 정기편의 취항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12년 후의 2004년이었다. (천수이벤 정권)。
- 盧武鉉大統領(2003~2008): 中華民国との關係→「最高水準の非公式關係」を維持
- 노무현대통령(2003~2008): 중화민국과의 관계→「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
- 台湾の国際機構(WHO,WHAなど)への参加に、韓国からの支持なし。
- 대만의 국제 기구(WHO,WHA등) 참가에 한국의 지지는 없음.

表 台湾の大統領か副大統領と日韓団体との延べ面会回数
 表 大만의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일한 단체과의 총계 면회 횟수

政權 정권	李登輝 리덩후이 実務外交 실무 외교	陳水扁 I 천수이벤I 價值觀 외교 가치관 외교	陳水扁 II 천수이벤II 價值觀 외교 가치관 외교	馬英九 I 마잉주I 活路外交 활로 외교	馬英九 II 마잉주II 活路外交 활로 외교	蔡英文I 차이잉원I 價值觀 외교 가치관 외교	蔡英文II 차이잉원II 價值觀 외교 가치관 외교
時期 시기	1992~ 2000/5	2000/5~ 2004/5	2004/5~ 2008/5	2008/5~ 2012/5	2012/5~ 2016/5	2016/5~ 2020/5	2020/5~ 2023/現在
日本 일본	93	66	65	138	79	64	13
韓国 한국	5	9	23	20	7	7	0

韓国元大統領金泳三台湾訪問
 (김영삼 한국 전 대통령 대만 방문)
 (2004,2005,2007,2008)

出所：中華民國總統府(출처: 중화민국총통부)

結論

日本と韓国に対し、国民党(KMT)と民進党(DPP)政権は異なるアスペクトに重点を置いている。さらに、台湾の指導者たちの外交関係における能動性から考えると、中国人アイデンティティが強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との関係は悪化したことはない。馬英九の大統領時代には、彼の外交休戦政策が日台関係の促進に貢献した。

結論

- 将来の展望では、台湾は不安定な中米関係の中でさらなる挑戦に直面するだろう。中国の習近平の「戦狼外交」とアメリカの対中国強硬姿勢という二重の圧力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さらに、過去の経験からわかるように、中台関係が悪化すると、台湾と日本と韓国との関係を深める余地が狭まる恐れがあるだろう。

결론

일본과 한국에 대해 국민당(KMT)과 민진당(DPP)정권은 다른 애스펙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대만의 지도자들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능동성으로 감안하면 중국인 아이덴티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된적이 없다.

마잉주 대통령 시대에는 그의 외교 휴전 정책이 일본-대만관계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결론

- 장래 전망에서 대만은 불안정한 중미관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의 「전랑 외교」와 미국의 대중 강경 자세라는 이중 압력에 대처해야 한다.
- 더욱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중국-대만관계가 악화되면 대만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이다.

陳柏宇 (첸 보우) Profile

<p>新潟県立大学准教授 INAF理事 専門：比較政治学、東アジア国際 関係</p> <p>略歴： 中山大学（台湾）政治学研究科助教 (2013~2016)。 2016年来日。新潟県立大学講師 (2016~2019)、准教授(2019~)。</p> <p>著作：『帝国のヴェール:人種・ジェ ンダー・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から 解く世界』（共著、2021）。 中台関係を陰陽の不均衡として再考 する：台湾の仏教団体による政治的 癒し) <i>Third World Quarterly</i> (共著、 2022) そのほか著書、論文多数。</p>	<p>니이가타현립대학 준교수 INAF이사</p> <p>전공: 비교정치학, 동아시아국제관계 약력: 중산대학(대만)정치학연구과 조교수 (2013~2016). 2016년도일, 니이가카현립대학 강사, 준교수.</p> <p>저작: 『제국의 베루:인종·젠더·포스트 코로나리즘으로 해명하는 세계』 (공저, 2021)。 중대관계를 음양의 불균형으로 재고한다: 대만의 불교단체에 의한 정치적 치유) <i>Third World Quarterly</i> (공저, 2022) 그외저작, 논문다수.</p>
---	---

丘偉国 (쿠 위이국) Profile

<p>東吳大学政治学科助教</p> <p>専門：国際関係論</p> <p>略歴： 香港城市大学博士研究員（2019~2021） 中央研究院（台湾）博士研究員 (2021~2023)、現職に至る。</p> <p>著作： <i>The Politics of District Administration and Elections in Hong Kong</i>(香港の地区行政と選 挙政治) (共著、2023)。“The Meaning of 'Taiwanese': Conceptualizing the Components of Taiwanese National Identity.” (台湾人の意味：台湾ナショナル・アイデン ティティの構成要素の概念化) (2016) その ほか著書と論文多数。</p>	<p>동오대학(대만)정치학과 조교수</p> <p>전공: 국제관계론</p> <p>약력: 홍콩성시대학박사연구원 (2019~2021) 중앙연구원(대만)박사연구원(2021~현재)</p> <p>저작: <i>The Politics of District Administration and Elections in Hong Kong</i>(홍공의 지구행정과 선거정치) (공저、2023) . “The Meaning of 'Taiwanese': Conceptualizing the Components of Taiwanese National Identity.” (대만인의 의미: 대만 내셔널 정체성의 구성 요소의 개념화) (2016) 그외 저서와 논문 다수.</p>
---	--

[지정토론 3]

『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

韓相敦

亞洲大學 名譽教授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 “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
첸 보우 니가타현립대학

토론자 : 한상돈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대만과 일본, 대만과 한국관계를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외교의 능동성 입장에서 고찰한 본고를 통해서, 대만의 외교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다. 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곳에 거주하는 대만인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17세기에 대만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의해 한때 점령되기도 했으나, 1683년에는 청조(淸朝)에 복속(服屬)되었다. 그 후 복건성(福建省) 광동성(廣東省) 한쪽이 대만 이주가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에 따라 대만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대만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1947년 2.28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은 대만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1949년 12월 남경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베이로 임시수도를 옮기는데, 그해 5월에는 ‘대만성 경비사령부 포고 제1호’로 ‘대만계엄령’을 발령하고 38년간 계엄통치를 지속한다.

1971년에는 ‘유엔총회 결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제2758호가 결의되었고, 일본(1972) 미국(1979)과의 단교(斷交)가 이어졌다. 1979년 12월에는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만 민주화가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내외(內外) 우환(憂患) 속에서 대만인(臺灣人)들은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대만의 인구는 2013년 현재 2,331만명이다. 인구는 원주민 2%, 본성인 85%, 외성인 13%으로 구성된다. 본성인(本省人)은 선조들이 대만성(臺灣省)에

서 태어났던 후손인을 가르키고, 외성인(外省人)은 대만 이외의 성(省)에서 태어났거나 그들의 후손을 가르킨다. 본성인과 외성인은 서로 같은 한족(漢族)이지만 아이덴티티는 서로 같지 않다.

위와 같은 대만의 과거와 현재는 대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발제자께서 소개한 ‘각 정권의 외교방침’을 보면, 중대관계긴장-중대접근-중대관계긴장... 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민주진보당(DDP) 집권시기에 한국과 일본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 교류강화’이고, 국민당(KMT) 정부 시기에는 경제적·문화적 관계에 더 큰 중점을 둔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한국·일본의 지정학적 공통분모는 좌·우에 G2 강국이 있다는 점이다. 중·미 양국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대만·한국·일본의 입장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발제자의 결론 처럼,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대만의 한국·일본과의 돈독한 관계 공간도 좁아질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외교 능동성을 발휘하여 대만의 한국·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対日本と韓国の外交政策」 討論 －韓相敦（亜州大学名誉教授）

台湾と日本、台湾と韓国の関係を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外交の能動性の立場で考察した本稿を通じて、台湾の外交状況をより理解することになった。

台湾は地政学的に韓国と日本に隣接している。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は、台湾という地政学的な位置と、そこに居住する台湾人から始まるだろう。17世紀に台湾はオランダとスペインによって一時占領されたりもしたが、1683年には清朝に服属された。その後、福建省の広東省の漢族が台湾移住が始まった。

清日戦争以後、下関條約により台湾は日本の植民統治を受けることになる。1945年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ると植民統治が終息し、台湾は蒋介石の国民党政府の統治を受けることになる。

それから1947年に2.28の事件が起こったが、この事件は台湾人に大きな傷を与えた。1949年12月、南京の国民党政府は台北に臨時首都を移すが、その年5月には「台湾省警備司令部布告第1号」として「台湾戒嚴令」を発令し、38年間戒嚴統治を継続する。

1971年には「国連総会決議（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第2758号が決議され、日本（1972年）アメリカ（1979年）との交渉が続いた。1979年12月には「美麗島事件」が発生したが、台湾民主化が起爆剤となった。このような内外憂患の中で台湾人は1980年代から経済発展と民主化を行っている。

台湾の人口は2013年現在2,331万人である。人口は先住民2%、本省人85%、外省人13%で構成される。本省人は先祖たちが台湾省で生まれた子孫を指し、外省人は台湾以外の省で生まれたか、彼らの子孫を指す。本省人と外省人は互いに同じ漢族だが、アイデンティティは互いに同じではない。

上記のような台湾の過去と現在は、台湾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する上で重要な要因になるといえる。

発題者が紹介した「各政権の外交方針」を見ると、中対関係緊張－中対接近－中対関係緊張…に変化することが注目される。また、民主進歩党（D D P）執権時期に韓国と日本によく言及されるのは「政治的交流強化」であり、国民党（K M T）政府時期には経済的・文化的関係にもっと重点を置くという点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台湾・韓国・日本の地政学的共通分母は左・右にG2強国があるという点である。中・米両国関係がどのようなかによって台湾・韓国・日本の立場も少なからぬ影響を受けるだろう。発題者の結論のように、兩岸関係が悪化すれば、台湾の韓国・日本との親密な関係空間も狭くなるだろう。

それにしても外交の能動性を発揮し、台湾の韓国・日本との文化交流は持続し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

[발표 4]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李昌雨

WORLD FTA FORUM 會長
국회세경FTA일자리센터장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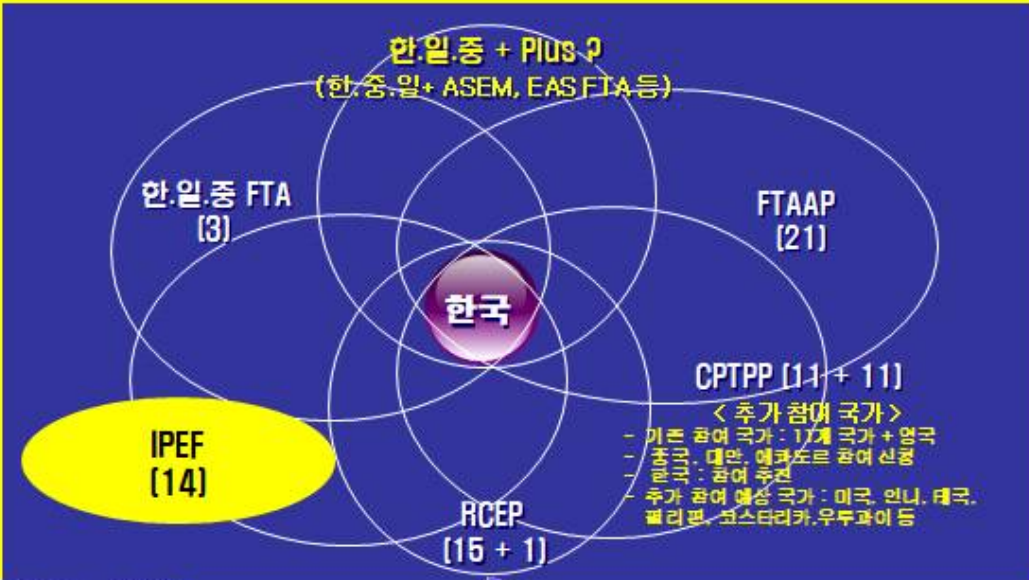
- Beyond FTA, FTA Insight -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
 메가 FTA 시대 글로벌 전략 재설계
 한.일.중 협력 비즈니스 모델

이창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일자리센터
 (cwlee1891@naver.com)

한.일.중 3국, 메가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교역 규범 통일, 공급망 통합, 생산요소 표준화, 총 요소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메가 FTA 시장 5대 통합 효과에 초국가적 대응전략 필요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이창우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경 포럼 FTA일자리센터장,
충북 홍보대사, (주) FTA아카데미 회장

전 LG그룹 본부장
전 중앙대학교 HRD대학원 FTA 최고경영자과정 책임 교수
전 외교부, 산업부 FTA 협상 자문위원
전 외국어대학교 FTA 과정 책임 교수
전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저서

u-Trade Big Bang (백병)
무한 시장 FTA(기업)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산업부 : 공저)
손에 잡히는 FTA (FTA 국내대책본부)
한미 FTA,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 (산업부)
소상공인 FTA 활용 가이드 북 (중소기업청)

FTANOMICS(대학, 대학원 교재)
FTA 연방 시장, Job Freedom 전략(일자리 교재)
메가 FTA 초국가경영전략 과정 (기업 교재)

목 차

- I 수출 기업에게 FTA는 필수요건이다.
- II FTA는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
- III FTA 연방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IV 메가 FTA 활용,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 합니다

I. 수출 기업에게 FTA는 필수요건이다

1.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붕괴, 세계는 강력한 글로벌 연대를 원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인 WTO 체제 약화, 세계 공급망 혼란 등에 대한 각국 대응전략

세계 대응전략	대응 방안
- 기업 공급망 재배치	-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비용 최소화, 적시 공급'(just in Time)에서 복원력 증시, 비상대비(just in case) 로 전환 -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배치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탈 세계화 흐름에 맞춰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으로 다양하게 전환 중
- 디지털화 촉진	-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 무형의 세계화 증가로 유형의 상호작용 감소에 상쇄 - 디지털 교역 표준화: WTO 등 국제기구, USMCA 등 메가 FTA, DEPA 등 디지털 다자 FTA
- 강력한 글로벌 연대 구축	- 바호주 前 EU집행위원장 : 탈 세계화는 또 다른 재앙, 강력한 글로벌 연대 시급 . 미국, EU 등의 공동 행동 필요 . 무역 국가인 한국도 개방된 경제 모델을 채택한 나라들과 강력한 연대를 권고 - 더글러스 어윈 닥터머스대 교수 . 탈 세계화로 치를 대가 너무 커, 동맹국과 열린 무역체제 필요 . 한국 CPTPP에 가입해서 공급망 다각화 필요

4

FTA Academy 이창우

I. 수출 기업에게 FTA는 필수요건이다

2. FTA 활용, 무역 비용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한국 발효 총 22개 FTA 중 주요 6개국 1년간 관세 절감효과, 58억불(6.6조원)

산림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보도시점 2023. 4. 2.(월) 11:00 배포 2023. 3. 31.(금)
 < 4.3.(월) 초간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6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 분석
-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수출관세 58억 달러(한화 6.6조 원) 이상 절감
- 수출기업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 효과

산림통상자원부(장관 이창우, 이하 산림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다.

<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

(단위 : 억불, '21년도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6개협정계
수출액	협정명	중국	미국	EU	베트남	아세안	인도
	수출액(A)	1,629	959	636	567	521	156
	비중	36.5%	21.5%	14.2%	12.7%	11.7%	3.5%
FTA 활용 관세절감액	협정명	미국	EU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관세절감액(B)	16.8	15.5	9.1	6.9	4.9	4.8
	비중	29.0%	26.8%	15.7%	11.8%	8.4%	8.3%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 (B/A)	1.8%	2.4%	0.6%	4.4%	0.9%	0.9%
							1.3%

5

FTA Academy 이창우

I. 수출 기업에게 FTA는 필수요건이다

3. 국가 및 기업 차원의 FTA를 활용 효과에 주목하라.

FTA 활용 기업 매출 증가율 4%, 수출증가율 10% 더 높아, 기업.국가 등 FTA 활용 필요

국가 차원 FTA 필요성
(FTA 체결 국가 603억불 흑자, 비 체결 국가 150억불 적자)

구분	교역 규모 (단위: 백만달러, %)				
	교역	수출	수입	수지	
FTA 발효국	2019	725,898	398,706	327,190	71,513
	2020	705,989 (Δ2.7)	383,118 (Δ3.9)	322,841 (Δ1.9)	80,277
비 발효국	2019	319,883	143,530	176,153	Δ32,823
	2020	274,378 (Δ14.2)	129,871 (Δ9.7)	144,706 (Δ17.9)	Δ15,037
전체	2019	1,045,781	542,236	503,343	38,890
	2020	980,367 (Δ6.2)	512,989 (Δ5.4)	467,548 (Δ7.1)	45,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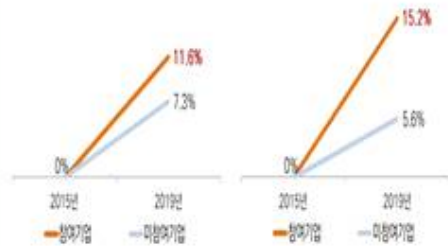
(관세청 : 2021.1.26)

- 2020년 FTA 수출 활용률 74.8%, 수입 활용률 81.5%
-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

기업 차원 FTA 필요성
(매출 증가율 4%, 수출증가율 10% 더 높아)

* 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3,141개사 대상

< 매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 수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산업통상자원부 : 2021.3.16)

-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이유
- 국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

I. 수출 기업에게 FTA는 필수요건이다

4. 한국 수출기업의 절반이 정부 FTA 대응 통상정책을 원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 경제환경 급변에 한국 수출기업 49.7%가 정부의 FTA 통상정책 요구

기업들이 올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과제 단위: %

- 공급망 불안정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 **50.3**
-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 **28.0**
-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 **9.3**
-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신규 협의회 참여..... **7.3**
- 노동·환경·디지털 협정 등 대응..... **5.1**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2021.12.17~22)

- 한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 수출기업의 37.3%가 FTA 활용 강조, IPEF 및 노동, 환경, 디지털 등 메가 FTA에 포함된 주요 이슈까지 합하면 절반 수준인 49.7%가 FTA 통상정책을 원함

II. FTA는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

1. 기존 무역과 FTA 차이점은 무엇인가?

FTA는 체결 국가만 통하는 신 무역규범, FTA간 상호 호환 곤란 등 FTA 특성 이해 필요



II. FTA는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

2. FTA를 이해하려면 협정문부터 파악하라.

현재 FTA에서 활성화 되는 분야는 원산지/통관 분야, 한.미 FTA ESG 조항 주목 필요

한.미 FTA 협정문	한.중 FTA 협정문
<p>Preambl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Agriculture 4. Textiles and Apparel 5.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8.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7.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9.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0. Trade Remedies 11. Investment 1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3. Financial Services 14. Telecommunications 15. Electronic Commerce 16. Competition-Related Matters 17. Government Procurement 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 Labor 20. Environment 21. Transparency 22.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23. Exceptions 24. Final Provisions 	<p>FTA BETWEEN KOREA AND CHINA</p> <p>Preambl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7. Trade Remedies 8. Trade in Services 9. Financial Services 10. Telecommunications 11. Movement of Natural Persons 12. Investment 13. Electronic Commerce 14. Competition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6. Environment and Trade 17. Economic Cooperation 18. Transparency 19. Institutional Provisions 20. Dispute Settlement 21. Exceptions 22. Final Provisions

II. FTA는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

3. 기 발효된 RCEP 협정문을 분석하여 활용하라.

총 20조의 RCEP 협정문 준수 필요, 특히 각국은 제14조 중소기업 조항도 이행 필요

-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 Chapter 2 Trade in Goods
- Chapter 3 Rules of Origin
-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 Chapter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Chapter 6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Chapter 7 Trade Remedies
- Chapter 8 Trade in Services
- Chapter 9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Chapter 10 Investment
- Chapter 11 Intellectual Property
- Chapter 12 Electronic Commerce
- Chapter 13 Competition
- Chapter 14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Chapter 15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Chapter 16 Government Procurement
- Chapter 17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 Chapter 18 Institutional Provisions
- Chapter 19 Dispute Settlement
- Chapter 20 Final Provisions

II. FTA는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

4. CPTPP 협정문, 21세기 세계 교역의 새로운 규범이다.

CPTPP에 도입된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탄생한 거대한 신 시장에도 주목 필요

CPTPP 조항 (30개)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최초규정 및 정의)	16 Competition Policy (경쟁)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17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원산지)	18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4	Textiles and Apparel (섬유 및 의류)	19 Labor (노동)
5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20 Environment (환경)
6	Trade Remedies (무역구제)	21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협력 및 역량 강화)
7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2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23 Development (개발)
9	Investment (투자)	2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10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국경 간 서비스 무역)	25 Regulatory Coherence (규제 조화)
11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26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투명성 및 반 부패)
12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기업인의 일시 입국)	27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행정 및 제도규정)
13	Telecommunications (통신)	28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
14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29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예외 및 일반조항)
15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30 Final Provisions (최종규정)

III. FTA 연방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1. 세계는 지금, FTA 생태계 전쟁 중이다.

세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협정인 FTA 지속 체결



III. FTA 연방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 전 세계는 다자 FTA 경쟁시대도 접어 들었다.

RCEP, CPTPP, 한중일 FTA, FTAAP + IPEF 등 메가 FTA 활성화, 초 경쟁시대 대응 필요



III. FTA 연방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 복합 FTA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합 FTA, 기업은 매 거래 시마다 가장 유리한 FTA 선택 필수



III. FTA 연방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4. 세계 3위 K-FTA 연방, 초 국가 대응전략을 추진하라.

세계 GDP 85% 이상인 한국의 세계 3위 K-FTA 연방 시장, 기업 수출.투자 등 글로벌 전략 초국가적 재설계 필요



IV. 메가 FTA 활용,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합니다.

1. USMCA, EU 등에 대응하는 동북아 FTA 경제공동체를 추진합니다.

메가 FTA, Digital Trade, ESG 등 급변하는 동상 환경에 동북아 공동 대응 필요

I. 한·일·중 FTA 조속 타결도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미주, EU 공동체 대응)

II. 디지털 싱글 마켓 추진 가속화(2015.11, 한일중 정상 합의)

III. RCEP 시장 공동 진출 [RCEP 14조 중소기업 교육, 공급망, 수출 등 지원]

IV. 한국의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을 RCEP 모범 사례로 공유

V. 한국 충북 오송 RCEP 창업 Hub에 공동 참여(7개국 외국학생 창업교육 중)

IV. 메가 FTA 활용,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합니다.

2. 한일 정부의 RCEP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공동 참여합니다.

RCEP 14조, CPTPP 24조 등 정부의 중소기업 공급망 등 지원정책에 적극 참여 필요

주요 내용

1. 목적 (제14.1조)

-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고용·혁신 증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통한 RCEP 활용 확대
- 당사자들은 중소기업의 RCEP 참여를 도모

2. 정보 공유 (제14.2조)

- 공개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당사자들간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정보교환 증진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정보는 RCEP의 무역·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및 유용한 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

- 64 -

3. 협력 (제14.3조)

- 중소기업의 무역규칙 및 규정의 이행,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간의 경험 교류, 혁신 및 기술 교류, 지식재산권계 상호이해 증진 등이 분야 협력 강화
 -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유예 관행 및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

IV. 메가 FTA 활용,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합니다.

3. 수출과 일자리 창출, FTA 자문관 사업을 모범사례로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통상정책, 고용노동부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을 RCEP 모범사례로 일본 및 RCEP 회원국들과 공유

동양일보TV

동양일보

2022년 자문관 중북 수출 견인한 숨은 공로자 한자리에

(2022.12.14.)

- 19명이 39개 기업지원, 6000만 달러 수출 및 840명 고용 -
- 2명 온라인 21개 기업지원, 1900만 달러 수출 -
- 2019년 산업부 우수 수출 정책, 노동부 우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 -

2022년 수출 자문관 사업 성과 보고회'는 FTA·온라인마케팅 자문관 19명(이하 수출 자문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북형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 20년 이상의 수출·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50~69세)을 활용해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9개 기업의 수출 활동지원 성과를 거뒀다.

수출 자문관들의 노력 결과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은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수출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도 840명으로 전년 대비 84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2명은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라인 사업 역량에 맞춰 온라인에 최적화된 상품 경쟁력 확보, 온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온라인 수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전년대비 39% 증가한 19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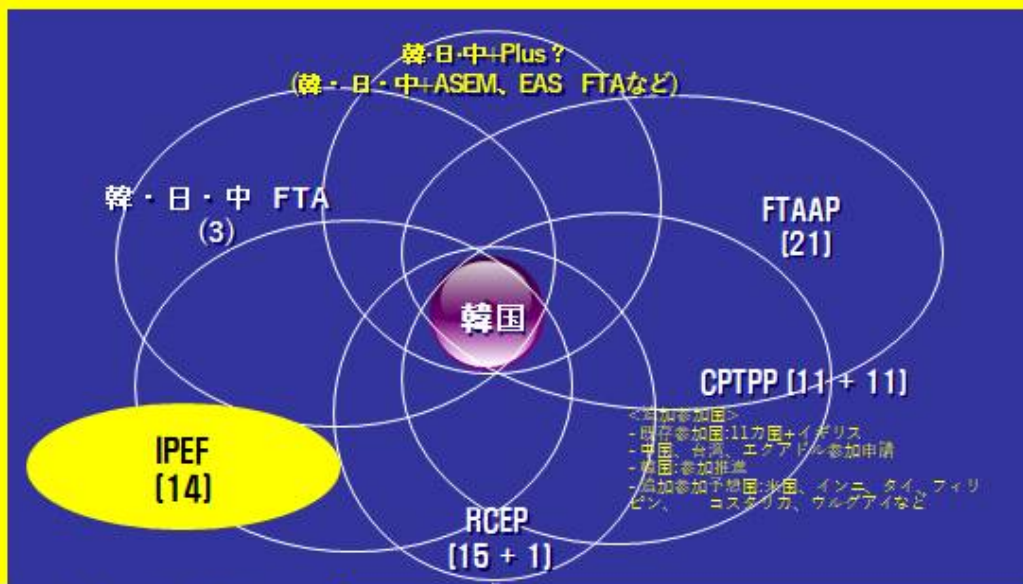
複合通商時代
FTAによる東北アジア経済協力戦略
 - Beyond FTA, FTA Insight -

FTAによる北東アジア経済統合
 メガFTA時代のグローバル戦略を再設計
 韓・日・中の協力ビジネスモデル

이창우
 国会 世界韓人経済フォーラムFTA雇用センター
 (cwlee1891@naver.com)

韓・日・中の3国、メガFTA時代にどう対処するのか？

貿易規範統一、サプライチェーン統合、生産要素標準化、総要素コスト削減、規模の経済実現などメガFTA市場5大統合効果に超国家的な対応戦略が必要



複合通商時代、FTAによる北東アジア経済協力戦略



이창우

World FTA Forum会長、国会の世経フォーラムFTA雇用センター長、忠北広報大使、(株)FTAアカデミー会長

前 LGグループ本部長
前 中央大学HRD大学院FTA最高経営者課程の責任教授
前 外交部、産業通商資源部FTA交渉諮問委員
前 外国語大学FTA課程の責任教授
前 韓国FTA産業協会会長

著書

u-Trade Big Bang (ビッグバン)
無限市場FTA (企業)
韓米FTA論争、その真実は? (産業部:共著)
手に入るFTA (FTA国内対策本部)
韓米FTA、中小企業の新たな機会 (産業部)
小商工人FTA活用ガイドブック(中小企業庁)
FTANOMICS(大学、大学院教材)
FTA連邦市場、Job Freedom戦略 (雇用教材)
メガFTA超国家経営戦略課程 (企業教材)

目次

- I 輸出企業にとってFTAは必須条件である。
- II FTAは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
- III FTA連邦市場、超国家対応戦略が必要である
- IV メガFTA活用、東北アジア新経済生態系を創出しましょう

1. 輸出企業にとってFTAは必須条件である

1. グローバル自由貿易体制の崩壊、世界は強力なグローバル連帯を望んでいる。

グローバル自由貿易システムであるWTO体制の弱体化、世界サプライチェーンの混乱などに対する各国の対応戦略

世界対応戦略	対応策
- 企業サプライチェーン再配置	- 企業は持続可能なサプライチェーン管理のために、「コスト最小化、適時供給」(just in Time)で復元力重視、非常準備(just in case)に転換 - 世界各国に生産基地も配置する「オフショアリング(off-shoring)」が脱グローバル化の流れに合わせてリショアリング(re-shoring)、ニアショアリング(near-shoring)、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friend-shoring)などで多様に転換中
デジタル化促進	- パンデミック(コロナ感染)後のデジタル化が加速し、無形のグローバル化が増加し、タイプの相互作用の減少も相殺する - デジタル貿易の標準化:WTOなどの国際機関、USMCAなどのメガFTA、DEPAなどのデジタル多国間FTA
- 強力なグローバル連帯構築	- パロゾ前EU執行委員長脱グローバル化はもう一つの災い、強力なグローバル連帯が急がれる - 米国、EUなどの共同行動が必要 - 貿易国家である韓国も開放された経済モデルを採択した国々と強力な連帯を勧告 - ダグラス・アーウィン - ダートマス大学教授 - 脱グローバルイゼーションによるコストは大きすぎる、同盟国との開放的な貿易体制が必要 - 韓国CPTPPに加入し、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角化が必要

4

1. 輸出企業にとってFTAは必須条件である

2. FTA活用、貿易コスト削減効果はどのくらいか？

韓国で発効した計22のFTAのうち、主要6カ国1年間の関税削減効果、58億ドル(6,6兆ウォン)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일) 11:00 배포 2023. 3. 31.(금)
 < 4.3.(월) 초간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6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 분석
-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수출관세 58억 달러(한화 6.6조 원) 이상 절감
- 수출기업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우,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에박을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

(단위 : 억불, '21년도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6개협정계
수출액	협정명	중국	미국	EU	베트남	아세안	인도	-
	수출액(A)	1,629	959	636	567	521	156	4,469
	비중	36.5%	21.5%	14.2%	12.7%	11.7%	3.5%	100%
FTA 활용 관세절감액	협정명	미국	EU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
	관세절감액(B)	16.8	15.5	9.1	6.9	4.9	4.8	58.0
	비중	29.0%	26.8%	15.7%	11.8%	8.4%	8.3%	100%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B/A)	1.8%	2.4%	0.6%	4.4%	0.9%	0.9%	1.3%

5

1. 輸出企業にとってFTAは必須条件である

3. 国家および企業レベルのFTAを活用する効果に注目せよ。

FTA活用企業の売上増加率4%、輸出増加率10%より高く、企業・国家などFTA活用が必要である

国家レベルFTAの必要性

(FTA締結国603億ドルの黒字、非締結国150億ドルの赤字)

区分		交易規模(単位:百万ドル, %)			
		貿易	輸出	輸入	収支
FTA 発効国	2019	726,893	398,703	327,190	71,613
	2020	705,969 (-2.7)	383,118 (-3.9)	322,841 (-1.3)	60,277
非 発効国	2019	319,683	143,630	176,163	△32,623
	2020	274,378 (-14.2)	129,671 (-9.7)	144,708 (-17.9)	△15,037
全体	2019	1,046,576	542,233	603,343	38,990
	2020	980,337 (-6.2)	512,789 (-5.4)	467,549 (-7.1)	45,240

(関税庁:2021年1月26日)

* 2020年FTA輸出活用率74.8%、輸入活用率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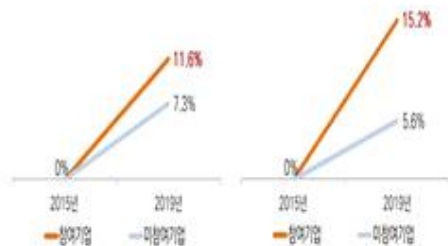
* 世界のほとんどの国がFTAを推進する理由

企業レベルFTAの必要性

(売上増加率4%、輸出増加率10%より高い)

* 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3,141개사 대상

< 대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 수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



(産業通商資源部:2021年3月16日)

* 輸出企業がFTAも活用する理由

* 国、企業、個人などの経済主体がFTAも活用しなければ本人だけ損害

6

FTA Academy 이창우

1. 輸出企業にとってFTAは必須条件である

4. 韓国輸出企業の半分以上が政府FTA対応通商政策を望んでい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ウクライナ戦争、米中覇権競争など国際経済環境の急変で韓国輸出企業
49.7%が政府のFTA通商政策を要求

기업들이 올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과제 단위: %

- 공급망 불안정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 **50.3**
-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 **28.0**
-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 **9.3**
-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신규 협의회 참여..... **7.3**
- 노동·환경·디지털 협정 등 대응..... **5.1**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大韓商工会議所:2021年12月17日~22日)

- 韓国の輸出企業300社を対象に「2022年グローバル通商環境展望と企業の対応課題」を調べた結果

- 輸出企業の37.3%がFTA活用強調、IPEFおよび労働、環境、デジタルなどメガFTAに含まれる

主要イシューを合わせれば半分以上の49.7%がFTA通商政策を望む

7

FTA Academy 이창우

II.FTAは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

1. 既存貿易とFTAの違いは何か？

FTAは締結国だけが通じる新貿易規範、FTA間の相互互換困難などFTA特性を理解する必要



II.FTAは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

2. FTAを理解するためには、協定文から把握せよ。

現在FTAで活性化されている分野は原産地/通関分野、韓・米FTA ESG条項に注目が必要

안·미 FTA 협정문	韓·米FTA協定文	안·중 FTA 협정문	韓·中FTA協定文
<p>Preambl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Agriculture 4. Textiles and Apparel 5.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7.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9.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0. Trade Remedies 11. Investment 1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3. Financial Services 14. Telecommunications 15. Electronic Commerce 16. Competition-Related Matters 17. Government Procurement 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 Labor 20. Environment 21. Transparency 22.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23. Exceptions 24. Final Provisions 	<p>원산지 관세통관절차</p>	<p>FTA BETWEEN KOREA AND CHINA</p> <p>Preambl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7. Trade Remedies 8. Trade in Services 9. Financial Services 10. Telecommunications 11. Movement of Natural Persons 12. Investment 13. Electronic Commerce 14. Competition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6. Environment and Trade 17. Economic Cooperation 18. Transparency 19. Institutional Provisions 20. Dispute Settlement 21. Exceptions 22. Final Provisions 	

II.FTAは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

3. 既に発効したRCEP協定文を分析して活用せよ。

計20条のRCEP協定文の遵守が必要、特に各国は第14条中小企業条項も履行が必要

-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 Chapter 2 Trade in Goods
- Chapter 3 Rules of Origin
-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 Chapter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Chapter 6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Chapter 7 Trade Remedies
- Chapter 8 Trade in Services
- Chapter 9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Chapter 10 Investment
- Chapter 11 Intellectual Property
- Chapter 12 Electronic Commerce
- Chapter 13 Competition
- Chapter 14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Chapter 15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Chapter 16 Government Procurement
- Chapter 17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 Chapter 18 Institutional Provisions
- Chapter 19 Dispute Settlement
- Chapter 20 Final Provisions

II.FTAは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

4. CPTPP協定文、21世紀の世界貿易の新しい規範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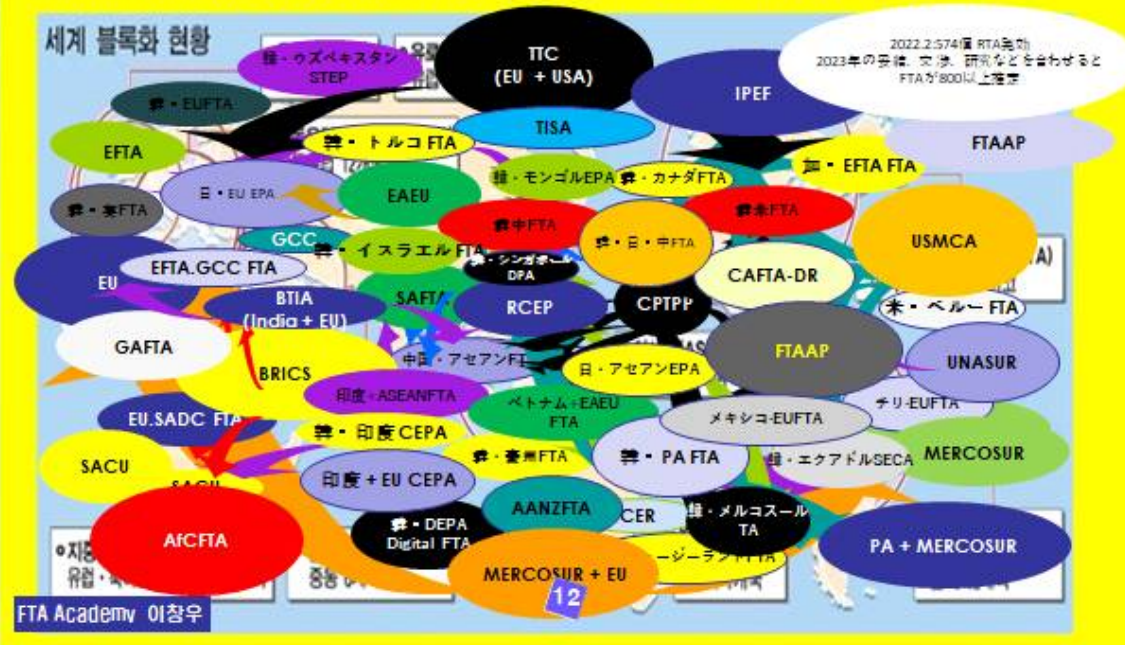
CPTPPに導入された新たな貿易規範として誕生した巨大な新市場にも注目が必要

CPTPP 조항 (30개)		CPTPP 全역 (30국)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최초규정 및 정의)	16	Competition Policy (경쟁)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17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원산지)	18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4	Textiles and Apparel (섬유 및 의류)	19	Labor (노동)
5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20	Environment (환경)
6	Trade Remedies (무역구제)	21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협력 및 역량 강화)
7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22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23	Development (개발)
9	Investment (투자)	2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10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국경 간 서비스 무역)	25	Regulatory Coherence (규제 조화)
11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26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투명성 및 반 부패)
12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기업인의 일시 입국)	27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행정 및 제도규정)
13	Telecommunications (통신)	28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
14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29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예외 및 일반조항)
15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30	Final Provisions (최종규정)

III.FTA連邦市場、超国家対応戦略が必要である。

1. 世界は今、FTA生態系戦争中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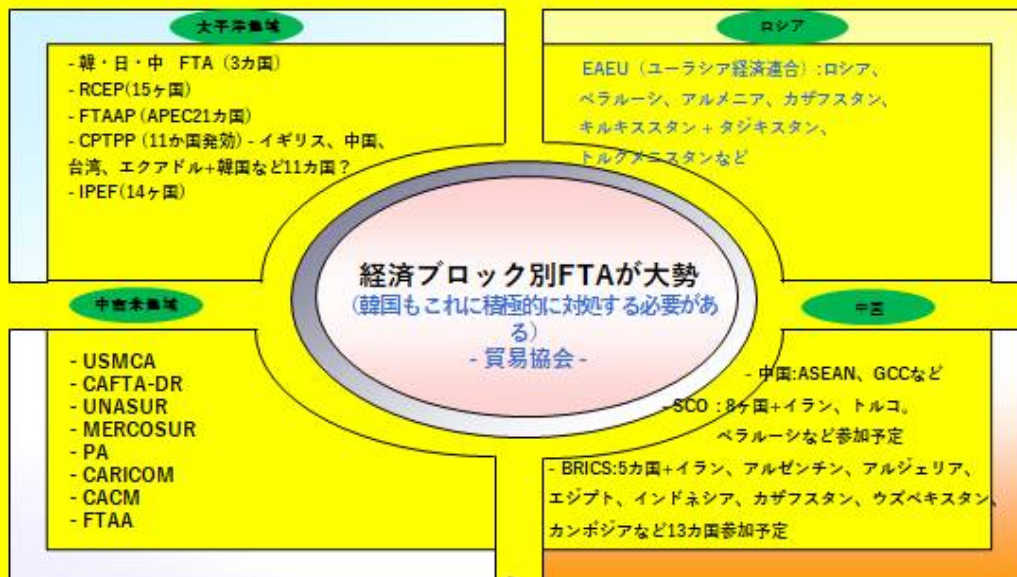
世界の通商環境の急変に対応し、世界中の多くの国が地域経済協定であるFTAを持続締結



III.FTA連邦市場、超国家対応戦略が必要である。

2. 全世界は多国間FTA競争時代に入った。

RCEP、CPTPP、韓中日FTA、FTAAP+IPEFなどメガFTAの活性化、超競争時代への対応が必要



III.FTA連邦市場、超国家対応戦略が必要である。

3. 複合FTAにどう対応するのか？

幾何級数的に増加する複合FTA、企業は取引ごとに最も有利なFTA選択が必須



III.FTA連邦市場、超国家対応戦略が必要である。

4. 世界3位のK-FTA連邦、超国家対応戦略を推進せよ。

世界GDP85%以上の韓国の世界第3位のK-FTA連邦市場、企業輸出・投資などグローバル戦略の超国家的再設計が必要



IV. 메가FTA의 활용, 東北아시아의新經濟生態系을創出しましょう。

1. USMCA, EUなどに対応する東北アジアFTA經濟共同体を推進しましょう。

メガFTA、Digital Trade、ESGなど急変する通商環境に東北アジア共同対応が必要

I. 韓・日・中FTA早期妥結で東北アジア經濟共同体推進（米州、EU共同体対応）

II. デジタルシングルマーケット推進加速（2015.11、韓・日・中首脳合意）

III. RCEP市場への共同進出（RCEP14条中小企業教育、サプライチェーン、輸出等支援）

IV. 韓国の「FTA諮問官」ビジネスモデルをRCEP模範事例として共有

V. 韓国忠清北道五松RCEP創業Hubに共同参加(7カ国外国人学生創業教育中)

IV. 메가FTA의 활용, 北東아시아의新經濟生態系을創出しましょう。

2. 韓・日政府のRCEP中小企業支援政策に共同で参加しましょう。

RCEP14条、CPTPP24条など政府の中小企業サプライチェーンなどの支援政策に積極的に参加する必要

주요 내용 主要内容

1. 목적 (제14.1조) 目的

-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고용·혁신 증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통한 RCEP 활용 확대
- 당사자들은 중소기업의 RCEP 참여를 도모

2. 정보 공유 (제14.2조) 情報共有

- 공개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당사자들간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정보교환 증진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정보는 RCEP의 무역·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및 유용한 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

- 64 -

3. 협력 (제14.3조) 協力

- 중소기업의 무역규칙 및 규정의 이행,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간의 경험 교류, 혁신 및 기술 교류, 지식재산체계 상호이해 증진 등의 분야 협력 강화
-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유예 관행 및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

IV. 메가FTA의 활용, 東北아시아의新經濟生態系을創出しましょう。

3. 輸出と雇用創出、FTA諮問官事業を模範事例として共有しましょう。

産業通商資源部の優秀通商政策、雇用労働部の優秀雇用事業に選ばれたFTA諮問官ビジネスモデルをRCEPベストプラクティスとして日本及びRCEP加盟国と共有

동양일보TV

동양일보

(東洋日報, 2022年12月14日記事)

2022년 수출 자문관 중북 수출 견인한 숨은 공로자 한자리에

(2022.12.14.)

- 19명이 39개 기업지원, 6000만 달러 수출 및 840명 고용 -
- 2명 온라인 21개 기업지원, 1900만 달러 수출 -
- 2019년 산업부 우수 수출 정책, 노동부 우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 -

2022년 수출 자문관 사업 성과 보고회는 FTA·온라인마케팅 자문관 19명(이하 수출 자문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북형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 20년 이상의 수출·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50~69세)을 활용해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9개 기업의 수출 활동지원 성과를 거뒀다.

수출 자문관들의 노력 결과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은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수출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도 840명으로 전년 대비 84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2명은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라인 사업 역량에 맞춰 온라인에 최적화된 상품 경쟁력 확보, 온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온라인 수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전년대비 39% 증가한 19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지정토론 4]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토론문』

黄明浩

Seoul科学総合大学院大学
特任教授/INAF理事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토론문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일자리센터 이창우 센터장은 이 발표를 통해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메가 FTA 시대의 글로벌 전략을 재설계하여 한·일·중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년 간 FTA 관련 연구, 자문 및 현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색되어 가는 한·일·중 관계, 나아가 점점 멀어져 가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해 메가 FTA를 활용하여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같은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 본 토론문은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함으로써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WTO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및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모든 국가들, 특히 수출 지향적인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FTA 나아가 메가 FTA가 필수요건이 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59개 국가와 21건의 FTA를 체결한 한국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양자 간 FTA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워 메가 FTA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RCEP의 가입에 이어 CPTPP 가입 추진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신통상정책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FTA 활용은 높은 관세 절감효과와 매출 및 수출 증가율로 이어지기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FTA의 기존 협정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원 정책과 더불어 현재 가입 추진을 하고 있는 메가 FTA (CPTPP, IPEF 등)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 체결된 FTA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FTA 협정 활용하는 정책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발표문 마지막에 모범사례로 공유하자고 제안한 FTA 자문관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발표문에는 FTA가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FTA를 메가 FTA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WTO 다자통상체제하

의 양자 간 FTA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메가 FTA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 한·중 FTA 협정문의 양자 간 FTA와 기 발효된 RCEP 협정문을 비교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메가 FTA가 기존의 양자 간 FTA에 미치는 경제적 및 시스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유의미하고 필요하다. 특히, CPTPP 협정문이 21세기 세계 교역의 새로운 규범이라는 주장도 흥미로웠다. WTO 다자통상체제와 양자 간 FTA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무역 규범,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역내 참여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관세 장벽, 나아가 기술무역 장벽까지 허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아니라 기술, 환경, 문화, 역사,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일·중, 나아가 동북아 국가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메가 FTA 연방 시장의 형성에 있어 초 국가적 대응전략은 한국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WTO 다자통상체제하에 체결된 양자 간 FTA를 포함한 우후죽순 나타나는 메가 FTA 시대에서 한국은 초 국가 대응전략을 통해 동북아라는 이 지역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코비드-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과정은 챗GPT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표준을 역내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그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로서 한국이 가장 좋은 지정학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은 그 중의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많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동북아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합된 새로운 동북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토론문은 발표자의 발표를 듣지 않고 발표문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발표자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까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문이 발표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複合通商時代のFTAを通じて 東北アジア経済協力戦略」についての討論文

ファン・ミョンホ（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

国会の世界韓人経済フォーラムFTA雇用センターのイ・チャンウセンター長は、この発表を通じてFTAを通じた東北アジア経済統合を図り、メガFTA時代のグローバル戦略を再設計し、韓・日・中協力ビジネスモデルを提示しようとした。長年のFTA関連研究、諮問及び現業での豊富な経験をもとに梗塞されていく韓・日・中関係、さらに、ますます遠ざかっていく東北アジア経済協力の未来のために、メガFTAを活用して東北アジアの新経済生態系を創出しようという提案をした。このような時宜適切で意味ある提案について、この議論は、いくつかのコメントと質問をすることによって、発表者が伝えたいメッセージをより豊か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まず、WTO多者通商体制の弱体化や米・中の葛藤による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混乱は、すべての国々、特に輸出志向的な韓国企業にとって、FTAさらにはメガFTAが必須要件になったという主張に同意する。2004年チリをはじめ59カ国と21件のFTAを締結した韓国だが、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複雑さと不確実性について、両者間のFTAはもはや対応することが難しく、メガFTAへの参加の必要性をさらに高めました。これは韓国政府がRCEPの加盟に続き、CPTPP加入の推進をはじめ、インド・太平洋経済フレームワーク（IPEF）参加について肯定的に検討する新通商政策としてもよく表れている。

ご報告の論文で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国家や企業レベルでのFTAの活用は高い関税削減効果と売上高と輸出増加率につながるため、この時点で最も重要なのはFTAの既存協定の活用方法に対する広報と支援政策とともに、現在加入を推進しているメガFTA（CPTPP、IPEFなど）に対する戦略的活用である。韓国企業が既存締結されたFTAから十分な恩恵を受けられないのは、FTA協定を活用する政策と方法を知らないからである。これは発表文の最後に模範事例（ベストプラクティス）として共有しようとしたFTA諮問官事業の必要性を裏付ける根拠であり、現実でもある。

次に、発表文には、FTAが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としたが、ここでいうFTAをメガFTAと理解することが望ましい。すなわち、WTO多者通商体制下の両者間FTAと対応する概念としてメガFTAの特性と違い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既存の韓・米FTA協定文と中・韓FTA協定文の両者間のFTAと発効されたRCEP協定文の比較分析して活用する必要がある。メガFTAが既存の両者間FTAに及ぼす経済的およびシステムの影響の分析も重要で必要である。特に、CPTPP協定文が21世紀の世界貿易の新しい規範であるという主張も興味深かったのである。WTO多者通商体制と両者間のFTAという両極端の間で多様な地政学的な利害関係によって巨大な新たな市場を創出できる可能性によ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新しい貿易規範、すなわち、新たな標準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は、域内参加国の利害関係に合わせて新たな市場を創出できる新たな基準を一緒に持続的に作っていきながら関税障壁、さらに、技術貿易障壁まで壊れる可能性のある案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ある。単に経済的利益だけでなく、技術、環境、文化、歴史、制度を含む包括的な新しい標準を作成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これは、韓・日・中、さらに東北アジア諸国間の新しい経済協力モデルを作っていくために必ず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大きな山であることに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最後に、しかしながら、これに限られたわけではないが、メガFTA連邦市場の形成における超国家的対応戦略は韓国だけでなく、すべての国に該当する内容である。既存のWTO多者通商体制下で採決された両者間FTAを含む雨後の筍のように現れるメガFTA時代で、韓国は超国家対応戦略を通じて東北アジアというこの地域での中枢的役割をする必要がある。COVID-19によって加速されたデジタル変換プロセスはチャットGPTの次世代人工知能技術を含む次世代技術分野での新しい標準を域内東北アジア諸国とともに作り、東北アジア新経済生態系を創出する必要がある。これは東北アジア地域のどの国もできない代替不可能な重要な役割であり、韓国が最高の地政学的および社会経済的条件を備えていると見られる。FTA諮問官ビジネスモデルは、そのうちの1つの良いベストプラクティスであり、今は始まりにすぎないのである。韓国はより多くのベストプラクティスを作り、東北アジア諸国と共有することで、統合された新しい東北アジア市場を創出することに貢献することができる。

本討論文は、発表者のご報告を聞かずに発表文に基づいて作成され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発表者の豊富な経験と洞察力まで理解するには限界がある。